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스스로 힘써 닦아야 한다
자신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4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9호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재가안거 증가세 인프라 구축 시급

불기2560년 재가자 안거 문화 진단

스님들이 여름철 우기와 겨울 혹한기 한군데 모여 수행정진하는 '안거'가 재가불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재가자 안거 동참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초심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메뉴얼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5월 19일 재가 안거에 입재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하안거에서는 22개 사찰 및 기관에서 2000여 명이 접수했다. 2014년 동안거 당시 16개 사찰에서 1000여 명, 2015년 하안거 당시 18개 사찰서 1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재가자들의 안거 참여 열기 확산은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은 "수행을 어렵게만, 혹은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주변인의 추천으로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많다"며 "1주일에 1번씩 한자리에 모여 집중수행하고, 또 점검하는 간소한 과정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열기에 사찰이나 관계기관의 참여도 함께 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총림인 백양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선방을 개설했고, 부산에서는 동명대 세계선센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재가자 안거에 새롭게 참여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가자 안거 참여에 비해 이에 대한 관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 연합회가 주도해 공동 매뉴얼과 체계를 갖춘 부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은 접근성이 좋고, 지도법사 스님이 맞춤형 지도를 하는 선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실정이다.

봉은사 시민선원을 운영하는 차혁진 교무교육팀장은 "매년 100여 명이 넘게 찾아오고 있다. 선방 공간에 한계가 있어 면접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용화선원 또한 늘어난 재가자 선객들로 인해 최근 시민선방 중창불사를 단행했다. 용화선원은 7월부터 집중수행을 재개한다.

조계사 시민선원을 운영하는 이근혜 선림원 행정관은 "구참자들은 마음이 맞는 도반들과 함께, 혹은 지도법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문화가 있다"며 "대중들이 한군데 모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도 있다. 초심자와 구참자가 섞이다 보면 서로 불편하기에 이런 문화가 굳어졌다"고 귀띔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칫 재가자 안거에 발심한 초심자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지역 S선원 관계자는 "선방에 일정수준의 수행력이 기반돼야 한다. 어차피 수행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초심자들을 이끄는 경우도 많다. 서울 안국선원은 좋은 예다. 은암 안국선원 홍보운영팀장은 "선원장 스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등과 연계하여 간화선 지도를 한 후, 선원에서 신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함께 안거에 들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초심자들도 이 과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수행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국선원의 경우 매년 동참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동안거에 비해 30여 명이 늘어난 960명이 방부를 들였다.

개별사찰의 노력과 함께 종단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이 보급하려 한 간화선 초심자 입문과정은 중단된 상황이다. 포교원은 최근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보급한 매뉴얼을 참고자료로 확보했다. 여기에는 초심자, 특히 직장인들이 간화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하는 가정수행지침 등이 세세히 기록돼 있으며, 수행록 등이 포함됐다.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신도교육과 수행경력을 담을 수 있는 일지로 새롭게 고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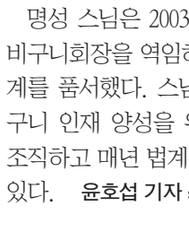
부산지역 증가, 고불총림도 시행
수치 집계 없고 운영은 '재량'
운영자 "구참자 위주 문화 존재"
초심자 위한 시스템 마련 절실



'대중포교' 원력으로 쌓아올린 〈불광〉 500호 월간 〈불광〉의 500호 발간 기념전이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막됐다. 사진은 월간 〈불광〉으로 쌓아올린 부처님상 앞에서 불자들이 불광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 두번째가 불광 발행인 지홍 스님. 세번째는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 스님이다. **노덕현 기자**

교계 장편 작가 키워낼 '텃밭' 생긴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법계문학상' 제정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목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사진〉이 불교계 신진 장편 작가 양성을 위해 기금을 출연, 문학상을 제정했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5월 25일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학상 제정 취지와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전국 최대규모의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으로 키운 명성 스님의 뜻에 따라 제정됐다. 스님의 법호인 '법계'를 따서 만든 법계문학상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불교 포교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명성 스님은 문학만큼 불교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판단해 문학상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상부문은 장편소설과 장편동화.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 및 등단 5년 미만인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작품은 매년 10월 31일 마감하며, 장편소설은 원고지 1천매 내외, 장편동화는 원고지 300매 내외 분량이어야 한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작품에 상금 1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우수상은 상금 500만원, 가작은 상금 300만원. 시상식은 12월 초에 열린다.

법계문학상은 기존 불교계 문학상들이 쉽게 다루지 못했던 장편소설과 동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과 유심작품상이 있지만 시 · 시조 · 학술 · 단편소설 · 평론 등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남지심 운영위원장은 "장편은 작가가 긴 호흡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불교적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며 "불교계에 장편 작가들이 활동할만한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계문학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추후 수상 작품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유명 사찰에 배포할 계획이다. 작품이 장편인 만큼 책으로 발간해 작품 생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계문학상 운영비용은 상금과 작품집 발간, 심사비 등을 포함해 총 4500만원이 소요된다.

명성 스님은 2003년부터 8년간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하고 2007년 명사법계를 품서했다. 스님은 2003년부터 비구니 인재 양성을 위해 법계장학회를 조직하고 매년 법계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피폭, 2세로 옮겨지지만 한국정부 무관심"

불사연, '피폭 유전 안 된다'는 日연구 전면반박

'원폭 피해 유전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내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방사선영향연구소'의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5월 25일 〈한국 원폭피해자의 인권과 불교계의 역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원폭2세 쉼터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 연암 스님과 김기진 부산일보 편집부국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불사연은 "피폭1세 대다수가 사망하면서 원폭 문제는 후손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회 · 경제적 고통의 대물림과 함께 방사선 피폭의 유전적 영향이 핵심"이라며 "과거 유전적 영향을 부정하는 방사선영향연구소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최근 민간 연구자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불사연은 "방사선영향연구소의 과거 연구 결과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대상 집단 설정이 잘못된 점 △원폭투하 주체인 미국이 세운 연구소란 점 △의학 · 과학기술이 낙후된 시기에 유전성을 조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불사연은 "연구소는 폭심지로부터 2.5km 밖에 있던 주민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저선량 피폭을 도외시한 것이다. 가장 건강한 피폭자와 피폭자가 뒤섞인 대조집단을 비교한 것"이라면서 "또한 이 연구소는 원폭 투하의 주체인 미국에 의해 세워졌다. 민간 의학자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독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 조사했음에도 불구,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사연은 "한국 정부는 방사선 피폭의 유전성을 인정치 않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1세 문제는 일본에 떠넘기고, 2세 문제엔 관심조차 없다"며 "일본은 공식적으로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처럼 방치하진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는 최근 5월 19일 국회 본회의서 통화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대상서 원폭피해자 자녀 및 후손이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진다.

특히 불사연은 보고서 3장서 피폭 2세 김형률(1970~2005) · 문택주(64) · 한정순(57) 씨의 삶을 다루며, 방사선 피폭 유전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불사연은 2010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실시한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 결과를 인용하고, "피폭자의 고통은 대물림됐다. 2세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한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또 자신이 피폭 2세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받을지 모른단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현불샵 단독 입점 상품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종 류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6월 6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종조(宗祖) 도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된다.

조계종은 오는 6월 6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거행한다. 도의국사는 육조 혜능 스님의 법을 이은 서당 지장 스님에게 사사해 남종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한 스님이다.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산하고 선법을 크게 펼쳤다. 특히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까지 당시 주류인 화엄사상서 선사상으로 사상의 흐름을 바꾸었다. 조계종은 지난 1962년 3월 22일 불교재건비상종회가 도의국사를 조계종조로 종헌 전문에 명시한 이래 조계종조로 추앙하고 있다. 다례재는 2004년 종단차원으로 최초 봉행한 이후 매년 음력 5월 2일 진행되고 있다.

다례재는 육법공양,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행장소개, 추모사, 청법게, 법어, 종사영반, 헌화,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로 명칭변경

선원수좌복지회, 명칭 혼란에 정기이사회서 결의

조계종 선원 수좌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출범한 선원수좌복지회가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다.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2012년 1월 16일 출범 이후 올해 5월 9일까지 총215건, 3억 83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법인 사무처는 “이에 비해 간화선 수행풍토 확산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그동안 법인 설립 초부터 모기업인 ‘전국선원수좌회’와 명칭이 비슷해 혼동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3월 열린 10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차례 논의하여 결의했다. 이후 설립 취지를 명칭에 넣기로 해 변경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인 사무처는 이어 “법인 명칭 변경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간화선 수행환경 조성과 청정한 수행문화 확산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922-9967 **노덕현 기자**

“생명경시 기업풍조, 인류·생태 파괴할 것”

조계종 환경위원회, 5월 25일 ‘생명존중 성명서’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환경과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사회 기업윤리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 논란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이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단 지적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5월 25일 발표한 ‘생명존중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명 및 환경보호 의식 회복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임 위원장 수암 스님을 임명하고 7기 환경위원단을 새롭게 꾸린 후 공식적인 첫 행보다.

환경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이윤만 추구, 환경과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기업은 기업윤리를 회복해 운영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수암 스님은 “독성물질을 무지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해치는 기본 생존권 문제일 뿐 아니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불매운동 등으로 해당 사건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 해결을 위해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10년, 아니 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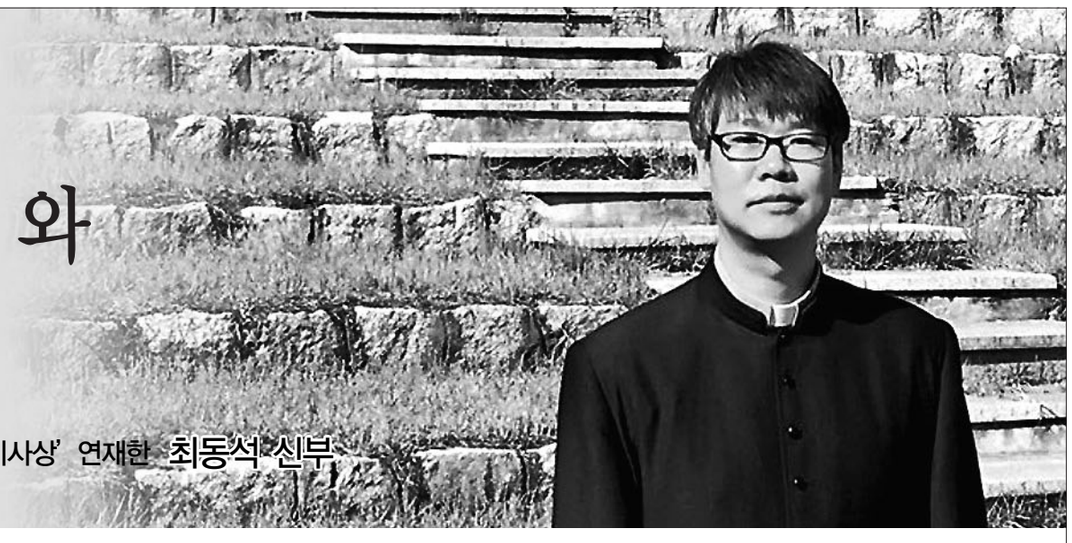
또한 수암 스님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인류생존에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도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찰 내 난방 절약 및 신도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도 모르게 일삼아 온 환경파괴행위를 각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환경위는 7월 1일 서울 진관사서 워크숍을 열고, 7기 환경위의 중점사업 및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의 ‘보살’ 가톨릭 ‘자비’와 ‘일맥상통’



[특별인터뷰] 가톨릭 주보에 ‘불교 자비사상’ 연재한 최동석 신부

가톨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를 ‘자비의 특별희년’으로 선포했다. 이에 가톨릭 인천교구(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지난 2월 28부터 5월 1까지 불교의 자비사상을 짚어보는 글을 10회에 걸쳐 주보에 실었다. 가톨릭 주보는 가톨릭 신자들이 교리와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하는 매체로 교구별로 일괄제작하기에 교단내 파급효과가 크다.

이 주보에 글을 기고한 이는 최동석 신부로 최 신부는 대구가톨릭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 신부에게 불교와 가톨릭의 만남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동석 신부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불교철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신부는 5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불교와 함께 했기에 불교를 공부하면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불교철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 신부는 베이징대에서 〈능가경〉을 전공했다. 〈능가경〉은 부처님이 능가산에서 대혜보살을 상대로 설한 가르침을 모은 경전으로 초조 달마대사 이후 5조 홍인스님까지 선종의 소의경전이었지만, 6조 혜능선사에 이르러 〈금강경〉으로 대체된다.

최 신부는 “베이징대에서 함께 수학한 스님에게 권유를 받았다. 함께 불교 스터디를 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능가경에는 공(空), 유식, 여래장사상 등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해 연구한다면 가톨릭 공부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 신부가 바라본 불교의 ‘자비’는 무엇일까. 최 신부의 지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살정신’이었다. 최 신부는 가톨릭 주보에서 먼저 자(慈)와 비(悲)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비가 실천으로 드러나는 보살에 대해 살폈다.

“초기불교에서 ‘자’(慈)와 ‘비’(悲)는 별개였습니다. 친구, 진실한 우정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자’는 ‘동료, 친구에게 안락과 이익을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불쌍히 여김, 슬픔 등을 의미하는 ‘비’는 ‘동료, 친구의 고통과 불이익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최 신부는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부처됨을 보류한 채 ‘이타행’을 실천하는 이”라며 “이런 이타행은 모든 종교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최 신부는 불교는 이웃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불교교리와 별개로 수많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의 대중들의 애환과 기쁨 등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욱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 속에 녹아 있는 자비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 종교가 이해와 대화, 그리고 협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종교갈등 방지 뿐만이 아니라 실업, 계층 소외 등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데 종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 신부는 “가톨릭은 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을 통해 다른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각자가 가진 ‘우리 것만 유일하다’는 벽을 만들면 고립된다. 우리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지평을 넓혀 다른 종교에 대한 우주관, 종교관, 전통의례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톨릭에서 ‘자비의 희년’을 포함해 자비로우신 하느님 등 자비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 근간의 정신에서는 같다고 답했다.

“가톨릭에서 ‘자비’는 라틴어 ‘Misericordia’의 번역입니다.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자’, ‘비’가 각기 의미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번역하고 한국불교가 받아들이며 ‘자비’가 한 개념으로 굳어졌지요. 용어에 대한 각 종교의 교리적 해석은 차이가 나지만 그 것을 교학적으로 맞고 다른지 따지기 보다 그 근간의 의미를 살피는데 중요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굴곡, 서로 메우자”

그런 의미에서 최 신부는 불교계에서도 가톨릭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신부는 이러한 과정을 ‘서로를 메워놓는다’고 표현했다.

“제가 거주하는 경산에는 팔공산이 있고, 사찰이 200여 개가 됩니다. 부처님오신날에도 암자를 방문하고 수행하면서 불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편견없이, 격의없이 사는 것이지요.”

수행에 대해서도 불교와 가톨릭의 교학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을 대화하고 함께 살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불교는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합니다. 가톨릭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가톨릭은 성령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과 일치하지만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수행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발전했어요. 교학을 전공해 수행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가톨릭도 교부시대부터의 수행전통이 깊고 넓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대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신부는 앞으로 〈능가경〉을 심화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날 자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에서 불교에 대해 가르치며 틈틈이 공부한 내용을 가다듬고 싶다는 최 신부의 말 속에 종교인의 열린 모습이 엿보였다.

한편, 가톨릭에서는 2004년 파리대학에서 성철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명원 신부, 200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곽상훈 신부 등 불교공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불교계에서 이웃종교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은 극소수다. 미국 템플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는 많지 않다. 이는 불교사상이 최고라는 아집 때문”이라며 “불교가 더 넓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학 또한 이해하고,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이징대서 ‘불교철학’ 전공

스님과 스터디, 박사 취득

가톨릭대서 후학양성 매진

가톨릭 ‘자비 희년’ 기획연재

종교 실천에 ‘보살정신’ 강조

“근본 정신에서는 같은 의미”

“불교역사가 한국역사” 평가

두 종교 수행전통 논하길 기대

인정·배움통한 종교발전 역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차별 등 사회적 요인, 노인 자살로 내몰아”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 ‘2016 자살예방세미나’ 서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멍에를 쓴 대한민국(2015 통계청).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는 5월 26일 ‘2016 자살예방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강연에 나선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과 교수〈사진〉는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노인의 배제 및 차별 경험’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2015년 10월 1~23일 노인복지관 이용자 총 500명(서울 250 · 도농복합 150 · 농촌 100)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 총 473부(서울 239 · 도농복합 136 · 농촌 98)를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조 교수는 “사회로부터 다양한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은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 또한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 소비에서의 배제 등 요인에서 노인 우울감이 찾아온다”며 “특히 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는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노인자살은 매우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오랜 시간동안 자살을 생각한 단 의미”라며 “따라서 자살 위험군에 속한 노인을 조기 발견해 개입함으로써 치명적 결과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키 위해 △지역 내 적절한 사회적 역할 부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조항 엄격 적용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종합적 노인자살예방시스템 확립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활성화 등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조 교수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노인우울’에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며 “정신보건센터 · 자살예방센터 · 생명의 전화 등 분산된 우울상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구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노인 보건 · 복지 시스템’의 강화 및 완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태대사 주석처에 세계평화비 ‘우뚝’

천태종, 中옥천사 · 정거사에 각각 제막

지난 1995년 중국 절강성 국청사에 한중조사기념당을 건립한 뒤 꾸준히 중국 불교계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천태종이 천태지의대사(538~597) 주석처에 세계평화비를 제막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18일과 20일 각각 중국 호북성 당양시 옥천사와 하남성 광산현 정거사에서 각각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행사는 2013년부터 천태종과 중국 불교계가 오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평화비에는 천태종 교의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평화비는 구용첩과 비석, 용두거북, 받침으로 제작됐으며 높이는 5m를 넘는다.

비문은 천태종에서 직접 준비했다. 비문에는 ‘동토가문(東土迦文, 동쪽의 석가모니)’이라 불렸던 천태대사의 원력을 찬탄하면서 “천태의 깃발아래 모인 법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두 그 옛적 영산회상의 대중들이라네. 깊은 인연을 기뻐하며 한국 천태종 중창 반세기를 맞으며, 일승묘법의 진리 온 누리에 퍼져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이 실현돼 사바적광정토가 구현될 것을 발원하며 이 비를 세운다”고 새겼다.

각 행사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1500년 천태불교의 역사를 찬탄하고, 한량없는 천태대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기념사에서 “천태대사의 대발심 원력수행과 광활했던 가르침의 맥박이 흐르는 곳에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비를 세우게 됐다”며 “한국 천태종은 천태대사의 유덕이 남아있는 곳마다 덕화를 기리는 비를 세움으로써 동아시아 천태불교의 우의를 다지고, 중생제도의 길을 넓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은 5월 18일과 20일 각각 중국 옥천사와 정거사에서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옥천사 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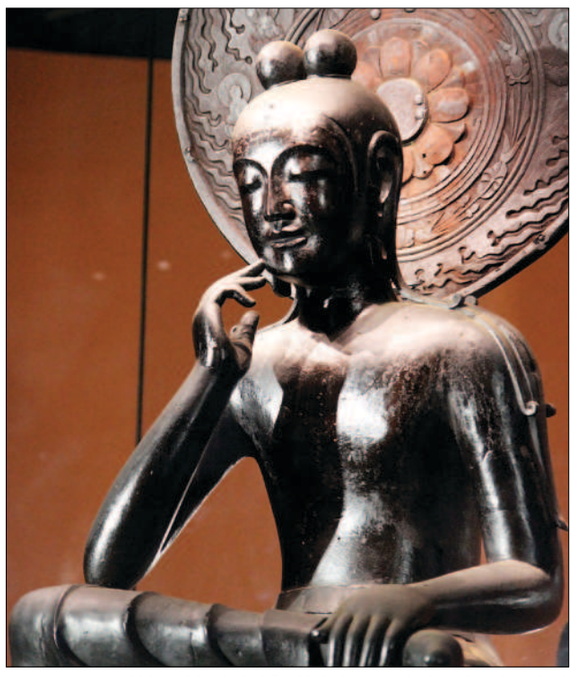
호북성불교협회부회장 과성 스님과 여조민 당양종교국장, 정거사 방장 청원스님 등 중국불교계 대표자들은 한중불교의 불법우의를 바탕으로 활발히 교류할 것을 서원했다. 이외에도 무한대학철학학원 중국불교문화예술연구센터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측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천태종은 앞으로 천태성지의 의미를 재조명해 다양한 불사를 추진하는 한편, 인적교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중국 옥천사는 천태대사가 천태종 핵심 가르침인 천태삼대부 가운데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을 설한 곳이며, 정거사는 스승 혜사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이룬 천태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천태대사는 천태종을 창종하며 종조로 용수보살, 제1조 북제 혜문, 제2조로 혜사선사를 삼고 자신은 제3조가 됐다.

윤호섭 기자





한 자리에서 만난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사진 왼쪽)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한국과 일본의 반가사유상 한자리에서 만난 역사적인 기념전시지만, 일본 불교계만 불교 의식을 허용해 빈축을 하고 있다.

한 · 일 반가사유상 최초로 한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 6월 12일까지 기획전시

일본 불교계만 의식 허용 ‘논란’
관장 사과… 조계종 예의 주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반가사유상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특별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오는 6월 12일까지 3주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한 자리에서 만난다.

한국의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은 6세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일본의 국보 주구사 반가사유상은 7세기 아스카(飛鳥)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적인 기획전시회는 개막식에서 일본 불교계의 불교 의식과 헌다 · 헌화 등을 허용해 한국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접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관장은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박물관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관련 강연 기사 8면〉

재가공부 위한 근현대불교 강좌 개설

불교인재원, 총 15회 걸쳐

재가공부 열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600년 불교 역사를 톺아보는 연속강좌를 열고 있는 불교인재원이 4차 강좌를 마련했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5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국 근현대불교’를 주제로 총 15회에 걸쳐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 선운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한국불교 선맥의 핵심인 경허와 만공선사를 시작으로 용성 · 만해 · 이종욱 · 한암 · 탄허 등 한국불교계 획을 그은 큰스님들을 다룬다. 본 강좌는 14회 성철 · 자운 스님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되며, 15회는 특강 ‘한국불교와 통일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10만원.

엄상호 이사장은 “연속강좌를 3차로 마치려 했지만 근현대불교에 대한 강좌 요청이 있어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가공부 열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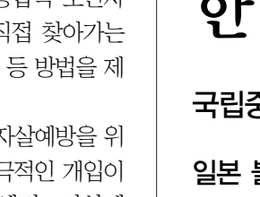
한편 불교인재원은 이외에도 생활참선 입문과정 제16기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개설했다. 화두참선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강좌는 5월 27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증명법사로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강사로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여한다. 참가비 12만원, 선착순 30명이다. 만 30세 이하 청년은 무료. 1661-110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강 사
5.30	근대 한국 선맥의 핵심 경허와 만공	고영섭 동국대 교수
6.13	항일민족운동과 불교현대화의 주역 백용성	김광식 동국대 교수
6.20	항일민족운동과 대시인 만해 스님과 선학원	〃
6.27	한국의 부루나 존자 동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7.4	일제강점기 조계종의 산파, 조계사의 창건주 지암 이종욱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7.11	오대산을 지켜온 한암과 탄허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7.18	통도사 영축산 호랑이 성해남거 스님과 그의 제자들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7.25	한국불교의 대강백 한영정호 스님과 청담 스님	고영섭 동국대 교수
8.1	고불총림의 법주 만암과 서옹 종정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8.8	불교 최초 근대학교의 설립자, 봉선사의 중창주 월초, 운허, 태허	신규탁 연세대 교수
8.22	송광사를 중창한 효봉과 구산	보경 스님(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8.29	법주사와 금오태전 스님	김경집 진각대 교수
9.5	법보선원의 창건주 전강 스님과 선풍진작	〃
9.12	봉암사 결사와 해인총림의 주역 성철, 자운 스님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9.19	한국불교와 통일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강연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제1차 평온 공개강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하다

암(癌)은 깨달음과 무슨 관계인가?

• 제1차 공개강좌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0명 제한, 참가비 무료
(예약 접수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약 신 청 및 문 의 : 1899-9532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일 주 문



디디고 템플스테이

월우 전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6월 8~9일 前 중앙승가대학원 원장 종석 스님 초청 '디디고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사찰음식강좌 개강

진화 순천 송광사 주지 스님은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송광사 사찰음식 제철생활요리강좌를 진행한다.



33차 108성지순례

효광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6월 12일 서산 부석사 및 개심사에서 제33차 108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약수사 주지에 임명

화범 스님은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직할교구 약수사 주지에 임명됐다.



성남 탄천 생태환경 활동

가섭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5월 21일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을 꾸리고, 성남시 탄천 생태환경 활동에 나섰다.



불교호스피스협, 자원봉사자 특강

5월 20일, 능인 스님 재능기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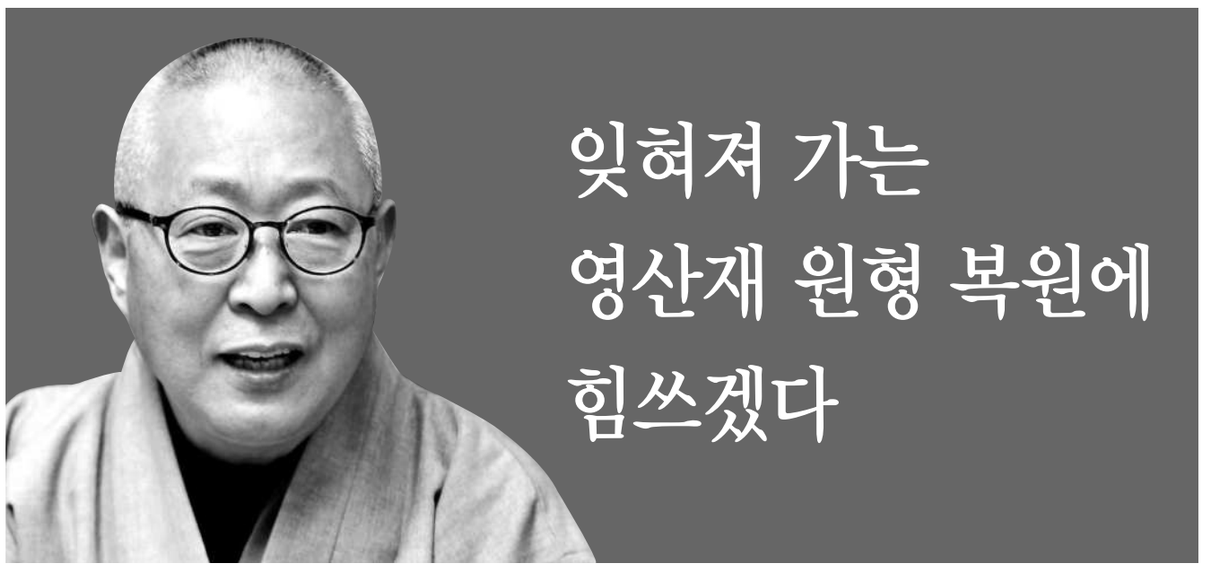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능행)는 5월 20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에서 서울지역 협회원과 호스피스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영적돌봄과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협회 영적돌봄가인 능인 스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능인 스님은 직접 겪은 사례와 더불어 환자의 영적돌봄 사례 등을 발표하고, 호스피스 현장서 활동하는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소진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돌봄가들을 독려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오는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소진 예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잊혀져 가는 영산재 원형 복원에 힘쓰겠다

Interview

영산재 및 제1회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여는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

6월 6~7일 태고종 신촌 봉원사서 이틀간 열려

첫째날, 오전 10시부터 9시간 동안 영산재 진수 선사

둘째날, 저녁 6시부터 범패, 판소리, 국악 등 무대에

"불교 행사 넘어 전통 무형문화유산 축제로 거듭날터"

"영산재는 생사를 떠나 부처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서 벗어나는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는 의식인데 옛날에는 '3일영산재'라 해서 3일 동안 영산재를 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시작해 다음날 하루 종일, 그리고 마지막 3일 아침에 끝나는 형식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원형을 많이 잃었습니다. 내년부터 3일 영산재를 시행하면서 점점 원형을 복구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사용되는 집기들도 함께 복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산재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코자 연등도 달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점점 잊혀져 가는 영산재의 원형 복원에 힘쓰겠습니다."

6월 6~7일 서울 신촌 봉원사서 '남북통일 기원및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를 펼치는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회장 선암 스님(봉원사 주지 · 사진)은 행사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중생구제의 큰 뜻을 널리 전하는 행사다. 지난해까지는 현충일 당일만 열었는데 올해는 하루 더 연장했다. 이유가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를 기획했다. "솔직히 요즘 사람들은 영산재만 하면 찾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각을 바꿔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악, 가곡, 영산재 등만으로는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풀이춤 전문가인 이애주 서울대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죠. 우리나라 3대 음악인 범패소리, 판소리, 가곡 등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날 영산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30분 정도에 끝날 계획이고, 인류무형문화재 축제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첫날인 6일에는 영산재의 진수를, 이튿날인 7일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축제'가 이어진다. 이 축제에는 남상일 명창을 비롯해 대금산조 이수자 권용미, 판소리 고법이수자 김웅식, 퓨전국악팀, 장구춤 김승애,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인간문화재 김구해 스님과 전수교육조교 일운스님, 기봉 · 동희 · 경암 스님, 이수자 · 전수생들이 총출동한다.

"무형문화재가 점점 쇠퇴하고, 관련 행사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부흥을 위해,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은 130여개 정도 있지요. 그중 공연예술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3대 성악이라는 범패, 판소리, 가곡이 대표적이지요. 영산재가 음악과 어떻게 어울릴지 고민한 끝에, 이번주 무대를 범패, 가곡, 판소리 공연으로 꾸몄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어울리는 퓨전국악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영산재를 문화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행사로만 보는 시각이 많아 이를 탈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중입니다. 앞으로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마련할 것입니다."

영산재 원형 복원에 대해 선암 스님은 말을 이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하루에 공연하는 영산재가 등록됐습니다. 제가 배운 4~50년 전 은사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짓소리에도 72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현재 구해 스님이 보유한 짓소리 가 14가지 정도 되니까 그동안 많이 소실된 셈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복원이 절실합니다."

한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을 설파하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불교 음악인 범패에 바라춤 · 나비춤 · 법고춤 등 무용적 요소와 괘불, 감로탱화 등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 성격을 지닌다. 197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TV-전국비구니회 업무협약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5월 25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비구니승단 위상제고와 전국비구니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및 활동성과를 알리고, BTN 방송포교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단과 구본일 BTN 대표이사 및 국장단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에 6억원 쾌척

만오 스님, 선센터건립기금 전달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5월 23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백주년기념관에서 교내 선센터건립기금 6억 원을 전달했다.

만오 스님은 201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구니 학인스님들의 수행관인 사라림 건립을 후원하며 동국대와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 관음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2억 원을 기탁, 매학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번에 기탁한 기금은 도원사 대웅전 불사를 위해 평생 저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오 스님은 "불교종립학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불교 세계화를 위해 선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내었다"며 "좋은 뜻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스님은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몸소 보살행을 실천해 오셨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선센터가 잘 지어지면 신도들과 함께 구경이나 가자고 하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거액을 기부하셨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로 함께 넘은 '장애'

보리수아래, 학인스님들과 낙산사서 템플스테이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중앙승가대 동아리 자비나눔(회장 도진)과 함께 5월 21~22일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와 신흥사 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불자들과 학인스님들이 1대1 또는 1대2로 짝을 맺어 진행됐다. 특히 장애불자와 부모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학인스님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포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템플스테이는 예불과 단주 만들기, 위빠사나, 대화의 시간, 동해바다 관광 등으로 진행됐다.

최명숙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학인스님들의 도움으로 여법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장애불자들이 부처님법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신심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많은 스님들이 장애인포교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당장 100일 출가해보고 맞으면 3년, 10년 해보라. 20대 모두 단기출가하길"



법상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진로 고민? 저도 있어요. 그래도 출가는 최선의 선택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주제로 출가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고우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법상 스님,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참여했다. 콘서트의 사회는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이 맡았다.



고우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 졸업

"청암사 사중은 와이파이존 20살 출가자에겐 성년식도 고민대신 순간순간 최선을"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

"단기출가, 내 인생 전환점 힌트 있으면 쉽게 문제풀듯 출가, 인생 문제의 해답지"

'출가의 길' 참 좋은데, 망설임 없이 걸어보세요

조계종 교육원, 5월 26일 첫 출가콘서트 개최

Q. 출가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A. 출가수행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유를 의미하죠. 결국 출가는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일단 출가를 해보세요.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법륜 스님〉

시종일관 유쾌했다. 진지한 질문과 답이 오가기도 했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에는 이야기 손님들이 위트 있는 토크로 응수했다. 출가의 삶에 대한 관심과 현실 생활 고민이 오고 가며 이야기는 더욱 웅숭깊어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주제로 출가 콘서트를 개최했다. 출가 이미지 개선과 의식 고취를 위해 출가 콘서트를 연 것은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출가콘서트에는 20~30대 청년불자 등 200여 명이 자리했으며, 이야기 손님으로는 국민 멘토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을 갓 졸업한 고우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법상 스님,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참여했다. 콘서트의 사회는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현실 고민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준비해 패널들에게 질의했고, 패널들은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가며 알기 쉽게 이야기했다.

먼저 방청객들은 현실 생활에서의 고민들을 쏟아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 같은 20대 출가자 스님들의 대답은 청년 불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고우 스님은 "불안할 때도 많고, 걱정도 많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상 스님은 "학교 졸업도 해야 하고, 군입대 걱정도 해야 한다. 그래도 일반 대학생으로 살았으면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도치 않게 출가를 했지만 하고 나니 삶이 변화했다. 출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 고민 상담 후에는 본격적으로 출가에 대한 호기심어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됐다. '출가를 하지 않아도 부처님 제자로 살 수 있는 데 굳이 출가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륜 스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

법륜 스님은 "출가하지 않고도 재가 수행자로서 살 수 있도록 부처님은 길을 열어 두었다"면서 "은행원이 은행 돈을 자기 돈으로 보면 안된다. 이처럼 재가 수행자가 되려면 내 여자, 자녀, 돈에 대한 관념과 집착이 없어야 한다. 아니면 재가 수행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가 수행자가 될 수 없다면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이게 출가 수행자"라면서 "나는 해보니까 잘 안됐다. 그래서 일찍이 출가 수행자가 된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자신의 출가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정토회 100일 출가 경험자인 김민지 대표는 단기출가에 대한 예찬론을 펼쳤다.

김 대표는 "20대 후반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고, 일순간 가장이 됐다. 자살 생각까지 했다. 결국 도반에게 상담하고 단기출가를 하게 됐다"면서 "단기출가는 엄청 힘들었다. 하루종일 몸을 움직였고, '일상이 수행'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은 의미를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법상 스님 등 서울 동국대 재학중인 학인 스님들이 불교 교리를 내용으로 한 힙합공연을 펼치고 있다.

청년불자 등 200여 명 참석
인생 고민부터 출가 의미까지
청춘들의 호기심어린 질문들
이야기 손님들 '솔직담백' 토크
"출가 거리감 좁혀… 와닿았다"
콘서트 참석자 호응 · 만족도 높아

이어 "단기출가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출가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면서 "수학문제를 풀 때 일말의 단초가 있으면 잘 풀린다. 단기출가는 인생의 고민을 풀기 위해 '살짝 엿본 해답지'"라고 강조했다.

출가를 주변에 권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대표는 "100% 권한다"고 답했다. 아예 자신의 회사에서는 이사 등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출가는 필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구족계를 받은 고우 스님은 변화하는 승가교육 환경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우 스님은 "출가하면 당연히 휴대폰과 컴퓨터는 사용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듯이 승가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청암사 승가대학은 사중 전체가 와이파이존이다. 태블릿 PC로 과제를 제출하고, 동영상 법문과 강좌를 듣는다. 20살 출가자에게는 성년식도 하고, 명절에는 사중 내에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한국불교 세계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8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환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7번까지 환속이 가능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환속을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맞지 않다"면서 "당장 100일 출가를 해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3년, 10년 하면 된다. 대한민국 20대가 모두 단기출가를 경험한다면 한국사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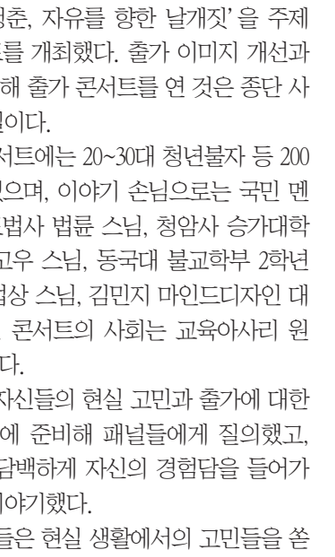
실제 출가를 고민한 학생이 현장 질문한 출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일단 경험해볼 것을 일권했다. 원영 스님은 "출가자 마다 사연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다"면서 "혹시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길이 고민된다면 그냥 가보라. 출가에 대해 고민한다면 지금 당장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콘서트에서는 토크 중간마다 학인 스님의 창작 염불과 힙합 공연 등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솔직담백'한 토크와 학인 스님들의 문화공연까지 만난 청년불자들은 출가에 대한 거리감을 좁혔다고 입을 모았다.

어머니와 함께 출가콘서트를 찾은 전한열(28, 서울) 씨는 "평소 출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면서 "출가 여부를 떠나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 삶에 대해 숙고할 부분도 찾았다"고 밝혔다.

안윤선(24, 대전)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불교를 알게 됐다. 초심자다보니 출가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거리감을 느껴왔다"면서 "출가에 대해 포기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출가콘서트에 출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나 역시 참여하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은 『대승기신론』의
가장 탁월한 주석서인 원효대사의 『소별기』!



대승기신론 소·별기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를 통해
누구나 혼자서 책을 이해하고
대승의 정수와 원효대사의 사상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원효 저 | 최세창 역주 | 신국판 양장 | 672쪽 | 값 30,000원

불교 수행법 중 가장 쉽고 성취가 빠른 정토 및 염불 수행!

정토삼부경 역해

서주 태원 번역 및 해설 | 신국판 양장 | 632쪽 | 값 30,000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해설과 주해를 통해 알기 쉽게 만난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염불수행은 누구나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무생법인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바라본 선사들의 깨달음!



자아와 깨달음, 심리학으로 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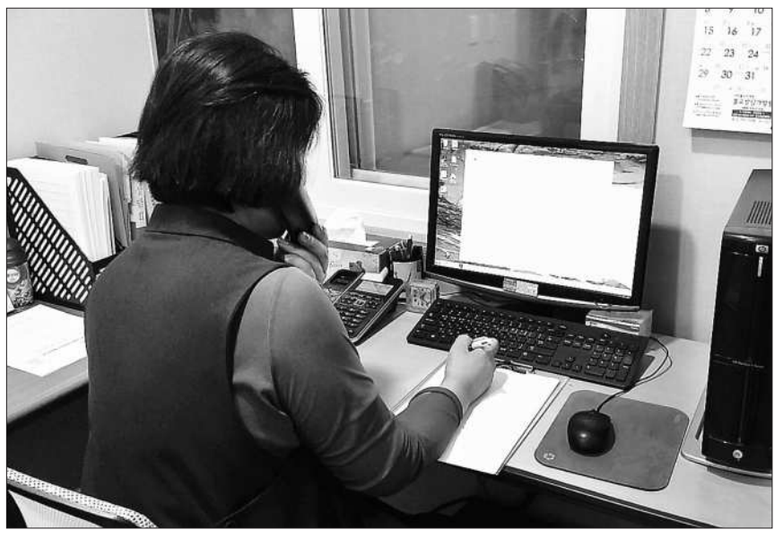
최명희 지음 | 신국판 | 무선 | 380쪽 | 값 17,000원

선사들이 어떻게 자아와 직면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일화와 어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조사선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최초의 책.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26살 '자비의전화' 재도약 꿈꾼다

전화상담부스 2곳서 3곳으로 확대 · 개별상담실 갖춰
성상담 전문과정 등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계획


자비의전화 상담원이 전화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담하고 있다.

심리적 불안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민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불교계 대표 상담창구 '사단법인 자비의전화'가 올해 재도약을 꿈꾼다.

자비의전화(대표 도성)는 얼마 전 철거된 서울 조계사 신도회관에서 안암동 개운사로 이전, 새롭게 마련한 교육관에서 상담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자비의전화는 기존 사무실보다 넓은 교육관으로 이전하면서 전화상담 부스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상담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아울러 내방객을 위한 면접상담실도 새로 갖췄다. 과거에는 별도의 상담실이 없어 회의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담자와 상담을 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변화 덕분에 상담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대표 도성 스님은 "자비의전화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을 잘해준다고 소문이 나 타종교인들이 상담요청 할 정도로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방음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동문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상담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비의전화는 특히 교육시설이 없어 매번 장소를 대여하고,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성(性)' 관련 상담요청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성 상담 전문과정'을 개설해 상담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교상담대학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현장사례에 초점을 맞춘 교육도 마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오는 7월에는 청소년 사이버 성상담 '아하! 섹스'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외에도 우울증이 심한 내담자를 위한 애도상담과 자살위기상담도 준비 중이다.

별도 교육관 마련해 이전
상담원들 만족도 높아져
연간 5만건 상담요청 맞춰
전문적 정서지원 나선다

조보람 자비의전화 상담 · 기획팀장은 "최근에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이 많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상담해줄 수 있도록 상담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내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얘기 못하는 고민을 익명성의 힘을 빌려 우리에게 털어놓는다. 따라서 종교를 넘어 문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정서지원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비의전화는 상담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센터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무료 정신건강 강좌를 비롯해 기관이 대학 인근에 위치한 만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도성 스님은 "자비의전화는 심리적 문제로 불편을 겪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그간의 노하우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재도약에 나서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의 모태인 자비의전화는 1990년 월주 스님, 일면 스님, 지흥 스님 등 상담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대덕스님들이 참여해 문을 열었다. 전화상담은 40여 명의 상담전문가들이 맡아 진행하며, 사이버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 근로자상담 파견과 중앙자살예방센터 공모사업, 서울시살사프로젝트 공모사업 자살예방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서지원을 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山寺서 대학생불자 포교역량 다져

대불련, 5월 21~22일 마곡사서 '대불련 리더 워크숍' 개최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 스님과 대학생불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캠퍼스포교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가들이 산사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포교역량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태우, 이하 대불련)는 5월 21~22일 공주 마곡사에서 'KBUF 대불련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불련 각 지부장 · 임원 및 간사,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 입재식 이후 참가자들은 '상반기 포교 활동 평가' '조직운영시스템 개편 논의' '여름캠프 추진계획' 등 브리핑과 토론을 통해 대불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저녁공양 이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무각 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무각 스님은 대학생불자들에게 "욕망의 가치를 기준으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불법을 믿고 보살행을 하는 모습에서 본래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다"며 "대학생 청년들이 취직과 생활 걱정을 내려놓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후 청년들의 질문에 "포교원은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대학생 포교를 위해 대불련과 머리를 맞대 활성화를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튿날 백범명상길을 걸으며 오는 8월 개최하는 대학생 캠프 일정을 점검하고, 신심을 다졌다.

박태우 대불련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올해 상반기 각 대학에서 진행된 포교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유익한 자리였다"면서 "특히 포교부장스님을 모시고 진행한 법문과 간담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불련은 8월 4~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7회 영 부디스트 캠프(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대학생불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캠프 프로그램으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의 '출가, 그 아름다운 삶' 등 다양한 강의와 소통시간, 명상 순례 등이 마련된다. 참가비는 6만원이며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732-0239

윤호섭 기자

"나무 냄새가 모두 달라 신기해요!"

전등사 · 불교환경연대, 하루 숲 체험학습


강화 난정초교 학생들이 하루 숲 체험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경쟁사회에서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사찰에 마련됐다.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는 5월 24일부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사찰림을 이용한 '하루 숲 체험학습'을 시작했다.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 사찰림을 통해 아이들이 숲의 가치를 배우고, 자연 친화적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체험에는 강화 난정초등학교 학생 29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태학습 · 숲 명상 · 자연놀이 · 자연미술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고, 무공해 식재료로 마련한 음식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다.

특히 아이들은 생강나무와 초피나무, 누리장나무 등의 냄새를 맡아보고 "나무에서 여러 냄새가 나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농촌 학생들도 사는 곳만 농촌이지 생활은 도시 학생들과 다를 게 없다. 방과 후 자연에서 노는 것보다는 학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다"면서 "숲이 잘 보존된 전등사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등사 '하루 숲 체험학습'에는 현재 길상초등학교 전 학년과 화동초등학교 · 서운초등학교 등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약된 상태다. (032)937-0125

윤호섭 기자

제3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6월 18일 개최

경남 하동 청소년수련원 일원서

(사)대한불교청년회는 오는 6월 18~19일 경남 하동 청소년수련원서 제3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어둠 속에서 핀 시대의 등불, 우리는 청년 만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회와 교류를 통해 불교청년 문화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18일 오후 7시 본식인 1부 '얼씨구 좋다'로 문을 연다. 축하공연에 이어 △단체 연대사 △초청공연 △불청대회 시상식 △청년만해 영상 △청년불자 '청년만해 선언' 등이 진행된다. 이후 2부 '절씨구 좋다'에서 전국불청 대등놀이와 3부 '지화자 좋다'에서 전체 뒤풀이가 펼쳐진다.

19일에는 일제강점기 만해 스님이 주석했던 경남 유형문화재 제83호 다솔사 대양루와 파독 광부 및 간호사의 발자취가 담긴 독일 · 미국마을, 전국 3대 관음도량인 남해 보리암 등을 탐방한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어린이 · 청소년 놀이방과 포토존, 노숙인을 위한 목욕용품 모집(연꽃생협) 등이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우주 공부하러 사찰로 떠나요"

불교스카우트, 6월 18~19일 항공우주과학 캠프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6월 18~19일 용인 법륜사에서 항공우주과학 캠프 '우주 탐험을 꿈꾸는 불교스카우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첫날 △항공우주과학의 미래 △비행원리의 이해 △비행기 만들기 △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실습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입 스카우트를 비롯한 연합 선서식과 캠프파이어, 장기자랑도 펼쳐진다. 이튿날에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와 자연탐험 하이킹 등이 예정돼 있다.

참가희망자는 6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bskyeo@hanmail.net) 또는 팩스(02-722-9034)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 단체 30명 이상 참가 사찰에는 수송버스가 지원되며, 의복주머니와 위생주머니 등은 개인 지참이다.

연맹 측은 "청소년들의 재능을 계발하고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며 "많은 단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사찰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천하대도 생사해탈 운명과 생명의 원천 생노 병사 저승시체 면허장 반납하고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올리는 지부추명 청방부호로 영과 혼이 하나로 영생도통 불생불멸법

지구촌 삼라만상 생명은 무량광자로 몸받아 이생에 올때 가지고 온 저승시체 면허장 받아온 문명을 반납하는 천하대도법 생며의 원천은 영과 혼이 아니로 되는 천하대도법 생명의 원천이 영과 혼이 하나로 성불도통하여 도인 신선 선녀되는 불생 불멸의 영원한 장수영생 불국정토 극락왕생 하는 것이다. 이 생애 올 때 가지고온 죽음을 면하는 법은 오직 무량광자의 빛에서 와 빛으로 가는 천해대도법 지부추명 천방부호 이 생에 명부와 귀부에 명을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죽음에 벽을 넘어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가는 법은 오직 잠자고 있는 정신의 세계 루이체 두뇌늘 마인드컨트롤 옴마로 움직여서 생노병사를 초월 도인, 신선, 선녀, 천재, 수재 제왕이 되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으로 불국정토 영원한 세상 극락천당으로 말법과 병겁에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천하대도법으로 만법을 다스리는 직업에 구애 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수 있는 인류스승 되는 대법회 사부대중 도인 신선 선녀 제왕 도인 지망생 동참하소서

心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6년 6월 6일 월요일
■ 회 향 일 : 2016년 6월 7일 화요일 (무박 2일)
■ 동 참 비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복장 및 세면도구
■ 상담전화 : 032)502-6625,6619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34 (부평5동 204-4 3층 용천사)

천지공사진광미륵달마묘법 천궁 도통회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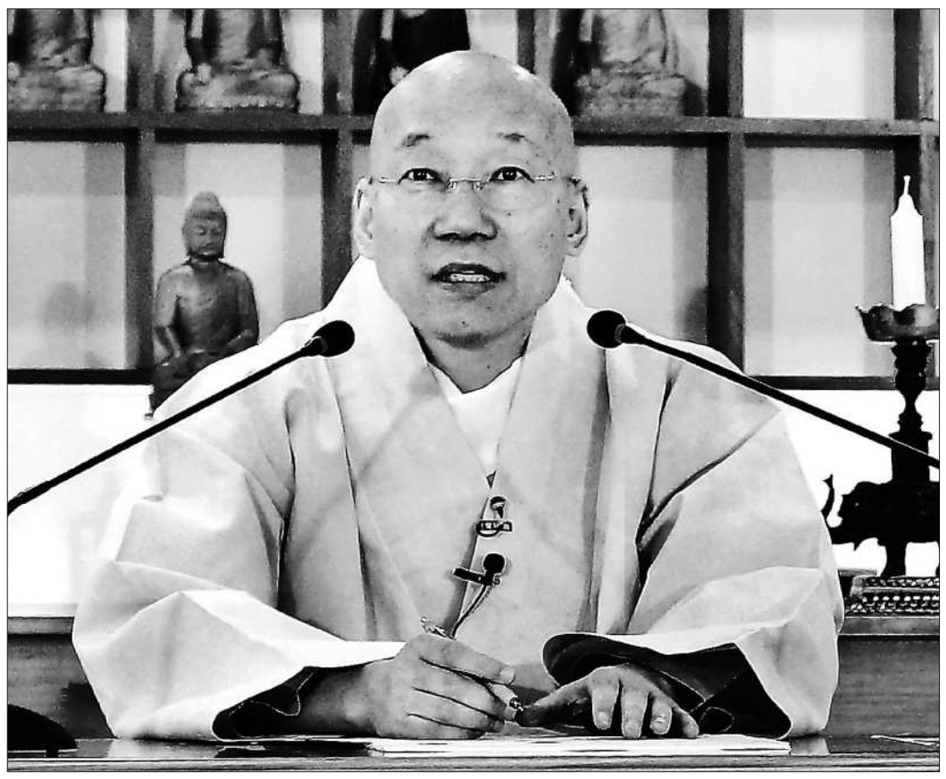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깨어있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라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소크라테스와 간화선'

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문명은 인간의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만큼 물음을 갖고 질문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행위 중 하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신탁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질문했고, 간화선을 창안한 대혜종고 스님은 깨어있기 위한 질문을 하라고 당부했다. 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은 5월 23일 서울 참불선원에서 열린 인문학 대강좌에서 '소크라테스와 간화선'을 주제로 강연했다. 스님은 "내 안의 부처를 부처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흔들어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인경 스님은… 조계산 송광사에서 출가해 강원을 졸업했다. 동국대대학원 선학과 석사, 동대학 '몽산덕이 선사상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인본주의와 간화선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또 철학적 주제를 다루기로 했으니 서양철학의 출발점이고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간화선을 창안한 송대 대혜종고 스님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불행

인본주의는 인간중심적 사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본주의를 중시하게 된 걸까요?

과거 서양 사람들은 절대적 신이 존재하고, 인간은 이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법률, 도덕,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큰 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불신자의 명목으로 기소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신봉하지 않고 아테네 청년들을 혼란스럽게 한 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죠.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신 중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폐해와 핍박이 사람들을 옥죄었습니다. 그러자 인간 중심 사회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 신 중심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외롭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려 신이란 개념을 창조했다'는 인본주의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대세가 되자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단죄할 만한 근거는 희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소외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사회구조가 자동화 단계로 진입했을 때만해도 사람들은 기계화에 격렬히 저항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전화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나요? 세탁기 없는 삶은 어떤가요? 꼭 있어야겠죠. 이렇듯 기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양면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봇지능이 탄생하면서 인간 경시, 나태함 등 역기능도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말미암아 '인간 경시 풍토'에 대한 해법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는 생태계 보호를 견지하는 자세와도 관련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란 뜻이 꼭 인간만을 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본질은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에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대승불교는 부처와 중생이 혼재하는 현실적 모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살'이라고 이름 붙이죠.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삿트바(bodhisattva)'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기서 '보디'는 깨닫다, 정신차리다, 자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삿트바'는 존재하다, 생명을 가졌다는 뜻으로 보통 '유정(有情)'이라고 합니다. 정을 가졌다는 뜻이죠. 인간이란 정을 가지고 어울려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시죠? 인간적 삶이란 소통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중생이면서 부처인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보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정을 중시해서인지 부처님과의 균형이 깨진 삶을 살아가고 있더군요. 자기 안에 부처와 빛나는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쁜 탓에 자기 삶을 음미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현대인들은 과거 50명의 노예를 거느리던 삶과 동일한 바쁘기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네요. 왜 우리는 더 바빠지고, 더 쫓기며 살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 현대인들의 불행은 '질문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바쁜 삶에 쫓겨 질문 던지는 것을 잊고 대신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름 속에 섞여 왜인지도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질문을 던져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두려워하는지, 이 집착과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노트에 질문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한 분이 발표해보시겠어요?

수강생: 나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질문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전후사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부정적 태도가 바뀌면서, 중생의 마음을 돌려 부처가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암기는 '내 것' 아니다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살아있는 삶, 즉 활구(活句)가 되는 것이고 질문이 없으면 죽은 삶, 사구(死句)인 겁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간화선의 정신입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화두는 질문하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바쁜 탓에 묻는 과정 생략돼**
> **삶 음미하는 기회 사라진 현대**
> **남 아닌 내 질문 계속 던져야**
> **비로소 깨어있는 삶 누린다**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뒤따릅니다. 첫째는 상황이고 그 다음은 상황에 따른 핵심적인 구절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아이하고 다투고 '나는 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엄마로서의 욕심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욕심에 갇혀있었다면 질문하는 순간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에 대한 해답,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간화선에서는 문답이라고 하고, 이걸 정리한 것을 공안(公案)이라고 하죠. 이런 공안이 1700개가 있습니다. 공안에서 '공'은 공공이라는 뜻이고, '안'은 책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할 때 책상 앞에서 재판관이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까' 고민하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겠죠? 아까 발표하셨던 분 한번 대답해보시겠어요?

수강생: 왜 욕심을 못 내려놓는지 부처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는데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픈 마음과 새로운 세계로 가야하는 두려움이 부딪혀서요.

옛 습관에 머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 밑바닥의 두려움이 올라온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간화선을 창안한 분은 대혜종고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전쟁이 많았던 시기를 살았는데요. 항상 공포와 불안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략하고, 송은 남쪽으로 밀려 남송이 됐습니다. 이후 남송에서 논쟁이 일어났죠. 금나라하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친할 것인지 말입니다. 즉 새로운 도전과 현실 안주의 갈등입니다.

대혜종고 스님은 싸워야 한다는 진보파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수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스님은 결국 귀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양살이를 하며 편지글을 썼습니다.

스님이 편지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몽롱하게 잠들어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명상을 한다고 하면서 귀신굴에 들어간 것처럼 잠들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자들이 철저하고 절박하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나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화장실에 가서도, 친구를 만나서도 계속 놓지 않고 던지다보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응답, 즉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간화선의 특징입니다.

스님은 질문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지만 수행자들이 잠들어있다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것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판인쇄술이 개발되고, 많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지식인들은 책을 통해 지식을 암기했습니다. 선문답이나 법문 내용이 담긴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고 기존 정보에 의지해 알음알음 이해한 겁니다. 마치 과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외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도 시험 치듯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왜 못 버릴까'라는 질문에 시험문제처럼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고 발견하는 것이지 문제처럼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중독된 사람들은 모든 게 시험문제처럼 해답이 나와야만 직성이 풀려요. 요즘은 그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 해줍니다. 편리하겠죠. 근데 편리한 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갖고 처절하게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내 것이 돼요. 〈무문관〉을 지은 무문 스님은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는 360개의 골절과 8만4000개의 땀구멍을 가지고 온몸을 다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해답을 찾게 돼요. 남의 정보를 통해 얻은 건 현실적으로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혜종고 스님은 죽은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소크라테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델포이의 신탁을 전해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정치인을 만나고, 시인도 만나고, 상공업자들도 만났습니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대화를 하며 질문을 해보니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無知)의 지(知)'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 사람들이 잠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수업을 하며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이 학과에 왔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 왔는지 물어봤죠. 100명을 조사했는데 7~8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가라고 했다" "성적 따라 왔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으며 "사람들은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한 것이고요. 바로 아테네 시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죠.

진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부처를 부처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질문하기죠. 지혜는 자기 삶 속에서 절박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건 질문을 통해서만 얻어져요. 대혜종고 스님이 책으로 외운 지식을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계속 스스로 질문하며 여러분의 삶을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공개강의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①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꼭 필요함)
②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③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④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십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개강】 6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부산 개강】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강의 장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부산역 광장 맞은편 엔제리너스 4층)

백초율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율력학당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6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7월 1일 (금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만해 스님 유훈 기리는 학술·문화 행사 '풍성'

선학원, 6월 학술·문화제 잇달아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는 학술 문화행사가 6월 내내 열린다.

선학원 산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사장·소장 법진)은 6월 8일 오후 2시 삼각산 정법사에서 만해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는 '만해 한용운과 〈불교대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학술제 선학원 고문 인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前 동국대 교수)을 좌장으로, 김경집 교수(진각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1주제는 강연으로 2~3주제는 학술발표와 논평으로 이뤄진다.

1주제는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이 '〈불교대전〉에 나타난 만해사상'을 강연하며, 2~3주제에서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만해 용운선사 〈불교대전〉의 교의적 성격'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대전〉의 자료적 성격과 간행의의-〈불교성전〉과의 관계성 검토를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와 제점숙 동서대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선학원은 6월 1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만해예술제를, 6월 29일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는 만해추모제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는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국불교사硏, 6월 4일 세미나

한국불교가 일본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6월 4일 오후 1시부터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가 일본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춘호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고구려 혜자가 일본 법화학에 미친 영향'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고구려 혜관이 일본 삼론학에 미친 영향'을, 중앙승가대 수행전담 조교수 오인 스님이 '백제 행기가 일본 정토학에 미친 영향'을, 김천학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백제 도장이 일본 성실학에 미친 영향'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정선여 충남대 국사학과 외래교수, 조윤경 서강대 철학과 외래교수, 이홍구 숙명여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백제가 日에 전한 것은 불교만이 아닙니다"

오하시 와세다大 명예교수 반가사유상展 기념 초청강연

"일본도 남북조시대의 중국과 계속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보다 불교는 늦게 받아들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제인은 머리가 좋았지만, 일본인은 머리가 나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일본은 한역(漢譯) 경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안됐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당시 백제와 일본은 고등학생과 유치원생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일본 불교미술사 석학인 오하시 가즈아키(大橋一章, 사진)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5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제 조불공(造佛工)의 도일(渡日)과 일본불교 미술의 성립'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회를 통해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것은 단순히 불교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하시 교수는 가장 먼저 불교의 전래 과정을 살폈다. 오하시 교수에 따르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문자를 통해 중국에 전해졌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200년은 불교가 성행하지 못했지만, 경전의 번역이 축적·유통되면서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불교는 융성하게 됐다는 게 오하시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북위의 수도 낙양에는 다수의 불교 사원이 존재했으며, 남조에서도 경쟁적으로 불교 사원이 만들어졌다.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불교 사상과 문화는 만개한 것이다.

오하시 교수는 "당시 선진국은 중국이었고,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했다"면서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한역 경전을 이해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자 문명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고구려와 백제는 사신들의 교류로 한자 문명을 빠르게 도입하고 적응해 갔고, 고구려는 372년, 백제는 384년에 불교가 전래된다. 하지만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백제에 의해 538년에 이르러서다. 불교 전래에 있어서 150여 년의 차이는 한자 문명의 이해도가 결정했다는 게 오하시 교수의 주장이다.



불교, 당시 선진 문명 총아
이해 위해서는 한자가 필수
백제, 日에 불교 전래 위해
사신 통해 한자 교육·전수

日 불교 미술도 같은 양상
백제 佛母·木장인들 넘어가
견습공 두고 10년 간 교육
왕흥사, 飛鳥寺 건립과 관계

그러면서 오하시 교수는 "일본에 불교를 전한 것은 백제"라면서 "백제는 불교를 전하기에 앞서 한자 문명을 전했다"고 말했다.

실제, 백제의 오경박사(五經博士, 경서에 능통한 학자)를 513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일본으로 보내 한자를 교육시켰다. 그렇게 25년이 지난 538년이 돼서야 백제는 불교를 일본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오하시 교수는 "백제는 25년간 8차례 오경박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한문 경전에 익숙해졌다고 판단됐을 때 불교를 일본에 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하시 교수는 일본 불교미술의 성립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봤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백제의 왕흥사와 아스카테라(飛鳥寺)의 관계다. 발굴된 왕흥사 사리장엄구에 나타난 글을 살펴보면 왕흥사의 건립시기가 577년으로 명시돼 있다. 백제에서 조불공(造佛工, 불상을 만드는 장인)과 조사공(造寺工, 사찰을 만드는 장인)이 일본으로 간 것도 577년으로, 꼭 10년 뒤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 아스카테라 건립이 발원된다.

오하시 교수는 "백제의 장인들은 금동불의 주조기술과 사찰 건립 기술을 일본에 전했다"며 "장인들은 10~15명의 일본인 견습공을 두고 10여 년간 기술을 전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흥사와 아스카테라는 여러모로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왕흥사 건립 불사의 장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왔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강연은 오는 6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기획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6월 3일에는 강우방 前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초청해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국보 주구사 목조반가사유상'이라는 주제로 2차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학술도서에 불교 학술서 10종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결과 발표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 등
불교 교리·돈황 연구 등 다채



대한민국 학술원의 올해 우수 학술도서 중 불교 관련 학술서 10종. 불교 교리부터 역사, 문학, 돈황 연구까지 다채롭다.

올해 대한민국 학술원(원장 권숙일, 이하 학술원)이 선정하는 우수 학술도서에 불교 관련 학술서 10종이 포함됐다.

학술원은 5월 12일 '2016년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우수 학술도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기초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인문학은 74종, 사회과학 100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7종이 각각 선정됐다. 이중 불서는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오경후 저) △〈불교인식론 연구〉(도사키 히로마사 저, 박인성 역) △〈구사론 계품·근품·피아품〉(이종철 역주) △〈보리수 가지치기:비판불교를 둘러싼 폭풍〉(제이미 허바드 외, 류제동 역) △〈불교 원자설:불교와 현대물리학의 만남〉(윤영호 저) △〈종용록〉(석지현 역) △〈불교와 한글: 글로컬리티의 문화사〉(김기종 저) △〈돈황변문교주1~6〉(전홍철 외 역) △〈나츠메 소세키의 선(禪)과 그림(畵)〉(진명순 저) △〈붓다와 함께 쓰는 시론:근대시론을 넘어서기 위해〉(정효구 저) 등 10종이 이름을 올렸다. 9종은 인문학 분야이며, 한국학 분야에는 1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불교 학술도서의 주제는 불교 교리부터 역사, 돈황 연구, 문학까지 다채롭다. 오경후 동국대 연구교수의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는 선조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교탄압의 군주였던 현종의 불교정책을 통해 불교가 지닌 종교적 가치와 불교계의 기여를 살폈으며, 제이미 허바드의 저서를 류제동이 번역한 〈보리수 가지치기〉는 세계 불교학과 인문학계의 병폐를 고발하고 있다.

전홍철 우석대 교수 등이 번역한 〈돈황변문교주 1~6〉는 중국 불교 문학과 한국 판소리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돈황변문집〉을 세계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전홍철 교수팀(전홍철·정병윤·정광훈)이 한국과 중국 양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 10여 년에 걸친 작업의 결실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 차문화의 경전 〈다신전〉 강좌 열린다

미붓아카데미, 6월 14일부터

지난해 서양 철학과 불교 사상의 조우를 다루는 기획 강좌로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을 이끌었던 미붓아카데미(대표 이학종)가 오는 6월 14일부터 차 인문강의 〈다신전(茶神傳)〉 강좌를 시작한다.

미붓아카데미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강좌는 우리나라의 전통차 분야와 관련된 본격적인 '차 인문학 강좌'이다. 차 인문학의 정전(正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의선사의 〈다신전〉은 차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망라한 최고의 다서(茶書)라고 할 수 있다.

차 인문학 첫 강의인 만큼 강사도 눈길을 끈다. 미붓아카데미 〈다신전〉 강좌에는 차 이론 전문가인 강순형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다신전〉의 강의 시간은 6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까지이며, 강의 장소는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에 위치한 불교평론 세미나실이다.

한편, 미붓아카데미는 앞으로도 〈동다송〉, 〈다경〉 등 다양한 다서 읽기 강좌를 기획할 예정이다. (010)5575-7010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소원을 이루는 기도
(진언 주력 명상 및 광명사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업보(변고)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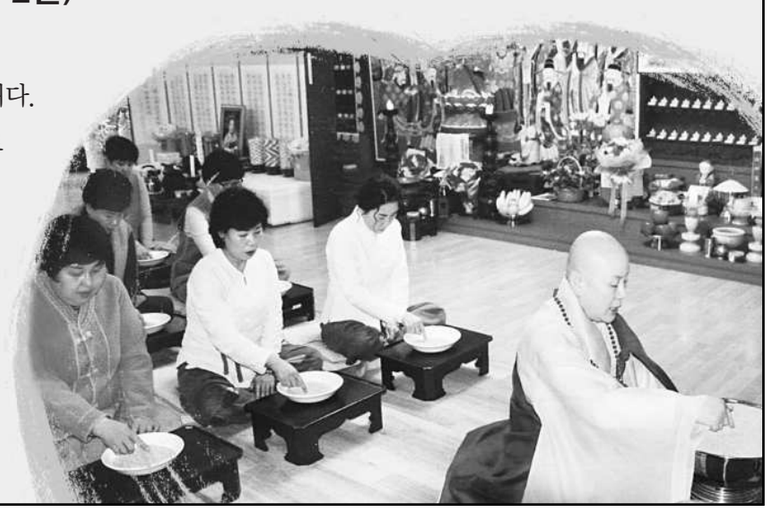
자성을 밝히는 "지광불"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까훔 진언 명상 기도"를 통해서 액운을 피하고, 타고난 나쁜 운명을 극복하는 수련법으로 자신의 삶에 행복과 건강,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지도스님 인해, 덕후 덕비 합장

■ 기도일정 : 매주 주말 (1박 2일)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옴·까·훔' 3자 진언호흡함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뚫립니다.

■ 문 의 : 대광명선원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쉽게 배우는 〈선요〉 재가자에 '인기열풍'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3기 개강

9월 26일까지 매주 月 실시
50여 명 불자 몰려들어
2014년 1기 이후 꾸준한 참여
"쉽고 명확한 설명 이해 쉬워"
후원단체 '열린 원우회' 조직도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가 마련한 경전 강의 '원순 스님이 들려주는 〈선요〉'가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서 문을 열었다. 강의는 5월 23일~9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불교공부,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원장 김윤희)가 마련한 경전 강의 '원순 스님이 들려주는 〈선요〉'가 문을 열었다. 이번 강의는 5월 23일~9월 26일 매주 월요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서 진행된다.

첫 강의가 열린 지난 5월 23일엔 5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원순 스님은 '법정 스님과의 일화', '법에 대해 재가자가 가져야할 자세' 등 꼼꼼하고 폭넓은 설명으로 재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스님은 그동안 번영한 〈금강경〉 〈대승기신론〉 〈증도가〉 등 여러 경전을 부가 설명함으로써 〈선요〉의 이해를 도왔다.

김태우 불자는 "〈선요〉를 들으면서 〈금강경 오가해〉까지 함께 이해된다. 스님께서 항상 강의경전 뿐 아니라 여러 경전들과 비교 · 해석하며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1기 때 배운 〈원각경〉 강의까지 명확하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한 불자들은 꼼꼼한 불교용어 정리로 인해 혼자 복습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희 불자는 "일목요연함이 곧 힘이 된다. 용어들을 정리하며 공부하면, 기억이 저절로 되고 다른 어려운 책을 볼 때도 이해가 쉽다"며 "어렵게만 느꼈던 불교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며 웃어보였다.

이와 관련 원순 스님은 "재가자들이 불교공부가 어렵단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

스님은 "팔만사천 법문이 서로 엮여 이해돼야 한다. 불교가 어렵단 편견을 버려라"며 "부처님께선 여러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셨다. 설명을 잘 듣고 나면 불교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는 2014년 4월 1기 〈원각경〉 강의로 첫 문을 열었다. 그 후 2기 〈대승기신론〉강의와 3기 〈선요〉로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1기 강의부터 참석했다. 또한 새로운 불자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다.

김윤희 원장은 "강의를 들은 불자들은 대부분 다시 찾는다. 또한 불자들 사이에 원순 스님 후원 단체인 '열린 원우회'를 자체적으로 조직 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가 강의 대중화를 꾀하며, 홈페이지(www.open-buddhism.com)를 신설했다. 홈페이지엔 원순 스님 강의 동영상 및 경전 번역서 등 자료가 담겨 있으며, 누구나 듣고 공부 할 수 있다.

한편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교재 편찬 위원을 역임한 스님은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며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원순 역해 금강경오가해설의 〈규봉 스님 금강경〉, 〈함허 스님 금강경〉, 〈육조 스님 금강경〉, 〈야부 스님 금강경〉, 〈종경 스님 금강경〉, 〈부대사 금강경〉, 〈치문〉, 〈돈황 법보단경〉, 〈신심명 · 증도가〉, 〈진심직설〉, 〈마음을 바로 봅시다〉 등 외 다수가 있다.

하성미 기자

불교TV 남성중창단 새 앨범… "음악에 경전 내용 담아"

6월 12일 부터 순회 콘서트
대행 스님 법문 곡으로 수록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이 새 앨범 '연꽃향기 두 번째 이야기-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발매하고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6월 12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공연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 순회공연으로 진행된다.

BTN불교TV 남성중창단(단장 추현철)은 새 앨범 '연꽃향기 두 번째 이야기-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하 연꽃향기)을 발매하고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6월 12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공연을 시작으로 △6월 30일 포항 대잠홀 오후 7시 30분 △7월 19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 △8월 27일 오후 5시 울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다. 순회공연이 부산과 영남지역에서 마련될 계획이며, 울산과 창원은 현재 장소와 시간을 협의 중이다.

앨범 '연꽃향기'는 18곡 가운데 신작이 15곡이다. 새로운 곡을 소개해 다양한 찬불가 확대와 창작 발전에 도움을 주겠단 의지를 담았다. 특히 불국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천년의 꿈'과 '꽃을 바치나이다' 등 남성 합창단의 강점인 중저음을 살린 명상곡과 더불어,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이 담긴 '그 마음 그대로' 등이 수록됐다.

추현철 단장은 "수익을 위해선 사실 많이 알려진 곡을 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 찬불가 현황을 보면 너무 곡이 한정돼 있어 안타까웠다"며 "작곡가들의 숨겨진 명곡을 소개하고, 더 다양한 곡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단장은 "큰 스님 법문과 게송이 담긴 것이 찬불가다. 찬불가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편하게 다가가 불교를 접하게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깊은 내용이 담겨있어 그 힘은 더욱 놀랍다"며 "찬불가가 불자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앨범 '연꽃향기' CD의 자켓.

새 앨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은 6월부터 일반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다.

한편 BTN불교TV남성중창단은 2013년 12월 창단됐다. 부산과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며 반주자를 포함, 7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성악을 전공한 재원들이다. 현재 미룡사, 혜원정사, 대구 BTN불교TV 여성합창단 등 불교 단체 및 사찰서 지휘를 맡고 있다.

(010)8250-9789 하성미 기자

"호국영령과 보훈가족 위로하길"

진여원, 6월 10일 위령재 및 위안행사 개최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0일 오전 9시 부산 화명동 신도시 제3근린공원(추모공원)에서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재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한다.

1부는 동암 스님(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위령재로 시작한다. 이어 2부에선 극락왕생기원 등 밝히기, 내빈 헌화 및 분향, 제 53사단 장병 조총 발사 및 진혼곡 연주,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보훈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진여원은 보훈 가족에게 장학금과 감사패를 전달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한다. 장학금은 총 600만원이며, 보훈가족 자녀 총 14명에게 전달한다. 장학금은 진여원 불자들이 봉축을 축하하며 보시한 성금으로 마련됐다.


부산 진여원은 '제18회 진여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6월 10일 오전 9시 부산 화명동 신도시 제3근린공원(추모공원)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한편 이번 행사에는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내빈 및 유가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글쓰기 통한 생명의 가치 전달"

생명나눔 부산본부, 제9회 백일장 개최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5월 22일 서면 영광도서에서 제9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부산 시내 고등학생 67명, 중학생 55명이 참석했다.

백일장 주제는 중등부 '새싹 희망', 고등부 '스마트 폰', '인연'이었다. '새싹 희망'은 작은 생명도 소중하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정했으며, '스마트 폰'과 '인연'은 현대 문명과 인연의 관계를 짚어보고 현대 문물의 장단점을 고찰하기 위해 주어졌다.

손설빈 학생(해동고 · 2년)은 '인연'을 주제로 시를 쓰며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참여한 학생들이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화 시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가 제9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6월 22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한편 이 대회를 통해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는 장기기증과 난치병 환우돕기 · 가족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지역 거점형 사회복지관 실천 과제 찾다

용호사회복지관, 6월 2일 개관20주년 기념 세미나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지역복지 거점형 사회복지관 이념과 실천과제'로, 부산 사회복지 관련자 및 시설 종사자들에게 실천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지역복지 거점형 사회복지관-이념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맡았다. 이어 고재수 부산시 복지서비스 팀장, 이언상 일본 동지사대학 교수,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이춘성 관장의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 진다.

이춘성 관장은 "이번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 고찰하고, 주민중심 복지실천 네트워크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 · 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팔순 앞둔 공양주의 빛나는 회향

군산 성불사 공양주 강옥묵 씨 주차난 해결 위해 1억 원 쾌척


군산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관음행 보살.

20년 넘게 작은 사찰 공양주로 지내며 보시로 받은 돈을 모아 사찰주차장 부지 매입불사에 1억 원을 쾌척한 노보살의 선행이 지역불교계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옥묵(관음행, 76) 보살로 22년째 성불사의 공양주 소임을 맡아오고 있다.

관음행 보살은 성불사에 주차장이 없어 불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22년 동안 모은 1억 원을 흔쾌히 보시했다.

군산버스터미널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성불사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골목마다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성불사를 찾는 불자들은 법회일마다 주차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다. 성불사는 관음행 보살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면적 257㎡(78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다.

1974년 군산 동국사와 인연을 맺어 신행생활을 시작한 관음행 보살은 젊은 시절 사업하던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남겨놓은 빚도 공양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청산했다. 그는 유일한 혈육인 아들마저 선운사로 출가한 후 사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95년부터 군산 성불사에서 공양주 생활을 시작한 관음행 보살은 사찰의 총무와 재무, 원주 소임까지 겸하면서 1인 다역을 소화했다.

사찰 공양주라는 힘든 소임을 살아오면서도 새벽마다 금강경 독송과 108배를 빼놓지 않아 신도들에게도 모범적인 신행생활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관음행 보살은 "스님들을 모시고 성불사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보시금을 보람된 곳에 사용하고자 꼬박꼬박 모아왔다"며 "성불사를 찾는 불자들이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스님께 부지를 매입하자고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절에서 받은 보시금은 부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보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명 스님은 "관음행 보살이 큰마음을 내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성불사는 관음행 보살님의 큰 뜻을 기려 노보살님들의 수행처인 염불당을 건립하고 관음행 보살이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석탑 복원, 눈으로 확인한다

전라북도, '미륵사지석탑 중점 공개의 날' 운영


해체 전의 미륵사지석탑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의 복원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라북도는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사업에 대한 중점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미륵사지석탑 중점 공개의 날'은 문화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오전 10시와 오후 3시부터 각 2시간씩 미륵사지의 역사 · 문화사적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의미, 미륵사지 해체 · 복원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400년 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국가사찰인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불교건축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적으로 미륵신앙을 기초로 한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륵사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고대 역사 · 문화를 공부하는 초중고등학생 단체 관람과 익산 관광객들의 핵심 방문 코스가 됐다. 미륵사지석탑 해체 · 복원사업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며 2014년부터 그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청련사 28세 주지에 해경 스님

만불전 종각 낙성법회 및 주지 진산식

5월 21일 1천여 대중 동참
종단 대표 격려사 이어져
"흩어진 신심 모을 것" 당부


태고종 청련사 제28세 주지로 해경 스님(앞줄 왼쪽 첫 번째)이 5월 21일 취임했다. 사진은 종각 낙성법회 장면.

무학대사가 중창 불사한 신라 천년고찰 태고종 장흥 청련사(구 안정사) 제28세 주지에 해경 스님이 취임했다. 청련사는 5월 21일 '만불전 종각 낙성법회 및 제28세 주지 해경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서 새 주지인 해경 스님은 "청련사는 서울 왕십리 시절 1954년 불교 분쟁 발생으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온갖 악행으로 인해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청련사 대중스님들은 불보살님의 가호아래 주위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해 그 기도원력으로 오늘 대작불사를 발원하는 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원장 호명 스님(선암사 주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그동안 청련사는 태고종의 본산급 사찰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호하는 호국사상에 바탕을 두고 국난극복과 중생교화, 그리고 지역 민생 안정을 위해 수행정진을 거듭해 왔다"며 "'중생의 미혹함은 배움 없이 닦지 아니함에 있다'는 前 주지 백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도들의 탁마 수행처가 되고 미혹 불자들의 혜명을 밝히는 안정불교대학을 더욱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도 원로의원 지성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서 "이제 청련사는 오늘 낙성법회와 진산식의 회향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국태민안을 위한 호국사찰로서 한국불교 태고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가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승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화합으로 흩어진 신심을 다시 모아 일으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청정한 수행포교 가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은 "많은 대작불사가 있지만 진정 무엇이 대작불사인지 잘 인지해야겠다.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리라고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우라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로 상대를 무시하고 이해를 못하는 벽을 넘어 우리가 서로 믿고 상생할 수 있는 승단, 청련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도 "청련사는 1200년 전 중생교화와 호국기원 사찰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고 부처님 진리를 만민에게 전법해 욕망과 번뇌 가득한 정신세계를 정화함으로써 국가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창건됐다"며 "이런 뜻깊은 청련사가 양주지역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지역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깨달음을 일깨워 주는 평안한 기도도량이 되고 있다"고 축하했다.

진산식이 끝난 뒤에는 만불전 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주사암연합회장 혜성 스님, 정성호 국회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황영희 양주시의회 의장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취임한 청련사 주지 해경 스님은 1955년 덕봉 스님을 은사로, 춘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67년 안정사 초급강원을 졸업했다. 1973년에는 신흥사 덕암 스님을 법사로 입실 건당했다. 이후 1975년 봉원사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1년에는 안덕암 스님으로부터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또한 2014년에는 태고종 제13대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2015년에 제14대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어른 도리 다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천룡사, 성년의례 봉행


천룡사 성덕문화재단은 5월 21일 대웅전에서 '제3회 천룡사 성년의례식'을 봉행했다.

천룡사(주지 무등) 성덕문화재단은 5월 21일 대웅전에서 증명법사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허원 스님(정토선원 주지), 현종 스님(화림정사 주지)을 비롯해 예비 사회인, 신도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천룡사 성년의례식'을 개최했다.

예비 사회인 12명이 참여한 이날 성년의례는 전통성년의례와 불교수계의식을 결합해 이채롭게 펼쳐졌다. 의식은 타종을 시작으로 헌공, 거향찬,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성년자 대표선서, 수계연비, 수계약속, 성년선언, 초대손님 축사, 성년자 답사, 증명법사 개도예훈, 성년자 삼배, 계첩수여, 가족덕담, 정근,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무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성년의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위한 행사다. 또 수계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어왔던 허물을 벗어버리고 불자이자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의례"라며 "성년의례를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을 깨달아 욕심내고 성질내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지혜로 사회를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는 공덕으로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이슬(법명 청심행) 씨 외 11명의 예비 사회인들은 선서를 통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는 책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일"이라며 "이제 어른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사한다"고 합송했다.

증명법사 지각 스님은 개도예훈을 통해 "이제 성년으로서 가족과 사회, 이웃을 위해 상생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며,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랑 담은 짜장스님 교도소서 나눔 펼쳐

'사랑 실은 짜장스님'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이 군산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운천 스님은 5월 24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군산교도소(소장 박광래)를 방문해 '수용자 짜장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군산교도소를 방문한 운천 스님은 군산교도소 수용자들과 직원 90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을 점심식사로 제공했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수용자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꼽히는 운천 스님의 짜장면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연잎가루를 섞어 만든 면은 일반 중국음식점과 달리 독특한 맛이 있어 전국에서 스님을 찾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운천 스님은 5월 4일에도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짜장면데이'를 개최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삶의 세계 전부라는 편협함 버려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⑤⓪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림 · 최주현

전번에 약속한 귀신 이야기,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흠…, 우선 나칠계님처럼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귀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지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흠, 반 넘는 분들이 손을 드시네요. 그럼 없다고 믿으시는 분? 역시 꽤 많은 분들이 손을….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보아 있다고 믿으시는 분과 없다고 믿으시는 분이 반반 쯤 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어 그런데 나칠계님, 갑자기 다 지난 마당에 힘차게 손을 드시는 것은?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요? 헉! 귀신을 분명하게 본 사람이 있다구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어머나, 반가워라. 이런 복된 일이! 그렇지만 그냥 본 사람 있다고 전해들은 것이라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군요.(그간 나칠계님 행태로 보아서도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본 분이 정말 믿을만한 분인가요? 으흠? 나칠계님 아버님이라구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으니 믿어도 좋을 것이라구요? 그럼 그럴 것 같군요. 아무래도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피치 못해서 약간 거짓을 섞는 경우는 있겠지만, 귀신 만난 이야기는 그럴 이야기도 아니고…. 그럼 나칠계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나칠계 : 제 아버지가요. 시골 분이시거든요. 아주 시골은 아니구, 대도시 근방인데, 어느 날은 피치 못하게 밤늦게 이웃마을을 다녀올 일이 있었대요. 어쩌다 보니 일이 늦게 끝나서 새벽 두시 쯤에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대요. 좀 밤길이 무서웠지만, 그리 먼 길도 아니고 해서 용기를 내어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묘지가 많은 산자락을 지나오는 곳이 있었대요. 그러지 않아도 좀 쭈뼛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는데, 멀리 보이는 묏등에 웬 허여멀건한 것이! 깜짝 놀라 보니 완전히 사람 모습이더라네요. 입은 옷이 좀 치렁한 것이 해괴한데다가, 이상한 춤 동작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네요. 새벽 두시경에 무덤에 그것도 이상한 옷을 입고 춤 동작같은 것을 하는 게 무어겠어요? 너무 놀라서 으악! 하고 줄행랑을 쳤다네요. 뒤에서 낄낄~ 음산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금방 뒷덜미를 잡아채는 것 같아 정신없이 달아났대요. 겨우 동네로 돌아와서 잠도 못자고 날을 새웠대요. 그 이튿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그 묘지 있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아무 자취도 없었대요. 그건 귀신이 틀림없지요. 아버지도 틀림없는 귀신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새벽 두시에, 그것도 묘지 위에서 너훌너훌 이상한 춤추고 있는 것이 귀신 아니면 무엇이었겠어요? 제가 귀신 좀 무서워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거든요….

화들짝! 무어라구요? 그런 사연이? 삼쾌선생 갑자기 필름이 맹렬하게 뒤로 감기네요.

〈삼쾌선생의 회상〉 제가 젊은 시절 수행의 열기에 몇 달씩 눕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 장좌불와라고 하던가요? -까지 하던 때가 있었네요. 절은 아니고 시골에 있는 집을 수행도량으로 만든 곳이었는데…. 여름 더운 날에 방에서 참선하고 있으려면 매우 갑갑하고 하여 뒷산 묘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으로 나가곤 했어요. 무섭지 않냐구요? 첫날은 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내면 묘지가 그렇게 아늑하고 편안할 수 없어요. 거기다 잔디도 잘 깔리구, 비석이 있어 기대기도 좋구….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 애용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이었을 거예요. 무덤에서 참선을 하다 몸도 좀 찌뿌듯하고 하여 태극권을 하면서 몸을 좀 풀고 있었지요. 태극권 아시나요? 중국 사람들 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 멀리 무덤 밑으로 이웃 동네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웬 사람이 넘어 오더란 말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더군요. 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나를 귀신으로 여긴 것 같아서 허허 웃고 말았었는데….

아하! 반가워요, 나칠계님.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말을 실감 못했는데, 그 때 달아났던 분이 바로 나칠계님의 아버지였었군요. 이런 인연이! 나칠계님이 제 이야기 계속 듣고 계신 것도 아마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닐까요? 별로 제 이야기 깊이 공감한다던가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건 분명 그런 인연 때문일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공교로울 데가!

삶과 죽음의 문제가 화두
사후세계 단정짓지 말아야
무지로 인한 두려움 떨쳐야

엥? 그런데 그렇게 반가워만 할 일이 아니군요. 귀신 본 사람 있다는 나칠계님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네요. 확실히 귀신 본 분이 있다 하여 좋아했더니…. 애고, 다른 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그리 귀신 본 사람이 있다니까 좋아하느냐구요? 또 왜 그렇게 귀신 본 사람을 애타게 찾느냐구요?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귀신을 확실히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풀리겠어요? 적어도 귀신의 세계에 관한 궁금증이 풀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구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너희들도 태어남과 죽음이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 같은 귀신이 되는 거냐? 기타 등등….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의문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귀신 만나기 프로젝트라고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거든요. 귀신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요. 그 계획의 일부를 좀 들려 드릴까요. 아주 참신한 게 많지만 특별히 숨기지 않고 조금만 알려 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것은, 귀신은 우리를 무서워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미리부터 잘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 세계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계와 우리 세상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를 잘 몰라서, 만약 처음 만나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영화가 있어요. 어쩌다 봤는데 분명 도용당한 것 같아요. '디 아더스(The Others)'라는 영화입니다. 꽤 오래 전의 영화인데, 귀신 일가족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영화더군요. 그 영화 제작년도보다 제가 귀신만나기 계획 수립한 게 훨씬 앞이니까 도용의 혐의가 짙단 말씀이죠.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삼쾌선생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 해도 정말 마지막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신도 자신들의 세계 밖에 몰라서 제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대화를 터도 소용없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엔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우네요. 귀신이라고 다 알겠어요?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역시 그 세계밖에 모르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테니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좀 시들해진 삼쾌선생. 괜히 귀신 만나기 겁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구요? 나칠계님! 제가 님의 아버지 귀신 만났다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구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잡지 마세요. 삼쾌선생의 귀신 만나고 싶다는 열망은 여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엄숙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귀신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짓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겠지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말씀이지요. 몇 천 년 동안 인류의 존경을 받아오는 그 분들의 말씀. 그분들은 귀신을 부정하지 않으셨더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처님도 귀신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소크라테스는 귀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피력했지요. 마지막으로 공자님은 "귀신을 공경하지만 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중에 공자님의 태도는 매우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개해 드리기로 하지요.

자로라는 제자가 귀신 섬기는 것을 묻자 공자는 "사람도 못 섬기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하고 대답하지요. 또 죽음을 묻자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까?" 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 삶을 중심으로 하는 공자의 태도가 바로 앞에 말한 "귀신을 공경하지만 멀리한다"는 태도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경원(敬遠)한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귀신을 공경하지만 귀신의 문제를 삶 속에 끌어들여 신비화한다던가, 우리 삶의 문제를 귀신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을 지양한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귀신이 있다 없다는 문제에서부터, 너무 그런데 몰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다는 단정을 할 필요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귀신의 존재에 우리의 삶을 의존할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데 힘을 기울이되, 우리 삶의 세계가 전부라는 편협한 생각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귀신의 존재까지도 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비록 서유기의 본줄기와는 조금 어긋났지만 너무 탓하지 마시구요. 그러고 꼭 한마디 해 두어야 하겠네요. 어쨌든 나칠계님처럼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서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아니 이상한 일이 아니군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 말이 좀 꼬였다구요? 아닙니다. 잘 음미해 보세요. 알지 못하면서 무서워하는 아이러니, 그 밑바닥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말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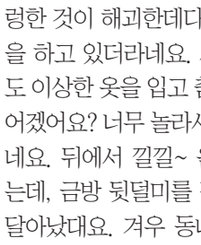
자, 다음 시간에는 서유기의 본줄기를 따라 열심히 가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귀신세계에로의 헤맴을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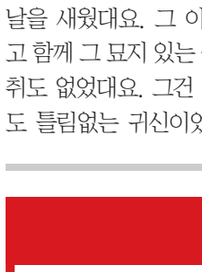
※ 경전사경 · 사경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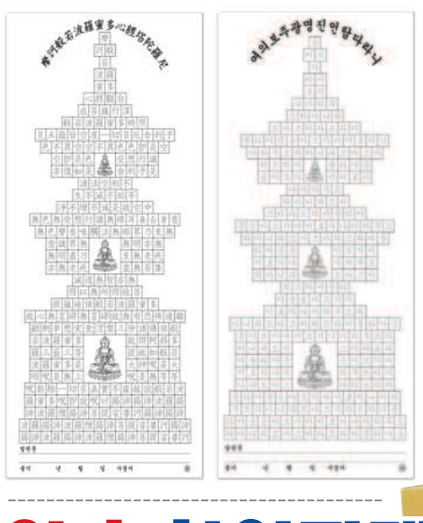

경전사경 제31호
우리말 금강경
할인가 1,800원 (100권이상)
정 가 3,000원 (1권)
• 제 본 : 좌철 무선제본
• 크 기 : 19㎝×26.2㎝


경전사경 제32호
우리말 지장경(上)
할인가 2,100원 (50권이상)
정 가 3,500원 (1권)
• 제 본 : 좌철 무선제본
• 크 기 : 19㎝×26.2㎝


경전사경 제33호
우리말 지장경(下)
할인가 2,100원 (50권이상)
정 가 3,500원 (1권)
• 제 본 : 좌철 무선제본
• 크 기 : 19㎝×26.2㎝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반야심경/광명진언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 한글


파라핀양초(특)
정 가 50,000원
1.8ℓ ×12병 / 한불양초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2박스이상일때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C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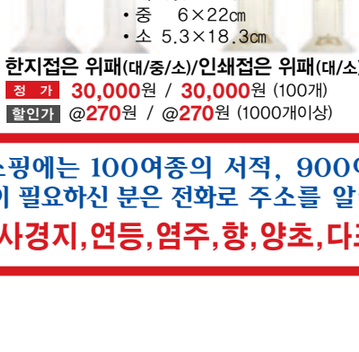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500원


제브라붓펜 3,4,5호
할인가 2,100원(50개 이상)
정 가 3,000원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크기
• 15.5×19㎝
정 가 30,000원 (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차와 먹 원재료 응용력 크다… 수행 도구로 사용

화가의 차문화 엿보기 ②



김 호 석
수묵화가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서당 훈장을 하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 덕에 무쇠 솥에 마른 솔가지와 관솔 향이 펄펄 나는 소나무 장작을 태우며 밥을 지었다. 밥을 다 푸고 누룽지를 긁어낸 후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기도 했다. 때론 남은 숯불 위에 무쇠 주전자를 올려놓아 물을 끓이고 여기에 녹찻잎 한 움큼을 넣고 다시 푹 끓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날은 귀한 맛으로 호사를 누리는 행복한 날이었다. 우리는 식사 후 그 뜨거운 녹차를 혀끝에서부터 혀뿌리까지 아니 목 구멍 속 깊이 음미하며 마셨다. 그 맛은 숭늉처럼 맛있었다. 차색은 황갈색이었고 향은 웃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끓여 마신 녹차는 속을 따뜻하게 했다. 녹차로 인해 속이 불편했던 기억은 없다. 뜨거운 차이지만 그 맛은 텁텁했고 시원했다. 몸에 좋다하여 적당히 찻잎까지 통째로 씹어 먹었다. 나의 삶 속에서 차는 이런 풍미와 정서로 기억되어 있다. 그 시절 마셨던 녹차엔 어느 것도 덧칠된 것이 없었고 군더더기 없이 차의 본질만을 취한 원형 차 맛, 그 자체였다. 더구나 형식이나 논리 개념도 없었다. 우리는 높은 향기를 취하거나 색깔도 괘념치 않았다. 단지 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와 맛을 얻으면 그 뿐이었다. 50년 전 내가 마셨던 차의 추억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차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지 녹차라는 단어를 생각하기만 하면 입에 침이 가득 고이고 이(齒) 사이에서 향기가 움직이며 목구멍 깊은 속에서부터 향내가 내뿜어져 나오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요즘 마시는 작설차는 예전의 작설과 맛과 향이 많이 달랐다. 한마디로 내용보다 형식이 진실보다 사치와 허영이 많았다. 나는 녹차의 제조 현장을 찾아 차 맛에 숨어 있는 섬세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한국 차의 원형에 대한 탐구와 전승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과거의 전통이 시대를 만나 어떻게 새롭게 이해되며 해석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였다.

나는 남도를 방문하는데 곡우가 조금 지나고 입하가 안 된 시절을 선택했다. 우전차가 만들어진 직후여서 햇차 맛보기에 적격이고 곡우와 입하 사이에 차를 만드는 곳이 많기에 현장을 실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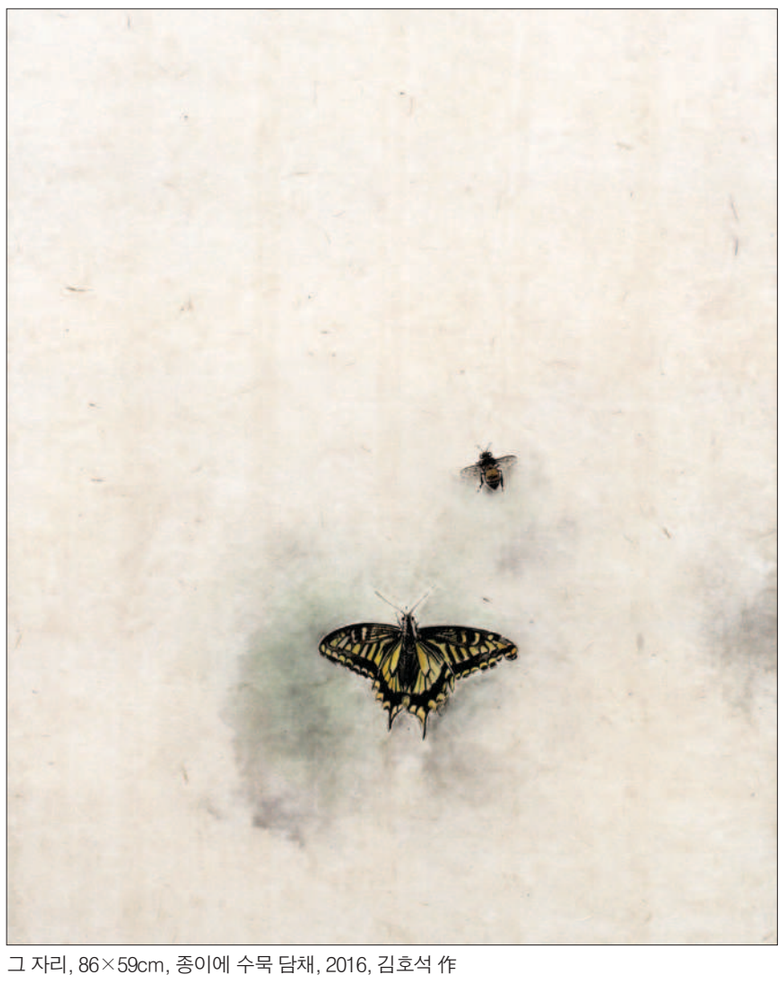
나는 그동안 여러 장인들을 통해 녹차 만드는 과정을 보아 왔고 관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각 장인들이 만든 녹차 맛이 어떤 제다 방식 때문인지 조금은 파악된 상태였다. 그렇지만 현장을 다시 찾은 이유는 확인하며 혹여 보지 못한 숨어 있는 진실은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싶어서였다. 과정에 철저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도 한 몫을 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는 녹차이다. 녹차를 제조하는 일반적 방법은 여린 찻잎을 따는 일과 이를 뜨거운 온도로 덖는 과정, 덖은 찻잎을 비비는 행위 그리고 건조시켜 완성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 차의 전형적 제다 방식이다. 덖는 방식은 중국과 일본차의 전형성과 다른 점이다. 중국차는 대부분 쪄 만들고 일본차는 숯불을 피워 대바구니에 찻잎을 담아 훈제를 하는 방식이다.

녹차 제다에서 찻잎을 따는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채취 시기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조금은 다르다. 다인들마다 어린 찻잎을 정성을 다하여 예쁘게 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딴 찻잎은 성장의 맥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한다. 그래서 소쿠리에 가득 담긴 생찻잎은 싱싱한 냄새가 극에 달하지만 반대로 생명을 향한 독소도 최고조에 이른다. 절명한 찻잎은 원초적인 생명활동에 의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살고자 몸부림친다. 이때 찻잎은 스스로 열을 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발효와 산화가 진행된다. 따 놓은 찻잎의 운동이 가장 왕성할 때, 그 시간을 잡아 뜨거운 열로 차의 숨을 순간적으로 죽이는 것이 녹차 맛을 최고도로 올릴 수 있는 핵심이다.

덖는 방식은 찻잎의 양과 솥의 온도에 따라 다르다. 찻잎이 뜨거운 무쇠 판 위에 머무르는 시간과 손으로 뒤집으며 고르게 숨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 제다법이다. 이 순간은 각각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찻잎이 불기운 속에 생명의 끝단을 장식하며 순한 기운으로 전환하는 시간이다. 찻잎이 열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야 적정한가와 어느 온도에서 어떻게 익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는 차를 만드는 이의 마음에서 나온다.

제다법에서 장인들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찻잎을 덖는 방식이다. 고온에 단 한 번 덖는 것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여러 번 덖느냐로 나뉜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덖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차의 고유한 성분을 유지한 채 좋지 않은 요소를 중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 모든 차 맛은 첫 번째 덖음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 만큼 첫 덖음은 차 맛의 기준이다. 설익거나 너무 익으면 그 뒤 몇 번이고 덖는 과정이 아무리 엄정하고 철저하게 준수된다 해도 첫 덖음에서 생성된 맛은 변하지 않는다. 덖는 솥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 자리, 86×59cm, 종이에 수묵 담채, 2016, 김호석 作

덖어서 숨이 죽어 있는 찻잎은 비비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찻잎의 피막은 균열된다. 이렇듯 깨트리는 이유는 과다한 것을 내 보내고 물에 우릴 때 빨리 우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차가 가지는 기본 속성 즉 쓴 맛이나 떫은 맛은 비비는 과정을 통해 중화된다. 이 과정은 차가 뜨거운 물을 만났을 때 색과 향이 잘 우러나도록 하는데도 있지만 맛과 향을 이파리 속으로 밀어 넣어 머금게 하는 목적도 있다.

문질러 형태를 만든 찻잎은 두터운 한지 위에 각각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털어 펼친 후 다시 한지로 덮는다. 이유는 건조하기까지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불에 지지고 손으로 문지름을 당한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찻잎이 하나의 닫힌 공간 속에서 균일하게 서로 어울려 하나의 맛으로 통일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제다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조 기술이다. 비빈 후 펼쳐 놓은 찻잎은 일정 시간이 지나 차가운 성질로 환원될 때 솥의 온도가 100도 정도에서 순간 건조시킨다. 이 과정은 수분을 5%이내가 되도록 증발시켜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마무리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차에 맛을 가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명차의 특성은 이 과정을 통해 방점을 찍는다.

그러나 그 이상의 건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전문가는 "찻잎이 열로 인해 격정적으로 덖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열기와 혼돈을 안정시키고 차 맛을 안으로 배어들어 고요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안정기를 주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런 방식은 불을 만나 성질에 변화가 생긴 차의 사납고 날이 선 감성을 다스리기 위한 비법에 해당한다. 화계사에서 차를 만들었던 어떤 노승은 "마지막으로 건조한 차를 최소 30일 동안 한지에 쌓은 채 항아리에 넣어 완성을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생잎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조 후 맛을 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한다.

나는 차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묵화를 그리기 위한 재료 제작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회화에서 재료의 개발은 혁명이다. 필묵을 장악한다는 것은 화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완성인 셈이다. 재료의 생성은 그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기에 가능하다. 필요한 만큼 반응한다. 재료가 물질 이상의 정신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 "내가 먹을 갈 때
> 맑은 녹차 물 몇 방울을
> 떨어뜨려
> 정성껏 가는 이유는
> 먹이 가지는 정신의
> 고매함만은 잃고 싶지
> 않아서이다."



덖은 찻잎은 비비는 과정을 수행한다. 찻잎물이 스민 돗자리는 뭇 생명들에게 향을 선사한다. 나비도 벌도 그 영역을 지나치지 못한다.

수묵화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종이, 붓, 먹, 벼루이다.

종이는 그림의 바탕이다. 좋은 종이는 모든 표현이 가능하도록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다. 얇고 두께가 균일한 종이는 황촉규에서 나온 점액질이 좌우하는데 이 물질은 추운 겨울철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지는 추운 겨울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는다. 한지는 질기고 보존성이 좋지만 보풀이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래서 후처리가 필요하다, 종이가 갖는 한계 즉 섬유사이의 빈 공간을 메워주고 보풀을 잠재우게 하는 마무리 공정 없이 서화용지로 사용하기 힘들다. 지금 한국에선 조선 고유의 제지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부끄러운 한국 문화의 속살이다.

먹은 형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실체이다. 좋은 먹은 짙고 옅은 다양한 단계를 폭 넓게 표현 할 수 있게 한다.

먹은 소나무나 식물성 기름 등을 태워 생긴 그을음을 긁어모아 아교 녹인 물로 반죽하여 건조시킨 고형체이다. 〈고반여사〉에서는 "먹을 잘 쓰는 법은 質은 가벼운 것을 취하고 연기는 맑은 것을 취하며 냄새에 향기가 없고 갈아도 소리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고 좋은 먹이 지니는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공업용 카본을 이용해 만든 먹만 있을 뿐 송연묵이든 유연묵이든 만들지 못한다.

붓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털로 만든다. 좋은 붓은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형상을 그리도록 탄력과 유연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먹물을 함유하여 균일하게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붓의 원료가 되는 털은 겨울에 잡은 동물의 표피에서 얻는다. 특히 춥고 바람이 부는 지역의 털은 영양분이 많아 보존성이 우수하며 탄력도 좋아 최고로 친다. 털은 동물마다 사용할 수 있는 부위가 다르다. 문제는 털에 함유된 지방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 지방은 왕겨를 태운 재로 제거한다. 기름기를 빼는 과정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왔기에 장인들 마다 비법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는 한국고유의 털로 만든 붓이 거의 없다.

벼루는 입자가 곱고 강도가 강한 인니암석이 주 원료이다. 좋은 벼루는 맑은 먹색을 얻는데 있다. 먹이 곱게 잘 갈리면서 먹물도 잘 마르지 않아야 한다.

수묵화는 흰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그려진 형상이다. 단순한 흑과 백의 대비와 조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검정은 색이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소멸시켜 색을 잃었음에도 없는 색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낳는다. 수묵화 재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운용되는 폭넓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차나 수묵화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만드는 문제는 재료 자신이 아니라 마치 물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형상을 바꾸는 것처럼 원하는 의도대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변용된다는 사실이다. 차와 먹은 원 재료가 가지는 응용력이 무엇보다 크며 인간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신을 표현하고 높게 고양 시킨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깊다. 또 자기 수양의 도구가 되는 점도, 지나치게 형식화 되었을 때 정신을 좀 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유사하다. 수양의 도구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도구로 전도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자신을 되돌아 볼 일이다. 내가 먹을 갈 때 맑은 녹찻물 몇 방울을 떨어 뜨려 정성껏 가는 이유는 먹이 가지는 정신의 고매함만은 잃고 싶지 않아서이다.



산사 유람하며 神仙 꿈꿨던 자유인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㉒ 부사 성여신

64세가 되어서야 겨우 사마양시에 합격했던 성여신(成汝信, 1546~1632)은 불세출의 문장으로 세상에 회자되었다. 이러한 그의 역량은 어린 나이에 신숙주의 증손인 신점(申霑)의 문하와 남명 조식(南冥 曺植, 1501~1572)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며 배태된 것인지도 모른다.

임진왜란과 당쟁으로 얼룩진 시절을 살았던 그의 행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때 신선세계에 빠져 산천을 주유했다. 하지만 나라가 위난에 놓이자 분연히 일어나 곽재우(郭再祐, 1552~1617)와 함께 왜군을 무찌르는 전공을 세우면서도 논공행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은일하는 선비로 돌아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사회적 질서와 풍속은 문란할 대로 문란해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바로 자신의 향리에 소학과 대학의 법도에 따라 양몽재(養蒙齋)와 지학재(志學齋)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고 이들이 학문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로 돕고 격려하는 풍속을 만들기 위해 여씨향약(呂氏鄕約)과 퇴계동약(退溪洞約)을 본떠 향리의 풍속을 순화하게 한 일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그의 노력은 10여 년이 지난 뒤에야 그 빛을 발하여 향리의 풍속이 서서히 변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만년은 당쟁의 피해로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다. 바로 정인홍(鄭仁弘, 1536~1623)을 위시한 대북정권에서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가 폐하는 등 정치적인 폐해가 커져 갔다. 처음엔 그도 정인홍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지만 얼마 후 정온(鄭蘊, 1569~1641)의 정치적 입장을 따랐기에 행로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마 그가 신선세계를 흠모하여 산천을 주유한 것도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나름대로 내린 처신의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가 만년의 지리산을 유람한 기록은 그의 삶에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그의 '유두류산시(遊頭流山詩)'에는 수편의 장시와 그를 따라 지리산을 유람한 인물을 소상하게 밝혔는데 정대순(鄭大淳, 1552~?), 강민효(姜敏孝), 박민(朴敏, 1566~1630), 이중훈(李重訓), 문홍운(文弘運, 1577~1610), 성박(成 ㅏ, 1571~1618), 성순(成錞, 1590~1659)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여정은 성여신의 거처인 부사정(浮査亭)을 출발하여 사천을 거쳐 하동 횡포로 들어갔다가 다시 삽암(鈒巖)에서 쌍계사로 들어가 불일암을 유람한 후, 신응사를 거쳐 집으로 돌아왔고 최치원이 노닐던 쌍계사와 불일암을 두루 답사하였다. 그가 청학을 타고 노닐던 최치원을 흠모한 것은 신선세계를 동경했던 그다운 행적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신선을 상징하는 호를 지어 불렀으니 이는 '방장산선유일기'에서 확인된다.

한편 신선이 되길 희망했던 성여신의 이상 세계는 신선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호는 부사소선(浮査少仙)이라 하였고 정대순은 옥봉취선(玉峰醉仙), 강민효는 봉대비선(鳳臺飛仙), 박민은 능허보선(凌虛步仙), 이중훈은 동정적선(洞庭謫仙), 성박은 죽림주선(竹林酒仙), 문홍운은 매촌낭선(梅村浪仙), 성순은 적벽시선(赤壁詩仙)이라 불렀다. 이처럼 혼란한 세월을 피해 신선을 동경했던 그도 선비로서의 명분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방장산선유일기' 말미에 적어둔 글에서 "선비의 한 몸은 경제를 그 계책으로 하고, 선비의 한 마음은 겸선(兼善)을 그 뜻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산에 들어갈 수 있겠으며, 어찌 신선을 배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선세계를 동경한 성여신은 쌍계사와 불일암을 두루 답사하며 자유로운 감성으로 삶을 살았다. 사진은 쌍계사 전경.

그의 지리산 유람은 스승 남명 조식의 청학동 유람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조식이 '유두류록(遊頭流錄)'을 남겼고 그 또한 '방장산선유일기'를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지리산을 단순히 유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회고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이정표로 삼으려했던 자세는 그가 신선세계를 동경하면서도 유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했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실제 그는 불교를 배척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산사를 유람하고 승려들과 교유했던 흔적은 만년 산천을 유람했던 시기라 여겨진다. 특히 금오산 용장사(茸長寺) 승려 설잠(雪岑), 즉 김시습(1435~1493)을 그리며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나이 겨우 다섯 살에 문장으로 이름난 사람
(年才五歲擅文章)
만년까지 미친척했던 절개가 어찌 미친 것이랴
(晩節佯狂豈是狂)
불가로 도피한 그 뜻을 누가 알리오
(逃禪誰識逃禪意)
다만 옛 임금을 끝까지 잊지 못했던 것을
(只爲舊君終不忘)

전공 세워도 賞에 무관심
향리 풍속 순화 힘쓰면서
한때는 불교 배척했지만
만년에 승려들과 교유해

오세동자 김시습은 세종이 아꼈던 동량이었다. 하지만 그가 거짓으로 미친척한 것은 세상에 경종을 울렸던 기개 있는 사람의 절절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를 손가락질했던 당시의 소인배는 그의 큰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열렬한 충심과 정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김시습은 아마 성여신의 표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불가에 의탁했던 김시습의 처세를 보며 한때 신선세계를 동경해 지리산을 유람한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처세의 방법은 달랐지만. 한편 그가 쌍계사에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새로 지은 쌍계의 절간에 뜬 밝은 달
(明月雙磎新梵宇)
팔영루의 옛 신선 누각에 부는 맑은 바람이라
(淸風八詠舊仙樓)
흥망이 수없이 바뀐 구름, 남으로 내려오고
(興亡百轉雲南下)
누대를 돌고 돈 물, 북으로 흘러가네
(世代千回水北流)
고요한 낮 단풍 숲엔 나막신 한 쌍 가지런하고
(晝靜楓林雙蠟)
깊은 밤 소나무 평상엔 차 단지 하나 놓였네
(夜 松榻一茶)
누가 알았겠는가, 십 년 전 여산의 나그네가
(誰知十載廬山客)
백발이 되어 다시 악양에 오게 될 줄을
(重到岳陽雪滿頭)

쌍계에 뜬 달은 산뜻한 가람을 더욱 그윽하게 했을 것인데 더구나 밝은 바람이 산들 부는 팔영루, 이곳은 비경이며 선경이다. 그리고 선미가 장황한 공간이다. 그런데 누대를 흘러가고 있는 쌍계 계곡물은 예나 지금이나 흐른다. 단선의 선미는 바로 "고요한 낮 단풍 숲엔 나막신 한 쌍 가지런하고(晝靜楓林雙蠟)/깊은 밤 소나무 평상엔 차 단지 하나 놓였네(夜 松榻一茶)"일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승경지를 백발이 되어 다시 찾은 성여신은 바로 선미(禪味)에 젖은 나그네였다. 법계사에 올라 지은 그의 시는 마치 신선을 방불한 것이니 그가 세상에 문재로 드러난 연유 여기에도 또렷한데 〈상법계사(上法界寺)〉는 다음과 같다.

초연히 이 몸이 인간세상을 벗어나니
(超然身世出人)
가는 곳마다 신선 구역이라 경물이 한가롭네
(隨處仙區景物閒)
바위가의 푸른 솔엔 열사의 기운 서려 있고
(松碧巖邊烈士氣)
절벽의 단풍은 취한 사람의 얼굴 같아라
(楓丹壁裏醉人顔)
아득히 먼 밖의 뭇 바다는 술잔처럼 보이고
(杯看衆海蒼茫外)
뿌연 안개 속에 뭍 산은 흙덩이처럼 보이네
(塊視諸山杳靄間)
선동을 불러서 타고 갈 학을 데려오게 하여
(嗅取仙童來駕鶴)
내일엔 옥황상제께 알현하고 오리
(明朝上謁紫皇還)

법계사는 지리산 천왕봉 아래에 위치한 사찰이다. 그곳을 찾아 인간의 속진을 벗어났던 그의 경계는 이미 신선이었으며 수행력이 높은 산승(山僧)이었다. 그러므로 물물이 다 한가롭고 아름다웠던 것이다. 더구나 천왕봉의 법계사는 아름다운 승경지. "바위가의 푸른 솔엔 열사의 기운 서려 있고(松碧巖邊烈士氣)/ 절벽의 단풍은 취한 사람의 얼굴 같아라(楓丹壁裏醉人顔)"라고 노래할만 한 곳이었다. 더구나 바위틈에 서 있는 푸른 솔은 아마도 그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함의하기에 좋은 대상물이었으리라.

이외에도 그의 삶의 규모를 드러낸 글에는 "강호의 어떤 늙은이 배웠는데도 때에 맞질 않아 십년동안 거문고를 연주했는데 흰 귀밑머리 바람결에 쓸쓸히 나부끼네(江湖有一翁 學焉而不適於時 十年操瑟兮 兩鬢華髮風蕭蕭)"라고 하여 세상을 경영할 지혜를 길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채 쓸쓸히 늙어가는 신세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도 한 가정을 이룬 가장임에 부인의 채근을 받아야했던 상황임에도 "집안 살림을 경영함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이 책만 펴놓고 읽으며 자득했던(休休焉無營無思 對黃卷而)" 그였기에 안회(顔回)의 안빈낙도를 꿈꾼 듯하다. 그러나 아내의 현실적인 성화는 바로 "밥을 지으려 해도 땔나무가 없으니 솥 안의 누런 기장 익지를 않고, 온돌에는 불 때는 연기가 없으니 밤 창가 어깨에선 두루 소름이 돋네. 심하구나, 당신의 우활함이여! 공자의 자리가 따뜻하지 않음을 배우고 묵자(墨子)의 구들이 그을리지 못함을 본받은 것인가. 추위가 이에 이르렀으니 당신은 어떤 마음인가요. 만약 당신이 나무하러 간다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저 솥을 씻겠소(妻 有語曰 炊無薪 鼎裏之黃粱未熟 突無煙 夜窓之玉樓遍粟 甚矣子之迂也 學孔席之不煖 效墨突之不黔者耶 一寒至此 子何以爲心 子如薪之 請爲子溉彼釜甑)"라고 했다. 그의 아내 또한 그에 못지않은 입담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기야 이 글은 성여신 자신이 도모해 쓴 글이니 그 구성 또한 심상치 않은 듯하다. 이어지는 그의 글엔 대답 또한 흔쾌하다. "내가 알았다고 하고 이에 작은 배를 읍벽당 주인에게 빌려서 조각배 한 척을 안개 낀 긴 물가에 띄웠다. 물빛은 일렁거려 푸른 옥 한 조각에 맑은 가을 며금은 듯하고, 산 빛은 짙푸르러 비단 수놓은 천 겹 산이 푸른 강에 거꾸로 선 듯하다. 뱃전을 두드리고 노래하며 소선(소동파)의 적벽 유람을 추구하고, 빙그레 웃으며 어부의 창랑 노래를 불렀다(翁曰諾 於是 扁舟 碧主人 縱一葦煙雨長洲 水光瀲灩 碧玉一片含淸秋 山色 籠 錦繡千層畵碧流 叩舷而歌之 追蘇仙赤壁之遊 而笑兮 詠漁父滄浪之謳)"는 것이다. 창랑의 어부는 굴원의 〈어부사〉에서 연원한 것이니 충신의 절개는 그가 드러내고자 한 표상일 것이다. 더구나 자유로운 감성이나 자연과 하나 된 그의 몰입의 경지는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난세를 살아가는 처세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터득했던 그였다. 신선을 동경했던 어진 사람, 성여신은 한때 불교를 배척했던 선비였지만 만년의 그는 이미 유불선의 경계도 허물었던 자유인이었던 듯하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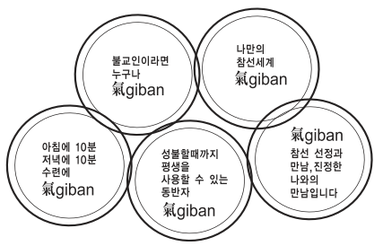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니까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③

괴로움 알고 해법 찾는 일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의 첫 번째는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이다. '적절한 길'(中道)을 걷는 이는 특정한 하나의 판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지님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렇다면,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어떤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의 대답이 가능하다. 앞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선의 차이만을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이



그림 · 나은영

와 같은 차이는 세상 사람들의 숫자만큼 존재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는 불교의 사상체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견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은 당연한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불교 안에서 거론되는 견해들 중의 하나를 '정견(正見)'으로 제시하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해나 해석이 정견인가 아닌가는 그야말로 해석하기 나름이 된다. 실제로 '팔정도'를 언급하고 있는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후기불교에서나 등장하는 사상이나 개념으로써 저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하나의 견해를 '정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므로 〈니까야〉에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를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경전 중에서 특정한 몇몇을 택하여 근거로 삼는 태도 역시 하나의 이해요, 해석이라는 한계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디가-니까야〉의 제22장 〈마하사띠파타나〉라는 이름의 〈대념처경(大念處經)〉에 서술되어 있는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의 설명에 따라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의 설명대로 이 또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를 완전하게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부처의 의도를 비교적 그 뜻에 가깝게 설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하에서 또 다른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길'의 일곱 가지 요소를 설명할 때에도 이 경전에 의거하여 하나의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앎,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앎,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앎,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앎, 이것을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의 파악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괴로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로부터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를 이루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길은 다시 그와 같은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추적하고,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지를 타진하며, 마지막으로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正見)에서의 '올바름'이란 일상의 괴로움을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적절함'이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생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데에서 이루어지며, '온전함'이란 그것의 소멸을 달성하는 길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대답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아이들 법회왔다 엄마끼리 도반…



48명으로 구성된 동림 어린이 법회 자모회는 홍법사청소년교육연구소, 법회팀, 문화관 팀, 세향공덕회 등 각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육 및 포교 후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기도와 수행으로 가정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버이날 효잔치 공양, 대중공양, 성애원 방문 봉사, 아프리카 구호 활동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 봉사를 진행 중이다.

道伴의 향기

홍법사 동림어린이법회 자모회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침이 곧 최고의 배움이 된다는 말이다. 이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해당된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끊임없이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배움의 도반으로서 함께 뭉치기도 한다.

홍법사 어린이법회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현재 불교계는 포교활동 중 어린이 포교를 가장 큰 과제로 꼽는다. 하지만 홍법사는 예외다.

홍법사에는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단순한 법회 뿐만이 아니라 재가안거에도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법사 어린이들의 활동 이면에는 자모회 어머니들이 있다. 5월 23일 홍법사 어린이 하안거 입재를 위한 설명회에서 자모회 어머니들을 만났다.

아이엄마서 수행자 도반으로

2015년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진행한 재가안거에서는 아이들의 안거동참이 화제가 됐다. 바로 홍법사 동림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었다. 그 이면에는 어머니들의 열성이 있었다.

23일 홍법사 대적광전에서는 어머니들이 모여 절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찰예절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한 어머니 대상 교육강좌였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절을 하고 몸을 바르게 세우며 마음 모아 '지심귀명례'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경숙 홍법사청소년교육연구소 소장의 설명에 어머니들의 눈빛이 빛났다. 홍법사 어린이 하안거에서 어린이들은 90일간 매일 108배를 진행한다. 어머니들은 마치 자신이 108배를 하는 듯 처음부터 설명을 꼼꼼히 들으며 지도할 내용을 기록했다.

"아이들이 108배를 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칭찬'입니다. '나보다 잘하는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아이들을 칭찬한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가 이번 생에는 몸을 빌려 여러분들의 자녀로 왔을 진 몰라도 여러분들의 스승이었을수도 있고 부모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녀, 내 아이란 생각을 버리고 자녀와 함께 수행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날 모인 어머니들에 대한 김경숙 소장의 설명은 단호했다. 아이들이 108배를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2003년 어린이법회 구성 후 결성
어머니들, 문화활동에 교사로 나서
합창단 지도 등 다양한 활동 전개

부모의 생각이며 부모의 한계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부모의 한계가 곧 아이들의 한계로 결정짓게 된다는 말이었다. 김 소장은 자녀들과 함께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설명을 듣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동림 어린이 회의 숨은 기둥으로

동림 어린이 법회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홍법사는 2002년 천막법당으로 문을 열었다. 법당 건물조차 없었지만 다음해부터 바로 동림 어린이 법회가 결성됐고 자모회도 시작됐다. 홍법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수업도 주5일제 시행에 맞춰 실시했다. 현재 이 문화수업에서는 영어, 발레, 플룻, 댄스, 기타 연주, 합창, 우크렐레, 사물놀이 등을 가르친다.

또한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정기법회에서는 어린이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이 마련된다. 기본적인 예불문과 천수경까지 불교교양과 함께 영어법회 등도 열린다. 야외수업을 통한 자연 관찰 등도 진행된다.

김경숙 소장은 "요즘 어머님들은 모두 고학력이다"며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법회와 문화관 수업의 주축이 모두 어머니들이다. 이 모든 활동에 어머니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맡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해 하셔요.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구요. 외부강사비가 안 들기에 모두 무료로 운영해 사찰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건 대표교사는 현재 법회 교사가 모두 어머니들이라고 했다. 어머니들의 열성은 일요일 아침마다 이어진다.

"주중 수업으로 자잘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말이라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보람된 것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나갔던 아이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걸 볼 때입니다."

아이들은 반야심경과 한글천수경을 척척 외울 정도다. 어머니들이 자칫 지겨워 질 수 있는 법회시간을 적응할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다. 또 영어로 여는 법회를 통해 국제포교사들이 주최하는 '헬로 범종을 울려라' 어린이영어퀴즈대회를 미리 대비하며 영어 실력은 덤으로 얻는다.

이미건 교사는 "아이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기본적인 예불을 잊지 않고 그 아이들의 근기에 맞게 진행하며 고학년들은 불교 영어를 통해 더욱 꼼꼼히 불교를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건 교사는 법회를 통해 불자로 갖춰야 할 지식과 기초적인 내용은 반드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현재 홍법사 자모회는 전문화되어 활동 중이다. 동림 어린이를 위한 총괄 기관으로 홍법사청소년교육연구소가 있으며 법회팀, 문화관팀, 그리고 자모회 모임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 모든 활동 구성원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자식사랑만큼 이웃에게 헌신”



지난 5월 봉축대법회에서 활약하는 자모회 어머니들의 모습이 씩씩하고 밝다.



법회후 간식준비는 자모회의 몫이다.



올해 열린 제28회 전국어린이청소년 연꽃잔치서 아이들을 입상시킨 자모회 모습.

들은 모두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다.

수행모임 결성해 활발한 활동

자모회 어머니들은 서로 도반이 되어 격려하며 각자의 삶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자신들의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어머니들은 수행모임인 홍법 세향공덕회를 3년 전 조성했다. 그리고 매일 수행일기를 공유하는 등 신행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세향’ 은 ‘세상을 향기롭게’ 를 줄인 말이다. 짧고 명쾌한 이름인 그 가운데는 공덕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자모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 의지는 동림 어린이 법회를 최고의 어린이회로 만들뿐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을 수행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김유미 홍법사청소년교육연구소 총무는 “처음에 절에 나올 때는 사찰 예절도 모르겠고 법당에 들어가면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좀 더 배우고 싶었고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년 전 처음 세향공덕회를 창립하던 당시 동참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은 총 인원이 48명으로 홍법사 대부분의 자모들이 참석하고 있다. 현재 세향공덕회는 3년 전부터 100일 기도를 실시하며 각 가정에서 매일 같이 기도로 하루를 연다. 그렇게 진행한 100일 기도가 10회를 맞아 올해 1000일이 되어 가고 있다. 각 가정에서 하는 세향공덕회의 수행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수행으로 확대돼 가정에 뿌리 깊은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맞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21일 동안 반야심경을 외고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100일 기도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까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그 100일 기도가 이제 10회 되어 가죠. 지켜보며 격려하고 서로의 모습에 자극을 받은 것이 1000일 가까이 이끌어 준 거 같습니다.”

김 총무는 함께 이끌어 주는 도반이 있어 기도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했다.

전경희 자모회 회장은 “날마다 밴드를 통해 자신들의 수행 일기를 올린다. 서로가 보며 격려한다. 날마다 도반들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라니를 읽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안 받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자모회 세향 공덕회에서 만든 밴드에는 날짜와 함께 천수경 1독, 다라니 10독, 사경 쓰기, 절하기 등 다양한 수행 내용이 올라온다.

자모회 회원들은 수행을 통해 얻은 불자 가정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인성 교육에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 중2병, 중1병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사춘기가 오면서 절에 가자고 하면 그리 쉽게 따라나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쉴 수 있도록 보상도 해주고 모든 스케줄을 정리해 일요일은 절에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르쳤더니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아이들이 배려심이 깊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인성 교육은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

기도모임 ‘세향공덕회’ 조직해
수행도반으로 1000일 기도 탁마
고아원 청소 · 목욕 봉사 ‘회향’

전경희 자모회 회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다. 학교에서 왕따인 아이가 있는데 저희 딸이 그 아이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고 챙겨준다고 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정말 소중하다 생각되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수행은 나눔되어 ‘세상을 향기롭게’

자모회의 이런 활동은 자신의 자녀를 넘어 다른 아이들로 확대되고 나눔 봉사로 이어지고 있다.

전경희 자모회 회장은 “말 그대로 뒷바라지다”며 “자녀들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모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 가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절에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다. 법회팀, 문화관팀 등 많은 자모들이 노력 봉사를 하는 가운데 저희 자모들은 든든한 기둥처럼 모든 활동에 빠지지 않는다”며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림 어린이 법회 합창단이 초청받아 참여하는 행사만 해도 매월 1회에 달한다. 자모회 어머니들 대부분이 맞벌이로 바쁘지만 봉사에 빠지는 일이 없다.

김유미 총무는 “사실 아이들 활동은 곧 저희들 활동이기도 하다. 2월에는 졸업 정기 공연, 4월에 연꽃합창대회, 5월 봉축 문화 공연, 7월에는 캠프 봉사 그리고 가을에는 개산대재 등 돌아서면 또 행사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이어 “절 안에서의 활동 말고도 초청 받아 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하는 걸 세면 엄청 많다. 아이들 간식부터 옷 입히기까지 굵직한 행사에 모든 자모들이 힘을 모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자모회 회원들은 아이들 생일 파티, 매월 점심 대중 공양 봉사, 가정의 달 맞이 효 잔치, 봉축 불사금 조성 판매 봉사, 문화관 공연 스탭, 방송 음량 보조까지 곳곳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유미 총무는 “이번 가정의 달에는 노 보살님과 스님을 모시고 가든 파티를 열었다. 모두 손수 지은 음식이였고 선물과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면서 저희도 감격을 했다. 고생했던 마음보다는 다음에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말했다.

자모회 회원들은 100일 기도 회향 후 고아원인 성애원을 방문해 청소 및 목욕 등 나눔 자비행을 펼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에 염소 보내기 등 대외구호 활동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유미 총무는 “자모회 회원이 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함께 하니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다. 특히 심산 스님의 배려와 김경숙 소장님의 기획과 지도력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생명을 향해 가없는 자애를 키워나가라’

〈자애경〉의 한 구절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자비다.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 한 없는 자비의 물결이 온 우주를 덮길 발원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연꽃둥이들 부처님 생신파티

우리 연꽃어린이집은 제일 신나는 달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5월을 뽑는다. 물론 어린이날이 있기도 하지만 제일 큰 행사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다. 여느 때보다 연꽃어린이집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아이들이 더 손꼽아 기다리게끔 부처님 생일파티를 화려하게 한다.

부처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우리 연꽃둥이들은 우리끼리 약속한 선물을 곱게 들고 선물 안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쓴 부처님께 드리는 아주 멋진 생일카드를 넣어서 어린이집에 등원한다.

우리 연꽃둥이들이 부처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가장 멋진 파티복(한복)으로 갈아입고 가장 예쁜 마음과 가장 예쁜 미소로 등원해야 한다. 이날은 편식도, 등원하면서 엄마한테 떼를 부려서도, 친구들과 싸워서도 안 된다. 부처님 생일파티를 하는 날은 무조건 예쁜 말과 예쁜 생각 예쁜 행동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님 생일파티에 초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연꽃둥이들 80명은 우리 연꽃 어린이집 지원 사찰인 해평 도리사로 출발한다.

“원장 시님, 부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길에 연꽃등(燈)이 핀 것이지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부처님한테 물어봤지요. 내가요 부처님한테요 ‘부처님, 착한 일 많이 해서 100개 연꽃등 피었어요?’ 라고 물어보니 부처님이 웃으셨어요. 내가 또 물어보니 부처님이 ‘짜잔’ 하면서 등에 불을 켜주셨어요. 얼마나 예뻤다구요.”

“원장 시님도 연꽃등에 불 켜진 것 봤어요?”

“아. 우리 시우가 부처님한테 물어봐서 부처님이 연꽃 등에 불을 ‘짜잔’ 하고 켜 주신 것이구나. 난 몰랐네. 고마워, 시우야.”

으쓱해진 시우 어린이가 차 안에 친구들에게 사찰에서 보았던 연꽃등 점등에 대해 아주 신비롭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 우리는 도리사에 도착했다.

연꽃둥이들은 부처님 전에 집에서 가져 온 갖가지 선물을 올리고 자신들이 직접 고른 초콜릿 맛 또봇 캐릭터 케이크에 촛불을 키고 본격적인 생일 파티를 시작한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생신 축하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나니 허를 찌르는 질문이 이어진다. “원장 시님, 부처님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시대요? 나는 커서 멋진 또봇이 되고 싶은데.”

글쎄…. 부처님의 장래 희망은 뭐였을까? 다시 생각해볼 주제이다. 다른 아이는 부처님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플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



그림 · 박구원

이렇게 올해 부처님 생신파티도 아주 엉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끌벅적하다. 우리 연꽃둥이들은 부처님오신날 생일 파티로 집에서 각자 선물을 준비해 온다. 그 선물들은 모여서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올리는 선물은 양말부터 초코파이 때로는 예쁜 인형, 그리고 멋있는 로봇 스티커까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고른 선물과 공양미를 부처님 전에 올린 후 우리 연꽃둥이들이 아기 부처님으로 변신해서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컵등과 함께 전달해 드린다. 그러면 부처님 생신 파티를 마무리된다.

생일은 축하를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위에 사랑을 나누는 날이란 것을 우리 연꽃둥이들은 안다. 예쁜 마음을 나누는 이 마음들이 어른이 돼서도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계속 자라나길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분별없는 眞心이 법신보살의 발심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마음이 깨끗해진 지위인 정심지(淨心地)는 보살의 수행단계인 10지 가운데 처음 환희지(歡喜地)를 말한다. 이 환희지에서 마지막 10지 법운지(法雲地)까지의 수행과정에 있는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 부른다. 이 보살들의 발심은 법신을 증득하고 진심(眞心)을 드러내는 발심이므로 진여를 증득했다 하여 '증발심(證發心)'이라 한다고 본문에서 밝혔다. 증득이란 체험에 의해 증명한다는 뜻이다. 법의 몸 곧 진리의 몸을 얻었으므로 일으키는 행동이 진리 그대로 일치되는 이들이 법신보살이다. 분별의 경계에서 대두되는 객관이 사라지고 주객일여의 경지인 진여가 지혜 그 자체로 남아 있을 때, 이를 법신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신보살들은 어떤 한정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구현한 이 보살들은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방의 온 세계에 빠짐없이 도달하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한다. 본문에 '문자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고 몸소 실천적인 자세를 취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해 준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가지가지 많은 방편을 보여주지만 보살들은 누구나 발심이 똑같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진심 · 방편심 · 업식심이 법신보살 발심의 특징

것은 다같이 3무수겁의 수행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들이 처해 있는 세계와 환경이 다르고 보고 듣는 경계가 다르므로 보살들이 보여주는 행위도 그에 맞게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법신보살들의 발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분별하지 않는 참 마음으로 발심이 된다는 것, 둘째는 애써 억지로 인위적으로 중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잘 쓰는 마음이고, 셋째는 미세하게 일어나고 소멸되는 업식의 마음이다.

진심이란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보는 본각의 근본지를 말하고, 방편심이란 사물과의 관계에서 평등성을 발휘하여 실천적으로 닦아 완성시킨 구경각(究竟覺)의 후득지(後得智)를 말한다. 두 가지 지혜가 아뢰야식의 본식을 의지하는데 삼세(三細)의 미세한 단계인 전식(轉識), 현식(現識)의 과정을 생략하여 그냥 업식심(業識心)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 업식의 일어나고 소멸함을 말하는 것은 앞의 두 지혜가 일어날 때 이 업식이 미세하게 일어나 관계하므로 부처님 지혜의 순정(純淨)한 덕성이 발휘되는 것과의 차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 이 보살들의 공덕이 원만하게 성취되면 물질적 · 형상적(形相的)으로 가장 높이 완성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생각 자체가 지혜 그대로 일치되어 무명이 단박에 끊어져버린다. 이 때의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부른다. 이 지혜로운 보살은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하여 온 누리의 중생들을 이롭게 해 준다. 색구경처란 색계의 가장 높은 가장자리로 물질적 형태의 세계에서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여 색이 끝나는 곳으로 물질적 형태 안에 야기되는 모든 고통이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은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세계와 중생도 끝이 없는 것이며, 동시에 중생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의 차이도 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계를 정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의식활동이나 상상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주와 세계와 중생과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가짐과 행동 등을 철두철미하게 알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모든 대상의 세계는 본래 우리의 그릇된 의식에 의해 의식된 채 우리들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망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이것저것을 구별 지어 서로 대치시키기 때문에 마음 안에 분할하고 구분하는 등의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잘못 의식되어진 관념의 허위성을 떨쳐버리고 오직 탁월한 지혜의 기능을 발휘하여 온갖 방편을 베풀고, 중생들의 능력 정도에 알맞은 적절한 양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므로 이를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곧 일체종지라 한다 하였다.

보살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 넘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㉒ 보살이 걸인을 대하는 자세

如巨富人多饒財寶千子具足隨意恣與愛念歡喜。不及菩薩於乞者心大歡喜。菩薩見乞者時心大歡喜。勝於他人見所親者。若見前人得多財寶。隨心恣意而自[矛*合]高。菩薩見之倍生歡喜若見乞者發言時。菩薩施渴心重。耳聞乞言如飮甘露。若聞乞言心生愛重無能壞者。若聞具足則壞其愛心。菩薩於乞求者常生愛念。

(여거부인다요재보천자구족수의자여애념환희。불급보살어걸자심대환희。보살견걸자시심대환희。승어타인견소친자。약견전인득다재보。수심자의이자[모*합]고。보살견지배생환희약견걸자발언시。보살시갈심중。이문걸언여음감로。약문걸언심생애중무능괴자。약문구족즉괴기애심° 보살어걸구자상생애념。)

번역

가령, 큰 부자가 재물과 보물이 많고 넉넉하며, 천 명의 자식이 있어서 마음껏 주고 사랑하며 기뻐할지라도 구걸하는 이를 대하는 보살 마음의 큰 기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나니, 다른 친애하는 이를 만났을 때보다 뛰어납니다. 만약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은 재물과 보화를 얻어 마음에 하고픈 대로 하면서 스스로를 높여도, 보살은 보고 배나 기뻐합니다. 만약 구걸하는 이를 보거나 구걸하는 말을 할 때도 보살은 갈급한 마음으로 거듭 베풉니다. 구걸하는 말을 귀로 들으면, 단 이슬을 먹는 것같이 합니다. 만약 구걸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사랑을 거듭 내거니와 능히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만약, 만족하게 갖추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질지언정,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해설

보살의 마음은 자식을 위하는 기쁨보다 구걸하는 이가 만족함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더욱 좋다. 또한, 어떤 친애하는 사람을 만난들 자신에게 구걸하러 온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즐거울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물을 얻고 스스로 높인다 할지라도 결코 언짢아하지 않으며, 도리어 부유하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그러니, 보살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거나 구걸하는 말만 들어도 그 구걸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갈급한 마음을 낸다.

구걸하는 말만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으니 그 자비로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만족하게 갖추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으나, 구걸하는 이를 향한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난해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하게 갖추었다'는 본문이 구걸하는 이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삼자가 하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 듣는 이도 보살인지, 또는 제 삼자가 들었다는 것인지도 문장의 구조상 알기 어렵다.

다만, 제바라보살이 〈대장부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앞의 문장 등으로 나름 짐작해 본다면, 남들이 보살을 볼 때 보시의 마음이 만족하게 갖추었다고 말하고, 보살 자신도 만족하게 했다는 말을 남들에게 하게 될 때 사랑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즉, 보살은 보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한 생각을 품어 그만두지 않는 한 구걸하는 이를 향한 사랑이 무너질 리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보살은 보시하는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칠 수밖에 없으리라.

더불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살이 삼보께 올리는 감로와 다름 아니다. 내 본래 청정수와 같은 마음을 감로로 변화시켜 올리는 예경이다. 지극한 정성이자 불성의 발현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빈 못의 따오기처럼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도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고집과 집착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승(比丘僧)'은 독신수행승을 말함이다. 당연히 부양할 처자식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재산 따위가 따라다닐 일이 없을 터이다. 출가(出家)이전의 상속받은 재산과 모아둔 돈이 있더라도 출가와 동시에 사찰에 헌납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개운하게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 일이겠다.

그런데 문제는 출가이후 비구승의 신분으로 수행해오며 재산이 생기고 돈의 부피가 늘어난 사람도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하여, 조계종 소속의 사찰주지의 품신 서류엔 본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등의 일체 재산을 조계종단에 귀속시키고 사후(死後)에도 민 · 형사상 종단 재산임을 확인한다는 본인의 친필 사인이 담기도록 되어있다. 슬픈 일이다. 출가수행승이 개인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따위가 그림자라도 따라다닐 수 있겠는가?

신도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며 사찰을 짓고 포교당을 세운 능력 있는 스님이 있다고 하자. 그 스님이 짓고 세운 사찰과 포교당은 당연히 소속종단인 조계종의 재산으로 등록되어야하고, 남은 돈이 얼마이던 그 돈은 개인통장이 아닌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관리되며 때때로 그 관리내용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도단체에게 밝혀야한다.

설령, 어느 신도가 있어 개인적으로 재산을 주지 스님에게 개인용도로 주었을 경우에도 양심의 저울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만 사용하고, 남은 재산(돈 포함)은 종단에 등록된 사찰재산으로, 공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승려 생활이 직업이 될 수 없듯, 주지 생활로 개인재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상식이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청법회에 임하는 유명한(?) 스님들이 법회 후 설법의 대가로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찰이든 두툼한 봉투를 사양 않고 당연히 받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들에게 법보시(法布施)는 없고 입 노동 대가를 챙기는 속물 근성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장례기간이 닷새일 경우는 허다하고, 상여와 만장은 유교문화임에도 꽃상여 장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만장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고승의 가는 길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해 조문 온 신도와 스님들한테서 조문 방명록을 내밀며 현찰이든 봉투접수를 강요하듯 버티고 있는 풍경도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일들이다.

승려의 노후대비책은 모으고 숨겨놓는 비상금이 아니라 수행력이 근본이 되어야한다.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경전 중심으로 진리를 일깨워주는 법음(法音)이 울려 퍼져야 한다. 독신 수행승은 부양의무를 지닌 가족이 없으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집착을 벗어버린 자유인이 되어야한다.

수행승의 노후대책은 수행력에 있다
스님에게 개인 재산이 왜 필요한가

승려가 죽은 후 이 절(寺), 저 절(寺)로 옮겨 다니며 지내는 49재도 사라져야할 아름답지 못한 문화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중국불교, 우리나라의 이조 중엽에 이르기까지 승려의 49재 흔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49재의 의미가 가신 분의 뜻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것이라면 수행승은 수행자답게 떠난 뒤의 마무리도 개운하여 번거로움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고승일수록 사찰을 옮겨 다니며 일주일에 한 차례씩 재물을 차려놓고 재를 올린다니 부끄럽고 사라져야 할 배부른 행위이다.

비구승이 해마다 꼬박꼬박 생일상을 챙길 정도이니 승가(僧伽)의 세속화에 빈 못을 속절없이 지키는 따오기를 떠올리게 된다. 불교계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신도들이 실망해 나날이 줄어든다면, 물이 없는 빈 못이 될 터이다.

빈 못을 속절없이 서성이며 지키는 따오기의 처량함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길 바랄뿐이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마산 불광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131-2
- 법 명 : 혜천 (김유진)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서울 근교에 계시는 주지스님 읽어보세요!!

과목 :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타로카드

◆2016 정몽준의원 FIFA 회장 선거 적중
◆2015년 국운 분석 적중(현재까지 적중)
◆2014년 최대 이변 이정현 국회의원 적중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3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4년 국운 분석 적중(세월호 사건등)
◆2014년 박지성 선수 은퇴 月까지 적중
◆2013년 국운 분석 90% 적중
◆2012년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2년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외 9명 적중
◆2009년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월까지 적중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 4-5월 事故數(예언)
◆2007년 이명박 전대통령 적중

역(易)을 20년간 하면서 사주, 기문, 육임, 육효, 자미두수, 풍수 등 역의 전 분야를 공부하였으며 제가 필요한 사찰에서는 전화주시면 바로 찾아뵙겠읍니다.

■ 수 많은 사항들을 적중한 것은 土의 세밀한 分析과 정확한 用神법, 기문둔갑의 月運 분석이다.

■홈페이지 : 네이버, 다음, "인당명리" 검색하면 됩니다.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하기(홈페이지 참조)

인당역학연구소 010-2224-6310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21세기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지적 성숙과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불교특별강좌를 개최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제2분기 강좌 개설 기간 : 2016년도 6월 7일 개강 8주간 수업(월요일 수업은 6월13일부터)

▶ 개설강좌명 ◀

강사	강좌명	요일	시간	장소
이태승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이해	월	오후 7시~9시	본원강의실
최성규 이은희	실담범자의 이해 및 실습	월	오후 4시~6시	상동
김열권	불교위파사나 전통의 이해와 실천	수	오전 10시~12시	상동
유경자 최성규	불화(佛畵)의 이해와 실습	화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	상동

강사소개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 위덕대 겸임교수)
이은희 (동방대학원대학 학부과정 강사, 미술대전 특선 및 대상 수상)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원장, 위빠사나붓다선원 지도법사)
유경자 (한국미협 불교미술분과 위원장, 위덕대 박사과정)

수 강 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수강접수 : 2016년 5월 15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현대뜨레비앙 148

제11기 풍수건축 인테리어 전문가 과정 강의안내

집중력이 모이는 곳에 책상을 배치하고, 복록수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풍수인테리어의 핵심이며,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는 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강의 목적
한정된 터에서 풍수적인 논리를 적용해 복된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나아가 공간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조합하여 건강과 복, 록, 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강 대상
도시공간설계 및 개발담당 공무원, 부동산 거래 및 관리 담당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감정평가사, 조경설계 및 시공업자,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자, 부동산 컨설팅 담당자, 건축예정 일반인,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업자, **기타 풍수건축 및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개강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9일(일요일) 14시 경기도 광주시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교육기간 2016년 5월 29일 ~ 2016년 7월 3일 (총 6주차)
강의시간 이론 강의 : 일일 3시간(6회), 실습 평가 : 5시간(1회)
강 사 김 경훈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장,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명예이사장)
수강료 및 입금계좌 교육비 : 600,000원 (수강료, 교재비, 패철, 수맥 탐사봉비 포함)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모집인원 20명 이내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신청 및 문의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 031-798-4595 / 010-7314-5336

※ 자세한 사항은 http//:www.luckyfi.com의 〈개강예정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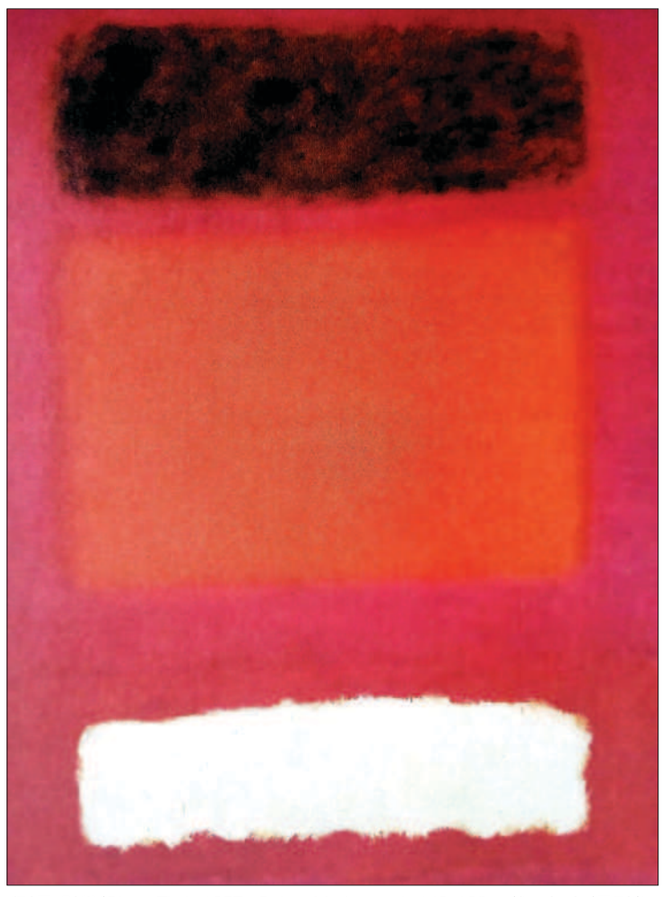
사단법인행운풍수지리학회 행운풍수지리학술연구원

비정형과 색채의 메시지… “관념서 벗어나라”

禪과 현대미술
⑩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마크 루스코의 대표작 〈빨강, 흰색, 갈색(Rot, Weiss, Braun, 1957, Oel auf Leinwand)〉. 색면의 크기 등으로 자신의 감정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제목 없음(Ohne Titel, 1957, Oel auf Leinwand, 143x138cm)〉. 속칭 ‘무제(無題)’ 다. 이는 작가의 의도를 관람객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대상의 형상이다. 대상이 사라지면 형상도 사라지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러시아 태생 · 미국 활동)는 한 시대의 커다란 변화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의 예술적, 정신적 가치는 유효하다.

러시아에서 출생한 그는 유대인 부모로 인하여 191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당시 러시아는 커다란 혼란 속에 있었으며 특히 유대인인 부모는 로스코의 미래를 위하여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며 명석한 로스코는 예일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그 후 뉴욕 아트 스튜던츠에 입학하여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젊은 예술가 로스코는 초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당시 뉴욕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의 작가들이 모여들며 새로운 예술에 대한 열정을 형성하던 시기였다.

새로운 시도는 용기와 창의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표현방식이나 재료, 기법 등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실험과 창의적인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한다. 젊은 로스코는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잘 간파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부터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하기 시작한다.

대상에 대한 로스코의 인식은 비정형성과 정형성의 관계성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상은 특정한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형상과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색면화 화가들의 형성에 많은 공헌을 한 로스코는 철학적 인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색면과 화가들의 미학적인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Ohne Titel, 1957, Oel auf Leinwand, 143x138cm)〉의 작품은 ‘제목이 없는 것’이 제목이다. 추상미술이 등장하면서 제목 없는 제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목이 없다는 것은 작가가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관람객에게 강요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정한 제목을 작품에 부여하게 되면 그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분명해 진다. 즉, 작가가 인지하고 말하고자하는 자신의 철학적, 미학적, 사회적 관점을 제시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러한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사라지고 보는 사람의 감정, 지식, 경험 등이 작품에 도입되게 된다. 때문에 보는 사람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은 비정형의 색면과 서로 약간의 간격을 사이에 두고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하며 새로운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색면의 크기가 각각 다르며 색면의 외곽 테두리는 확장성이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색면의 시작과 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색면들과 조화와 소통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색면과 충돌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존재성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존재성이 무너지면 자신의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은 명상적 관점에서 가능한 일이다.

로스코는 러시아에서 때어나 미국으로 이주하며 자신의 존재성 특히 유대인의 존재성에 깊은 애정과 더불어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유럽에 나치가 그 세력을 확장하자 로스코는 크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1938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이름도 마르쿠스 로스코위츠(Marcus Rothkowitz)에서 마크 로스코(Mark Rothko)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그가 경험했을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존재방식이 그의 예술이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대계 러시아인 10대에 美이민
2차대전 등 변화, 예술 통해 극복

비정형 · 정형성 사이서 감정 표현
시각적 자극 탈피하고 본질 추구
“자유는 내면 성찰서 비롯” 주장

예술은 삶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예술가가 살아 있으며 창작을 하는 순간은 존재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다 많다. 때문에 예술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삶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작가가 창작하는 작품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철학적 관점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존재방식이다.

로스코 역시 젊은 시절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때문에 초기 작품들은 사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실현시켜 나아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1940년대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로스코의 삶의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어느 정도 성숙해 지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ot, Weiss, und Braun, 1957, Oel auf Leinwand 252.5x207.5cm〉는 로스코 작품 중에 대표작이다. ‘빨강색, 흰색, 갈색’으로 제목을 붙인 이작품은 자신이 경험한 나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하는 강한 의지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열망과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 뉴욕에 정착한 로스코는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깊은 성찰을 하며 동양의 선(禪)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그의 인식의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작품에 나타나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로스코의 집약된 인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두운 갈색에서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색면의 배치는 자신의 삶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본능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색면의 크기와 색상의 변화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밑부분의 흰색은 면적은 가장 작지만 색의 강도는 가장 강렬하다. 이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추상주의 화가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당시에 추상주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며 각각의 개념들을 표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로스코는 본질적 존재의 하나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추상표현이 철학적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고정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는 것을 지켜본 그는 자신은 그들과 다르게 인간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두려움, 공포, 연민, 사랑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이 화면 속에서는 색채로 변화하여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색상의 크기와 색상의 위치, 표현방법 등이 감정표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난번에 살펴본 뉴먼의 작품들은 절제된 감정을 커다란 화면에 분리하여 표현하였다면 로스코는 절제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로스코가 선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느낀 감정들이 이 작품에 잘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공포 역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로스코는 오랜 시간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가운데 접하게 된 선사상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로스코의 작품을 본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커다란 화면에 그리다 만 것 같은 표현들과 강렬한 색채들이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관객의 관념적 사고 때문이다. 작품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작품들을 대하기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마치 연습생이 그리다 만 것처럼 일정한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스코의 작품들은 시간이 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로스코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는 많은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작품들은 그의 분신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추상미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작가이다.

추상미술의 발달이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동시대에 일어나는데 이는 시대적인 변화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기인한바가 크다. 또한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시대적 아픔을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역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고자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하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나서 본질적 존재와 가치를 찾아가는 로스코의 작품들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간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한 부분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준 소중한 그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란 생각이 든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平常心是道' … 색으로 빚어낸 中道의 미학

동양화가 이왈종 화백 '제주생활의 중도' 전시회

〈선문염송(禪門拈頌)〉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한 승려가 마조도일에게 어떤 것이 도인가를 물었다. 이에 마조도일은 "평상심이 도(道)"라고 답했다. 이는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없고 그 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제주생활의 중도'라는 단일 주제로 27년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왈종(71, 사진) 화백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가르침을 여실히 작품 안에서 구현하는 작가다.

이 화백은 제주도의 이국적 정취와 풍광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 낸다. '중도의 미학'을 관통하는 이 화백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개인전이 오는 6월 12일까지 서울 사간동 현대화랑에서 개최된다.

4년 만에 열리는 이 화백의 전시회에는 회화, 한지부조, 목조, 도자기 등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총 세 공간으로 나누어진 이번 전시는 1층 전시장에서 선별된 '제주생활의 중도' 회화 6점과 목조 1점이 선보이고, 1층 안쪽 전시장에서는 한가로이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중도를 그리는 회화 7점과 목조 작품들로 구성된 공간이 마련됐다. 2층 전시장에서는 작은 호수의 회화작품들이 화려한 색들과 맞물려 다양한 제주의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 화백은 '생활 속에서', '생활의 중도' 연작들을 통해 기존의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제주에 정착하며 '제주생활의 중도'라는 단일 주제로 작품을 계속해왔다. 일률적인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화백의 화두는 '중도'다. 이 화백의 '중도'는 분별없는 평상심이다.

이에 대해 이 화백은 "중도란 평등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평상심에서 시작된다"며 "마음의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일고 있는 양면성을 융합시켜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주체나 객체가 없고 크고 작은 분별도 없는 절대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화백이 추구하는 '절대 자유의 세계'는 그의 작품 안에서 다양한 제주의 풍광과 인간 군상 그리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된다.

6월 12일까지 서울 현대화랑서
회화·한지부조 등 작품 30점 선봬
4년만의 전시… 작가 역량 총망라

"중도는 내 안의 평상심서 시작
주체와 객체 없는 대자유 추구"

그가 펼치는 작품 안에서 '중도의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일상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펼쳐진다. 남편과 밥상에 마주앉아 잔소리를 늘어 놓는 아내, 짝 지어 노닐고 있는 사슴, 개에게 밥을 주는 사람, 열중하여 골프를 치는 무리, 나뭇가지마다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소소한 일상이다.

이 같은 작품 세계에 대해 김종근 미술평론가(홍익대 겸임교수)는 "'생활 속의 중도'에서 '제주생활의 중도'로 주제가 크게 확장되면서 하늘을 나는 물고기, 집보다 더 큰 꽃 등 시각적 형식이 변화했다. 어느 것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크게 그려지기도 했다"면서 "이 화백은 인간과 만물은 물고기나 새처럼 하나의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물이 더 작을 필요도 없고 동등하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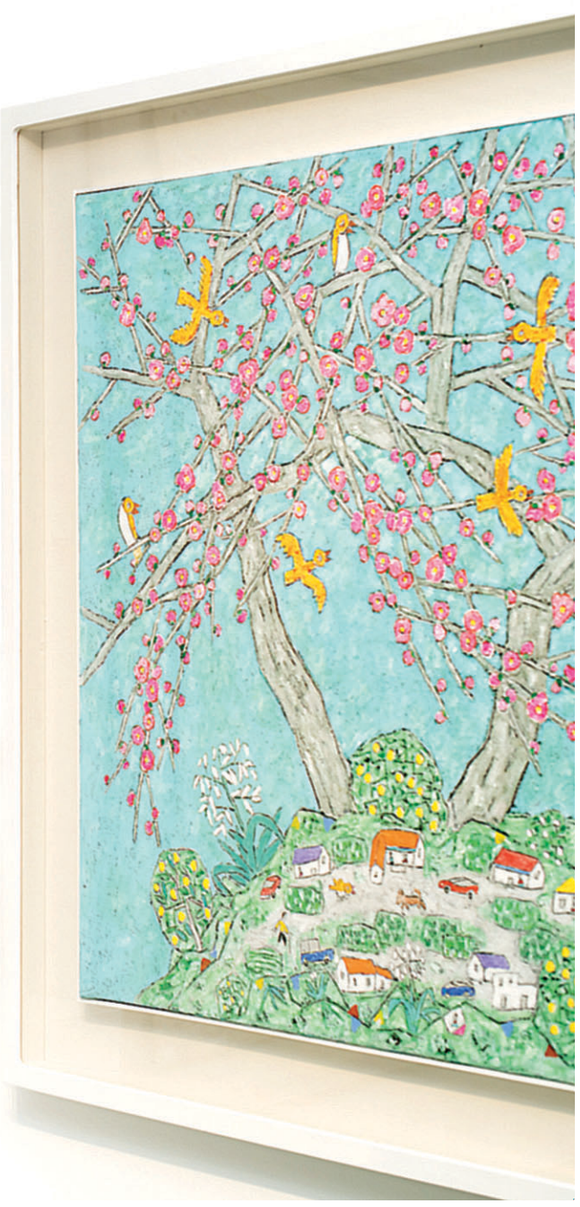
올해로 27년째에 접어드는 이 화백의 제주도 생활은 그가 걷고자 하는 중도의 길 그 자체이다. 2013년 건립된 '왈종미술관'은 개원 후 부터 10여 년 이상 꾸준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교실도 열어 봉사한다.

베풀고 나누며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화가 이왈종은 '중도적 삶'을 이렇게 노래한다.

"존재하는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며, 또한 그림자와 같다는 법문이 실감난다. 몸과 마음속에서 악취 나는 것을 씻어내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에서 이뤄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하얀 종이 위에 담는다." (02)2287-359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왈종 화백이 서울 사간동 현대화랑에서 열리는 자신의 전시회 작품인 '제주생활의 중도' 연작 시리즈와 함께 하고 있다.

유심작품상에 곽효환·김호길·이도흠·이영춘

만해선양회, 14회 결과 발표
8월 11일 만해축전서 시상식



곽효환 시인



김호길 시조시인



이도흠 교수



이영춘 시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유심 작품상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23일 "14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곽효환(시인) △시조 부문에 김호길(시조시인) △학술 부문에 이도흠(한양대 교수) △특별상 부문에 이영춘(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부문에 선정된 곽효환 시인의 수상작은 '마당 건너다'로 그 옛날 한국의 가정에 빈번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지해 왔던 저녁 그림을 미려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조 부문의 김호길 시조시인은 '모든 길이 꽃길이었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단은 김호길 시인의 시조에 대해 "우리는 '지나온 모든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척박하고 비정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환경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회가 순화와 승화의 시간을 건너 응결된 사리 같은 잠언시"라고 평했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로 학술 부문 수상자가 됐다. 올해 원효학술상 특별상에 이은 쾌거다.

심사위원단은 "마르크스가 주로 사회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원효는 일심(一心)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해 사회를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서 "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와 사회를 온몸으로 껴안고자 하는 실천적 지성의 모형을 학자적 삶의 영역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수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영춘 시인은 후학 양성과 지역 문단 활성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이영춘 시인은 문학의 불모지였던 춘천에서 1974년부터 〈삼악시〉 동인의 창립 맴버로 그 지역에 문학의 혼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작품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은 오는 8월 11일 만해축전 기간에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산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답다

불일미술관, 6월 12일까지 박정훈 사진전

산은 오르는 과정이 의미도 있지만, 멀리서 조망하는 것도 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 산이 가지는 원경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 법련사 산하 불일미술관은 오는 6월 12일까지 박정훈 사진작가의 사진전을 개최한다. '먼 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자연의 장엄과 아름다움을, 특히 우리네 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정훈 작가는 "우리 산능선의 아름다움을 찾아 꽤 헤매었다. 산을 촬영하기 위해 절과의 인연을 맺고 스스로 산주(山主)라 여기고 이산 저산을 너머 농담 짙은 산을 촬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산은 먼 산 바라보듯 해야 제 맛이다. 먼 산 보듯 눈길을 풀어놓으면 바로 걸어온 궤적이고 일상이 됨을 차분하게 응시할 만하다"고 말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박정훈 사진작가의 작품 '먼 산'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법민스님의 산사음악회 CD 발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업보·님이오는 소리·상념 등이 있다.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 산 불 원
051-231-6455 / 010-9049-0016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5.18~2015.5.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6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7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툽텐최된	불광출판사
8	혜총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혜총	(주)조계종출판사
9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10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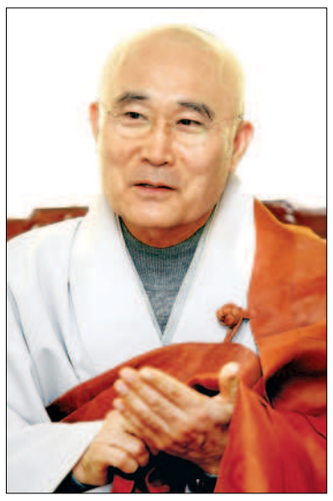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Q : 우리에게 내재된 빛 꺼내는 법은? A : 지장기도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글 지원스님, 그림 양선희 | 민족사 펴냄 | 1만원





스토리 따라 사경, 사불 기도
"좋은 말하고 잘 경청 하라"
지장기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시

포교의 달인인 前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이 지장기도에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이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경전을 베껴 쓰고(寫經) 그림을 따라 그리며(寫佛)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획 했다.

이 책은 지원 스님의 글과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양선희 작가의 그림이 조화를 이뤄 읽기 편하게 구성됐다.

삶의 지혜와 행복을 열어주는 잔잔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고, 지장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본문 중간 중간 손으로 쓰기(寫經), 마음으로 그리기(寫佛) 등이 등장, 스토리를 따라 사경하고 사불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지원 스님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언어로 서술된 '날마다 행복을 만드는 비법' '지장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법',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법' 등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전통불화의 맥을 이으며, 21세기 불교회화의 새 지평을 여는 양선희 작가의 불화를 따라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된다. 지원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을 떠나자'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려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지원 스님은 '지옥 중생을 다 구원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력을 지니신 지장보살님께 채널을 맞춰 기도하면 고통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안온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이번 책 속에는 지장신앙 도량인 양주 육지장사를 창건한 취지가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수십 년 전 사경을 헤맬 정도로 깊은 병고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몸 바꿔서 다음 생에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법을 닦고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대로 기도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지장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일심으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완쾌되었습니다. 그 후 천 일 지장기도를 하고, 육지장사를 창건하게 된 것입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병고(病苦)를 겪을 때 지장기도를 통해 완쾌됐고, 천일지장기도 후 육지장사를 창건했다는 스님의 진솔한 기도 체험담 또한 이 책과 지장기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돼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릴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경전을 베껴 쓰고 불보살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밝고 건강하다는 것을 속삭이면서 기도하라고 스님은 당부한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온 정성 다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그리면서 기도를 하면 무한한 빛이 솟아난다고 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 마음과 운명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지원 스님의 기도법과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드는 비법은 특별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들이다. 스님은 상대방의 모자란 것을 탓하지 말고 그의 모자람을 기꺼이 채워주라고 말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에 도움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갚을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성공에 부쩍 다가설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행복 비법이라며 미소 짓는다.

또한 지원 스님은 아름답고 기쁜 순간만을 기억하고 밝은 마음으로 환히 웃으면서 지장기도를 하면 그 가피가 무한대로 확대 재생산된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강조한다. 아울러 '말에도 씨가 있다' '좋은 말을 반복하면 행복의 씨앗이 싹튼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잘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복의 비법임을 밝힌다. 한편 '나'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마음의 방해물임을 일깨워주면서 기도야말로 집착의 고삐를 놓는 방법임과 동시에 나와 가족, 이웃, 친지,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한다.

휴식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기도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책에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지장기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고, 지장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장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법, 지장기도의 공덕, 지장기도 영험담, 갖가지 지장기도는 물론이고, 사경과 사불의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지원 스님은 "지장보살의 중심사상은 효(孝)입니다. 지장보살의 전신인 소녀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땅속에 몸을 가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스님은 우리 모두 지장보살의 화신임을 강조하면서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알려 주는데, 효를 첫손에 꼽는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 해마다 노인자살률이 심각할 정도로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서 스님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교에서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사람 모두가 전전생의 부모였거나 미래의 부모요, 한 몸, 한 뿌리임을 강조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서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준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비의 꽃을 활짝 피우고, 사랑의 꽃으로 만물을 품으며, 정성의 꽃으로 이 세상을 장엄하라'는 것을 실천할 때 참고 견뎌야 하는 사바세계인 이 땅이 지옥서 극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이 책서 이끌어주는 대로 읽고 쓰고 그리면서 지장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장보살의 가피로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이 가지는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지원 스님은?

설악산 백담사서 출가했으며, 197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으며, 제 9대 · 14대 · 16대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1983년 서울 은평구에 삼보사를 창건해 도심포교의 모범을 이뤘으며, 2006년 경기도 양주에 육지장사를 창건해 수행 기도도량으로 일구었다. 이후 조계종 포교원장, 호계원장을 지냈고, 동국대서 석사 ·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 저서로 시집 〈장명등〉,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 〈지원 스님의 100세 건강법〉 등 다수가 있다.

김진태 前 검찰총장이 천천히 공들여 읽고 음미한 옛 시문(詩文)의 향연들

흘반난, 밥먹기 어렵다

김진태 지음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이 책은 원래 검찰을 떠나면서 짐을 챙기던 중 혹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책상 위에서 나뒹굴던 시문을 한데 모아 퇴임식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인쇄를 하게 되었고, 그 기회에 몇 사람을 추가하고 내용을 다듬었다."

저자인 김진태 검찰 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직에서 퇴임했다. 법(法)과 시(詩) 사이는 멀어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으로 자칫 메마르고 관성적으로 흐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그는 시로써 다스리고 사색의 깊이를 더했다. 저자는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뒤 가진 첫 간부회의서 소동파의 시가 적힌 종이를 나눠줬는데,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건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이라는 뜻을 시로 전달해 화제가 됐다.

인생의 굽이마다 찾아온 옛 글 126편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시와 문장 126편과 여기에 저자의 짤막한 소회를 덧붙여 구성된다. 최치원, 두보, 이백, 원효, 소동파, 이황, 조식, 측천무후, 임제 등. 역사의 굽이굽이에 살다간 사람들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선택하고 포기하며 쏟아낸 시문들이다.

여기에 지은이의 삶과 역사적 행보, 정치적 풍경 그리고 저자의 감상을 녹여냈다. 인물의 업적이나 과오를 따지기보다 당시 현실에 이입(移入)하여 최대한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이해하려 한 것이다.

"어떤 존재라도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하려 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자연을 노래하고, 세상을 논하고, 사랑에 설레고 애달파 하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선인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정회를 새삼 깨닫게 한다.

세상사 밥 먹는 게 제일 어렵다

책 제목인 '흘반난(吃飯難)'은 밥 먹기 어렵다는 뜻이다. '밥'은 생존과 직결된다. 인생은 알고 보면 밥 먹고 사는 여정에 다름 아니다. 세상에 밥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웃는다. 법조인인 저자는 세상의 축소판인 법정서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을 것 같다.

이 책에 실린 시와 글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밥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권력에 밀려나 유배를 떠나고, 아침엔 친구인 이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 세상을 버리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 방랑하는, 인간사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읊은 시는 이들이 결코 암울함이나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산과 꽃, 강물과 바람, 새와 달 등 머문 곳에서 만나는 자연에 마음을 빗대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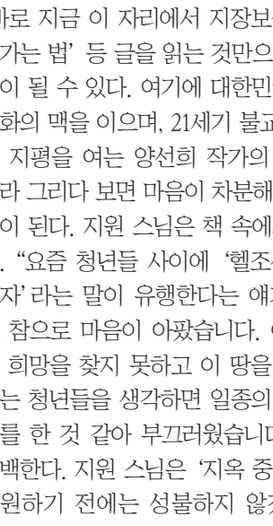
두통약 대신 시 읽기를 권유하다

옛글을 읽는 재미란 무엇인가. 선인들이 글짓기를 통해 '밥 먹고 살기' 힘든 삶을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헤아렸다면, 시를 읽는 우리는 그 마음에 이입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 시 읽는 재미가 있고 저자는 설명한다.

고려 때 선비 임춘은 가난과 실의 속에 시를 쓰며 위로 받았는데, "나는 곤궁하면서도 시 또한 잘 짓지 못한다"며 애석해하기도 했다. 시 한 편의 힘은 이렇듯 크다. 천 년 혹은 수백 년 전 선인들이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시 한 편, 글 한 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밥 먹기 힘든 세상 덜 외롭게, 좀 더 힘을 내서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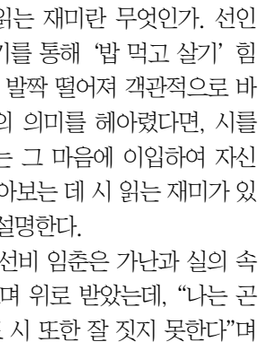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英 유명 성당서 불교 수행을?

요크 대성당, 지난 2년 간 불교 수행 수업 실시

격주 금요일마다 20여명 참여
대성당 내 한 방서 명상 수업
참사회 의장 크리스토퍼 첫 시작
"'이중 종교' 시대란 것 인정해야"
보수파 반발 거세 향후 계획 눈길



영국국교회 '요크 대성당'은 지난 2년 간 불교 수행법의 하나인 '선 수행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진출처=telegraph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자치주 요크(York)에 위치한 영국국교회 성당 '요크 대성당(York Minster)'이 기독교 복음주의 보수파로부터 맹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요크 대성당이 중세 대성당 구역서 불교의 선 명상을 허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국 신문 'The guardian'은 5월 17일 "요크의 대주교 존 센타무(John Sentamu)는 불교와 공존할 수 없는 그 구역(성당)서 격주로 불교의 침묵 명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 관련, 신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 수행 그룹은 대성당의 한 방에서 2년 동안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격주 금요일마다 20여 명 사람들이 90분 동안 명상수행에 임한다. 그러나 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대성당 내부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종교와 철저히 분리돼 있다.

요크의 주임 사제 비비안 포울(Vivienne Faull)은 "명상 수업은 기독교인 및 일반인들에게 선 수행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과 선 수행의 적합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명상 수업은 요크 대성당의 참사회 의장 크리스토퍼 콜링우드(Christopher Collingwood)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크리스토퍼는 스스로 '이중 종교인'이라 일컬으며, 불교의 선 수행 명상을 배워왔다.

크리스토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완전한 이단자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단지 선 수행 자세가 매우 불교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외에 우리는 선 수행을 하면서도 종교적 교리나 신앙을 요구하지도,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종교가 아닌, 이중 혹은 다중 종교를 갖는 추세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주의 보수파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난색을 짓고 있다.

잉글랜드 크리스트교 총회(England's general synod; 영국 국교회의 최고 기관) 소속 안드레아 미니치엘로 윌리엄(Andrea Minichiello Williams)은 "불교는 유신론이 기본인 기독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두 종교를 융합시키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이런 사태가 국가의 최고 성당에서 일어나고 있단 것을 각성하고, 요크의 대주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는 교회의 기도법을 장려하려는 기독교의 계획을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선 수행은 스스로 참구(參究)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에 대해 'The guardian'은 "최근 10년 간 '마음챙김명상'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선 수행은 서양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명상센터가 건립되고, 이들은 불교교리가 아닌 영적 마음챙김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中·印 '녹야원' 공동 발굴 작업 착수

중국사회과학원 "2020년까지 발굴 및 안전관리 진행"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도 바라나시 인근에 있는 불교 4대 성지중 하나인 사르나트 유적 조사를 인도 고고학자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중국국제방송

중국과 인도 고고학자들이 공동으로 불교 유적지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국제방송(CRI)는 5월 24일(현지 시간) "중국 사회과학원은 인도 바라나시 인근 불교 4대 성지중 하나인 '사르나트 유적' 조사를 인도 고고학자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유적지 발굴 작업을 비롯해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녹야원(鹿野苑)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성도(成道)한 후 처음으로 설법한 장소다. 현재 이곳에는 건물이 없으나 굽타 시대에는 벽돌구조의 고층탑 건축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더스 문명 정착지에 초점을 맞춘 발굴 조사도 인도 뉴델리 서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국제방송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고고학적 기술과 3D 원격 감지 센서 영상 시스템을 적용해 유물들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국제방송은 "인도와 중국의 불교는 오래전부터 교류해 왔다. 서기 620년대 중국 현장 법사가 인도로 떠나 나란다 사원에서 불교연구에 힘썼고 불교 경전과 불상을 갖고 시안(西安)으로 돌아왔다. 이후 당 태종의 후원을 받아 경전을 번역,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도 저술해 서역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힘썼다"고 보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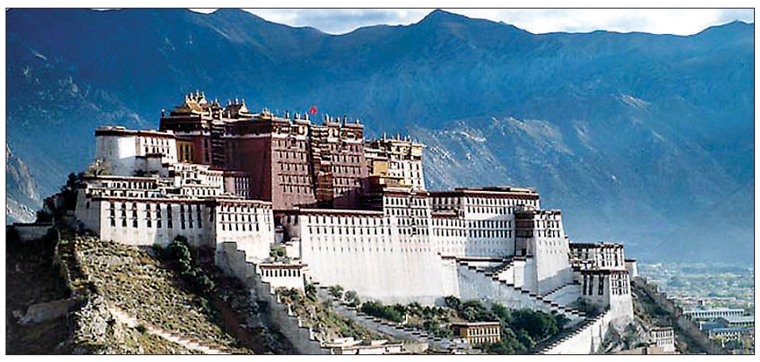
부처님께 합장한 오바마 美대통령

미국의 건국이념은 개신교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신교 국가로 봐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는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도 잘 나타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에는 호치민 시의 불교 사찰 복해사(福海寺)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의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WorldBuddhist SanghaYouth' 페이스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세계 불자들이 찾는 성지 8곳은?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 세계 불교 성지 소개



티베트 '포탈라 궁' 모습. 사진출처=mjjq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Asia one)은 인도 · 네팔 외에 티베트, 동남아 불교 국가 등 불자들이 순례하는 세계 곳곳의 불교 성지 8곳을 소개했다.

네팔 룸비니

'룸비니'라는 이름은 오래 전부터 붓다가 태어난 곳의 지명이라 알려져 왔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몇 세기 동안 미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19세기 말 독일인 고고학자 알로이스 퓌러 박사가 돌기둥에 새겨진 고대 비문을 해독하면서 붓다의 출생지인 것이 밝혀졌다. 기원전 3세기 아소카 황제가 이곳을 방문해 기둥을 세우고 붓다를 찬양하고 자신의 방문을 기념했다.

기둥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평화로운 신성한 연못인 '푸스카르니'가 있다. 붓다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출산 전 몸을 씻고, 태어난 아기를 처음으로 씻긴 곳이다.

인도 부다가야

부다가야엔 아소카 왕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운 '마하보디 사원'이 있다. 초기 불교 사원 가운데 하나로는 드물게 건물 전체가 벽돌로 이루어졌다.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티베트 포탈라 궁

포탈라 궁은 티베트 전통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해발 3600m의 홍산(紅山) 기슭에 요새 모양으로 지은 고층 건축군이다. 토번(吐蕃)왕 손챈감포가 축조했다는 홍산궁전(紅山宮殿)의 자리에 달라이라마 5세가 17세기 중반 건설했다.

외관 13층, 실제 9층으로 전체 높이 117m, 동서 길이 360m, 총면적 10만㎡에 이른다. 벽은 두께 2~5m의 화강암과 나무를 섞어 만들었다. 건물 꼭대기에는 황금빛 궁전 3채가 있고, 그 아래로 5기의 황금탑이 세워져 있다.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다

아누라다푸다는 스리랑카 최대 불교 유적이 있는 곳으로, 기원전 437년에 건설됐다. 8세기 까지 싱할리 왕조의 수도였다가 타밀인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것을 19세기 중엽 영국인이 다시 찾아냈다. 옛 수도였을 당시의 큰 불탑과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보리수나무와 관련 유적들이 있으며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

'쉐(Shwe)'는 금(金)을 의미, 쉐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된 다곤의 불탑 사원'이란 뜻이다. 2500년 전 부처님 생존 당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머리카락을 얻어와 이곳에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라오스 전통양식의 건물과 수많은 사원들이 밀집해있다. 또한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국적인 건물들이 조화된 곳으로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08년에는 뉴욕타임스가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한 바 있다.

태국 왓 프라탓 도이수텝

태국 치앙마이서 서북쪽으로 15㎞ 떨어진 지점에 있다. '왓 프라탓'은 부처의 사리가 안치됐다는 뜻이다. 1383년 수텝 산 해발 1,000m에 지어져, 태국의 사원 중 가장 전망이 좋은 사원의 하나로 꼽힌다.

300개 계단을 오르면 '황금 대형 불탑'을 만날 수 있다. 란나 왕조 시절, 부처의 사리를 운반하던 흰 코끼리가 스스로 수텝산까지 올라 그 자리서 울고 탑을 3바퀴 돌다 쓰러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당시 흰 코끼리가 운반해 왔다는 사리가 불탑에 안치되어 있다.

베트남 엔뚜

엔뚜는 베트남 불교의 죽림 선종파가 탄생한 곳이다. 또한 '여기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속설이 내려져 오며, 고대 사찰과 수많은 탑, 풍요롭고 신비로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관광지로 유명하다.

매년 음력 1월 9일에 시작해 3월말까지 계속되는 '엔뚜 불교봄축제'는 베트남 북부지역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축제 때마다 하노이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400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이보형 객원기자

영반 도경스님의 실전 靈盤구성학 부산강의

구성통변! 들을 때 뿐 통변이 안 됩니까?
점사에 말 문이 막혀 자신이 없습니까?
손님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구요?
구성학의 맹점을 해결한 영반구성학은 !!!
문점자를 보는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문 여는소리,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는순간 통변이 가능하고 잘 맞습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점사가 가능합니다.
교육 후 통변이 안 되면 재 수강이 가능 합니다.

구성점사를 단순히 숫자로만 통변 한다면
말문이막히고 전문 통변가가 되지 못합니다
각 궁에는 기가있고 영체가 있으며 들고 나는
숫자 역시 영성에 의해 움직이므로 단순히
숫자의 자리이동이라 생각한다면 점사가
막힙니다.영성의 감각 기관을 깨우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장소
부산 사하구 괴정동 194-43
(051) 206 - 3488

협회등록번호 제0189호
대한靈盤구성학협회

구성학 전문가가 만든
핸드폰용 구성학 앱 탄생!

구성학앱설명
구성학 앱은 핸드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써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 없이 구성영반이나 사주명조, 만세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프로그램 입니다. 스마트폰용 구성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구성학앱의 기능
구성 수 를 오행색상으로 구분되어 상의가 쉽게 연상되게 하였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스마트폰에 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를 색으로 표현하고 시간을 영반과 같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성포국은 년월반,월일반,일시반 등을 보기 쉽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본명반은 각 궁의팔괘 및 상의를 표시하여 통변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구성학앱 다운로드 방법
핸드폰에 있는 앱 스토어에서 구매설치 하며 앱 스토어를 실행시킨 후 구성학앱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가격은30,000원이며 한번구매 이후 추가 비용 발생없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학 앱 실행시 오류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http://cafe.daum.net/gusungapp)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무법인등록 204-82-76850
禪 대한불교조계종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만큼 작은 종단입니다.
도반이나 사형사제처럼 지낼분만 모십니다.



禪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입문,종도 모십니다.
문의:(051)206-3488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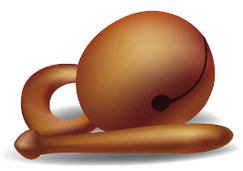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비구,비구니스님, 불자님께

소승은 20여년간 부항, 사혈, 지압으로 신경통, 위장병, 대장염, 혈액순환장애, 초기중풍,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완치한 경험이 많습니다. 인연되는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북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9 선향선원 신흥사 선 문 합장
054)434-2452. 010-3550-0132
e-mail : chadhyun@naver.com

문산역 파주역 10분거리
조용한산사에서 휴양,
기도하며 사실 분
승려가 되고자하는 분(남,여).
포교사 법사님 재가단체 환영.
교양대학 운영하실 분 환영
010-2344-7304

기도스님 구함. 절에서 심부름하고 공부할 행자구함. 컴퓨터 전산 가정교사 구함(사찰)

(부산)
010-3840-4355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비구 부전 스님 잘 모십니다

(세수 62세이하)
예불은 기본만
010-3499-3721
010-8514-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행자승

(불교에 입문하실)
을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울산)
010-3034-2113

주지 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한 절을 도와드립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법납 40세 비구스님
010-7629-134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지역)
010-5269-9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암자 처사(기사)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 성남)
010-5264-8312

신통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방법과 특수한 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호국종찰)
대중이 총 5명으로 한가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041-734-8730 /야간 010-4733-8400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불교교리,사경,염불습의,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의 : 010-5228-787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松 根 油
송 근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 수능엄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 위 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 일부 주거지
- 건 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6억 8천

연산공인중개사 051-863-6622
제 26320-2015-00027호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제천시 도심사찰 시세이하 양도함
- 토지 250㎡, 법당 48㎡, 요사채 59㎡
- 중심지역사찰, 융자가능함, 주변유동인구 많음
- 시세이하 1억 3천만원 (구입 1억 6천만원) 융자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1700평 ◎ 대지 : 55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외평 ◎ 요사 : 40평
◎ 양도 : 37억5천 ◎ 양도 : 10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상동면 산속의 사찰
- 총부지 : 3,795평
- 주차장 : 70대 이상 주차가능, 대형버스진입
- 건물 : 법당, 요사채, 삼성각, 용왕각, 종각
- 요양원도 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 11억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중랑구(급)사찰

- 양도 5억 2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
- 2층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 역세권, 전망좋은 사찰
- 뒷편은 산이고 옆으로 산책로가 있음
-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 욕실, 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월출산 국립공원(내)
- 법당, 요사, 와가, 목조건물 2동
- 산신각 1동, 토지, 임야포함 1천평
- 계곡있고 경관좋음
- 시내차로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26-9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3천5백만원, 월7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별장식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 아차산역 5분거리
- 인체리어 잘되어 있음. 건강상 급안내
- 약50평(2층,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베란다, 화장실2개
-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약사) 동불임
- 탱화는 후불탱화, 지장, 신중,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법당만도 가능. 상담 후 결정
- 불교행사 편하게 할수 있는 절
- 가액 : 2,500만원, 월 160만원

010-2333-300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없음

010-3742-5925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서울까지 60~40분 소요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포교원,사주카페,별장
- 가액 : 실입주금 3억 (융자 1억 5천)

010-4234-2536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농장 (급) 안내

- 위치 : 보은읍 용암리 산아래
- 대지 1,570㎡ , 전 860㎡
- 축사 413㎡ 관리사 77㎡
- 방2, 거실, 욕실, 경동자동온수기(대)
- 2차선접, 한우사육, 양봉, 절 가능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074-307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총 82평 (반은 요사채, 반은 법당)
- 삼존불, 인등
- 법당에 모든것 갖추어져 있음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1,000만원 월 30만원

010-4741-3446
051-542-4848

암자 (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4천

010-3305-4559
010-9004-72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소답동 (구) 39사단 맞은편
- 위치 매우 좋은곳입니다
- 4층 중 3층 , 60평
- 가액 : 3천 월60만원 (조정가능)

010-4568-157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400만원

010-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10분거리
- 대지80평, 2층법당 15평
- 1층 요사채 27평 창고 20평 방1칸
- 대중교통시내버스
- 가액 : 1억 6천5백 대출 4천만원 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2282-888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의창구 도심 사찰
- 교통, 경치, 생활 방편 양호
- 슬라브 지붕 토기와 올렸음
- 법당 601호 33, 56평 단청했음 602호 요사채 26평 6층 전체사용
- 도시가스, 심야전기, 수도 직수, 지하주차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48-766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양산시 장터4길 (남부시장 내)
- 5층건물중 2층 약 80평
- 삼존불외 모든시설 완벽함
- 포교하시는 스님들께 최고의 요지
- 가액 :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정가능)

010-2585-5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대운산자락에 대단지 타워형 고급아파트
- 33평으로 베란다 확장하여 공간이 넓고 전망좋으며 주변환경이 쾌적하여 포교원력을 갖추신 비구니스님께서 토굴삼아 안거하시면서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아담한법당 장엄되어져있고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854-810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4370-007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황금동 황금시장 앞
- 법당 삼존불, 약사불
- 1, 2층 합 50평
- 가액 : 1억 3천

010-9375-2747

전원주택지 명당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대지 : 255평, 황토방과 가건물
- 특징: 호수와 계곡이 인접한 정남향 명당, 토굴과 공방 전원주택 최적지
- 애착을 가진 땅이나 이사관계로 긴급 처분
- 가액 : 1억4천(상담후 조절 가능)

연락처 010-5598-2732
010-9943-222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기길
- 불사 및 노후보장 좋은 절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삼존동불, 인등 300등
- 전법수행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또는 전세 1억 2천 가능

1899-1042
010-3679-108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부시외버스 정류장 부근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영단 소불 냉,난방
- 조명 음향 시설 등 완벽 약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안내 방문 후 조정 가능

H·P 010-2500-15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영해면
- 대지 300, 전 45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8천만원 (새마을금고융자 3200만원)
- 사찰에서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대진해수욕장10분거리 (답사후 가격 절충가)

010-4747-3164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1〉 수행 여정의 시작 ㊥

거짓 없는 깨달음, 결코 부서지지 않으리



가슴속에 달을 심다

전사가 되어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살아왔고 자신을 보는 것이 끔찍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실과 마주할 뿐입니다. 정직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에 대해 진실 되게 직시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정직해지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깊은 수준의 진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을 때 드디어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좀 더 단단함을, 좀 더 진짜를, 어떤 종류의 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성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자신에 대해 진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고한 실제(real) 자기라는 진짜(true) 자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실 되게 보게 되면, 시작되면서 사라지는 실재의 개념만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보게 될 때, 조건 지어지지 않은 좋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더 큰 지혜의 현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든 박식하든, 당신은 실재의 본성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도록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깨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참된 자기 자신과 연결될 때 지혜를 전수해준 스승에 대해 존경심을 표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존경은 지식에 대한 존경, 지식의 보유자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실재의 본성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이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승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쌍방향적인 소통이 됩니다. 스승과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스승은 영적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스승은 그 자신의 수련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나누거나 깨달음 또는 온전한 정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영적 친구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당신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맞으면, 적절한 순간이 되면, 진정한 영적 친구가 당신 안에서 각성의 마음(heart)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마치 정맥으로 주사 약물이 들어가듯, 마음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당신은 (언제나 거기 있던) 붓다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른 누군가를 당신의 세계에 들이고 당신이라는 존재에 뭔가를 주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붓다의 본성인 특별한 요소가 당신 안에서 깨어날 때, 그것이 이질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낯설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이 경험은 깨달음을 전수하는 것으로 스승으로부터 우리는 달을 선물로 받고 달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한편으로, 보름달이 당신의 가슴 안으로 들어올 때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매우 큰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깨달음의 원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본다면, 달은 당신이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장 큰 탈출구가 됩니다. 당신 자신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도 여전히 다소간 외롭고 슬픈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슬픔은 더 높은 지혜와 깨달음을 갈망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태양을 심다

달이 가슴에서 깨어나면, 외로움과 자연스런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다른 인간들에게 귀찮게 시달리고 싶지 않았으면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느끼며, 그걸 넘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 시점에서 영웅적인 마음, 전사의 마음이 아주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마법(magic)'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법이란 이 현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경험을 바꾸는 것을 일컫습니다. 욕망과 공격성, 무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 경험을 존재의 자연스런 상태로 전환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법의 경험은 우리 자신 안에 태양을 이식하는 데서 옵니다. 불교 전통에서 태양은 여성적 원리, 달은 남성적 원리로 간주됩니다. 여성적 원리는 출산과 양육, 번성과 연결됩니다. 남성적 원리인 달은 당신의 가슴 안에 심어지지만 태양은 당신의 머리에 심어집니다.

태양의 특성은 두려움 없음과 부드러움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런 깨어 있음(wakefulness)입니다. 자연스런 깨어남이란 어떤 갈등이나 공격성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머릿속의 태양은 어떻게 당신의 세상을 조직할지 방법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지혜를 줍니다. 건물에는 대들보와 기둥이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듯 우리의 인생 역시 튼튼한 기둥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당신의 삶에게 깨어남을 표현하기 위해 텅 빈 구조물이 더 필요해집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무생물적인 물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개개인들이 천장이 되고, 창문이 되고 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달라 원리(mandala principle; 수행자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기운과 하나가 될 때 사용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라고 부르는 자연스런 현존의 정수입니다.

그 환경에는 존엄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엄성과 정직성을 함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존엄성을 잘난 체나 가짜로 생각하거나, 정직성을 모든 걸 다 말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정직성이 있으며, 그 정직성 안에서 우리는 존엄하면서도 소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사가 가지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환경의 정직성과 신뢰는 그 자체로 말합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미심쩍어 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창조한 환경으로 들어와 당신의 비전이 실현된 걸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깨어남이라는 지혜의 태양을 이식할 때, 동시에 자연스런 현존감과 진정성이 깃듭니다. 비할 데 없이 기쁜, 정말 즐거운 세상입니다.

자신 마주할 때 끔찍하든 좋든 정직하게 직시해야 불성 발견 스승 도움으로 더 깊이 도달 깨달음 과정서 슬픔 느끼기도 더 높은 지혜 추구하기 때문

변함없이 빛나는 참본성

전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전사의 마음에 연결되면 우리는 마음에 달을 심게 됩니다. 이 달에는 온화함과, 연민, 그리고 깨어 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태양을 심습니다. 태양은 모든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깨어 있음과 진정성을 가져옵니다.

전사의 마음이 길러지려면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여행을 하는 데 매우 게으릅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애써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막연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천에는 너무 게으르지요. 이러한 태도를 극복하면, 내면에 친절함과 온화함 또는 다정함(maitri),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연민 또는 자비심(karuna)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머릿속에 태양을 심는 것은 지성(intellect) 또는 지혜(prajna)를 키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성을 갈고닦음으로써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지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길로써, 사용하면 경험에서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이 순간의 알아차림과 세심함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윤회 또는 번뇌, 깨달음 또는 깨어남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이 잡생각이고 어떤 것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자연스럽게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기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나'는 고집 세고, 공격적이고, 성격이 급한 반면, 나 자체는 매우 이성적이며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는 존엄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차츰 발전되어 유쾌하고 즐거워집니다. 삶 자체가 즐겁습니다. 전사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왕이고 여왕입니다. 우리 가슴속의 달과 머릿속의 태양이 만날 때 우아함과 존엄성이 자연스럽게 빛나며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건강성이 '금강성(vajra)' 혹은 '파괴할 수 없는 본성(indestructible nature)'을 발전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금강성은 파괴할 수 없는 깨어 있음이며 부정할 수 없는 현존입니다.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금강성이란 누구도 당신의 책무나 존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수행 면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 수행자가 진심으로 가슴속에 달을 심으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사라집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가슴속의 달과 머릿속에 있는 태양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금강성도 커져갑니다.

전사의 마음을 발견하면 금강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샴발라에서 여성 원리(feminine principle)는 비공격적인 전사의 원리로서 매우 강력합니다. 여성적 원리가 분노로 바뀔 때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성 원리(masculine principle)는 사실 고요하고 온화합니다. 여성이 날카로운 칼날로 무언가를 자르면, 남성은 칼날을 안전하게 쥘 수 있게 받쳐줍니다. 태양과 달이 함께 연결된다는 것은 금강성의 참됨 또는 확고한 진실됨을 말합니다. 두 원리는 속임수 없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칼을 만들려면 날카로운 칼날과 칼의 무게가 잘 맞아야 하듯, 금강성은 세상에 몸담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금강성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불성을 수행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배종훈의
명상카툰

'세월 담긴 석상(石像)'

문수전 계단 옆에, 형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석상이 있다.

시간이 그 형상을 모두 흘려버렸지만, 분명 네발 달린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를 기려 만든 석상이었다.

폐사지의 석물은 남아 그 자리의 시간을 말하고 있기에 유달리 사랑스럽다. 부처의 얼굴이 남아 있지 않은 석불, 흐릿한 연꽃문양, 날개의 일부가 남은 비천상 등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과거의 시간을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그 모습을 그려 넣어본다.

가만히 고양이 석상의 머리에 손을 올려보니 차가운 돌의 기운이 손을 타고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

푸른빛에 마음자리 내어주어라

*

죽음이란 이런 것인가.

나는 바람처럼 이리로 저리로 쓸려 다녔다. 시간도 공간도 이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과거의 어느 곳에 머물렀다가 낯선 곳, 낯선 존재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어느 곳 하나 쉴 곳이 없었다. 무수한 빛과 색채의 세상. 때로는 강렬하고 투명한 빛이 두려워 도망치고, 때로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빛에 이끌렸다.

"무상아!"

시구 스님께로 달려갔다. 스님은 종종 내 이름을 불렀다. 스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를 쫓는 무리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 잿빛 연기를 피워 올리며 나를 두렵게 하고, 욕망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무리들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스님은 너럭바위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다. 반쯤 감은 눈빛이 고요했다.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환영이며 꿈같은 것이다. 너의 업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도 말아라. 네 본래의 마음자리를 생각해라."

스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나는 스님이 마음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다.

복슬이는 자기 자리에 엎드려 눈을 꾹 감고 있었다. 내가 떠난 것을 알고 있을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착하고 순한 개야. 부디 슬퍼하지 말기를. 서로 목줄에 묶여 있어 핥아주고 보듬어줄 수 없었지만, 내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검둥이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용케도 목줄을 푸는 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검둥이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복슬이의 기색을 살폈다. 복슬이가 검둥이를 노려봤다. 콧잔등에 잔뜩 주름을 잡고 으르릉거리다가 캉, 하고 날카롭게 짖었다. 검둥이는 꼬랑지를 내린 채 냉큼 뒷걸음질 쳤다. 내가 뭐라고 했더냐. 너 같은 무지렁이는 복슬이의 신랑이 될 수 없다고 했지. 저만큼 도망을 치고서도 미련이 남았는지 쉬 떠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검둥이를 향해 콧방귀를 뀌어줬다.

*

일주문 밖에서 추레한 사내가 휘청거렸다. 손으로 아픈 다리를 짚으며 걸음을 디딜 때마다 잘 굽혀지지 않는 다리가 허공에 호를 그렸고, 온몸이 여린 가지처럼 흔들렸다.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꼬질꼬질한 소매로 이마의 땀을 쓸었다. 걷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행이었다. 정작 힘든 것은 그의 성한 다리인 것 같았다. 성한 다리 한 짝에 그의 무게와 더불어 온 우주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낮추고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그에 대한 적의는 혼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에도, 또 지금도 나에게는 그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그것이 나를 비참하고 두렵게 만들었다.

그날, 시구 스님이 출가를 결심했던 날, 그도 나도 불구가 되었다. 나는 다리와 가슴뼈가 부러져



그림 · 강병호

평생 한쪽 다리를 들고 살아야 했고,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잃었다.

시구 스님과 마주 앉아서 그는 오래도록 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것은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깡마른 그의 몸은 자루처럼 너부러졌다. 그의 얼굴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인비늘이 허옇게 붙어 있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스님은 말이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고여 있는 물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스님은 그에게 삼배를 올렸다. 절 한 번에 사위가 밝아지고, 절 두 번에 그윽한 향내가 났으며, 절 세 번에 고요한 진동이 주위를 감쌌다.

*

맙소사! 저 둘이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복슬이가 검둥이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 시커먼 덩어리가 복슬이 위로 타고 올라갔다. 복슬이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복슬이에게는 고통도 기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긴 듯이 보였다.

어찌하여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일까. 이제 복슬이와 나는 다른 세상에 있는데. 어찌하여 저 검은 개를 향해 엄청난 질투심이 불타는 걸까. 검은 무리들이 내 뒤를 쫓았다. 잿빛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어느 곳 하나 피할 곳이 없었다.

나에게 발이 있었더라면 복슬이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혀가 있었더라면 컹컹 짖는 소리가 저 둘을 놀라게 했을 텐데. 나에게 이빨이 있었더라면 저 시커멓고 징그러운 다리를 와작 물었을 텐데. 나에게는 발이 없다. 나에게는 혀가 없다. 나에게는 이빨이 없다.

둘 사이로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뿌옇고 어두운 푸른빛이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 숨고 싶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 쉬고 싶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 몸을 얻고 싶었다.

"무상아!"

내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시구 스님은 어김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너럭바위 위에서 좌선에 든 스님은 불상처럼 보였다. 온기도 숨도 없이 오직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 자체로 보였다. 밝고 투명한 빛이 스님을 감쌌다. 아니, 그 빛은 스님 안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스님 안에 있는 청정한 기운이 스님을 비추고 그 주위까지 밝게 진동했다.

"고귀한 존재 무상아! 세상의 모든 것은 네 마음이 지은 것이다. 네 마음이 그린 것이다. 본디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도 없다. 애욕이 없으니 질투도 없다. 잘못이 없으니 용서도 없다. 그러니 헛된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본래 네 마음자리로 가라."

끓어오르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복슬이도 검은 무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경 읊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10년 동안 이 절에 머물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구절. 꿈결에서조차 들려오던 말씀.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그것이 참된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곧바로 여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금강경〉 5장 제1구게

앞에 있는 것은 오직 밝은 광채에 싸인 스님의 모습뿐이었다.

문득 깨달았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있었다. 그 말씀의 소리는 내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산뜻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에 내가 점점이 스러지고 있었다. 나는 스님에게로 갔다. 나의 가장 바깥부터 안쪽까지 녹여 나갔다. 밝고 투명한 빛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빛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끝〉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99호 현대불교
2016년 6월 1일 (4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이 세상 전체가 가설되어 있고 우주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대충 공부하는 그 과정에도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으니 실수하지 말고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지금 어떠한 감응이 돼서 이렇게, 지금 뜻으로 이렇게 감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뜻으로 확실히 감응이 돼서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대로 지금 기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대중 스님 쪽을 가리키시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스님네들이, 조그맣다고 조그만 게 아니라 내가 (가슴을 가리키시고) 먼저 나서 있으니까 조그맣다고 하겠죠? 조그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어린애라도, 스님네들이 나이가 적어서 어린애라도 바로 부처님으로 보실 수 있다면 바로 자기가 부처입니다. 이 도리를 상세히 알아야지 무시하고, 이거는 뭐 염불을 제대로 못하니깐 뭐 어쩌고, 이거는 뭐 아직도 멀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산중에 올라가서 돌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입니까? 왜 그럽니까? 돌이 무슨 말을 하고 돌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돌에다가 하겠습니까? 돌도 생명이 있고 돌도 부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역할을 받아서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확실히 참…, 물에서는 용신(龍神)으로서 한마음이 돼 주고, 들에서는 또 들에서 한마음이 돼 주고, 허공에선 허공대로 한마음이 돼 주고, 은하계에선 은하계대로 한마음이 돼서 그 수천 은하계를 다 한마음으로 보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 은하계를 대치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 요새 시쳇말로 블랙홀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죠. 블랙홀이라고 안 그래도 그냥 큰 별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냥 그 불바퀴라고 하는 거나 같죠. 불바퀴가 그냥 생산처기 때문에 불바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바퀴, 불바퀴, 수레바퀴를 잘 얘기하는데 수레라는 뜻을 가진 거는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뜻에서 수레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나 깨나 어떻게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밤과 낮이 갈려서 둘이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라고 했죠. 수레로 이름을, 수레를 방편으로 쓴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들이 있걸랑은 내놔 봐라. 답답한 마음, 욕심나는 마음, 관습 되는 마음, 이 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있걸랑은 내놔 봐라. 이 세상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쉴 사이가 없건만, 어찌 거기에 먼지 묻을 자리가 있다더냐. 네 마음도 그러하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나니라. 그런데 그 마음자리에 어찌 먼지 앉을 자리가 있다더냐." 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지어 가지고 그냥, 여기 스님네들도 이렇게 앉아 있지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벌써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도량에서도 그렇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어이구, 저 사람은 왜, 저 스님은 나를 가지고 왜 저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나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미워하는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자기한테서부터 온 거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로 보지 않고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 모든 거를 순응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앉은 자리를 아주 그냥 금방석으로 만들어 놓는 자리가 되겠죠, 움죽거리지도 않는 자리.

하여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가는 거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어떠한 용도든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밉게 볼 그런 사이가 없습니다. 이쁘고 밉고 이런 사이가 없다고요. 그럴 사이가 없다고요. 지금 문 없는 문으로 그냥, 죽고 사는 거를 다 걸고 넘어가는 판국에 그렇게 빨리, 빛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판국에,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판국에 무엇이 거기 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요?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되기 위해서죠. 허허허. 하여튼 이 양면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이 전자와 전자 줄을 갖다가 딱 이어 놓고는 불이 들어온다면 그 이어 놓은 자체는 바로 이 컵과 같죠.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불 들어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밝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나가 둘이 상봉을 못하면 임신이 될 수가 없고, 임신이 안 되면 어린애를 낳을 수가 없고, 어린애를 낳지 않는다면 어린애를 기를 수도 없고, 어린애를 기르지 않는다면 사람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아니 세세생생의 모습을 이걸로 저걸로 요걸로 그냥 바꿔 가면서 한 발도 빼지 못하고 그런다면 자기 중생도 건지지 못해.

여러분이 기어코, 기어코 '허!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죽는 거야 상관이 없다!' 하고 덤벼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이고!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오면 너무 답답해요, 그 자체를 볼 때. 살려 주고 죽여 주고 이런 거를 양면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떡을 만든다면, '하이고! 거 뭐, 살고 죽는 게 어디 따로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제 몸을 제가 간수하지 않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제 몸을 제가 간수하겠죠. 껍데기가 껍데기를 간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간수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껍데기를 간수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집을 사서 사는데 집이 무너진다, 이럴 때는 주인이 집을 간수하죠? 그 집 껍데기가 무너진 거를, 그 무너진 껍데기가 껍데기를 고쳐 낼 수 있겠습니까?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꺾지 못하듯. 우리는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기 위해서는 꼭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아야 합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어린애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럼 질문들 하세요.

질문자1(男) 스님,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큰스님 아주 간편하게 그냥 낙태라고 한마디로 해 버리네. 하하하. 사방에 붙어 들어오는 게 낙태인데, 허 참! 이거 봐요. 낙태를 한 번 시키려면 그 영혼 자체가 인간으로서 화(化)했을 때 어떤 영혼이 어디에서 왔나를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집안 조상들은 어떤 문제의 연관을 가졌나, 이거를 알아야 대처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낙태를 지금 산부인과에서 한다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 개든 스무 개든 백 개든 만 개든 상관이 없어요.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 수효는 따로 없으니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낙태를 시킨다면은 그거는, 즉 말하자면 물질적인 형상은 그냥 낙태를 시키고 그 영혼은 건져서 자동적으로 다시 재생이 돼 나가게 되니깐요. 용광로에다가 무조건, '용광로에 넣으면 무조건 녹아서 모두 가공돼 가지고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간다.' 이런 거를 아니까 용광로에다 다 넣거든요. 용광로에다 다 넣는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가요. 생산이 돼서 나갈 때 어떤 걸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즉 말하자면 용광로가 금(金)의 용광로냐 무쇠의 용광로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차원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역력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말을 하면은 아니 되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낙태라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물질세계에 사는 사람의 그 삶을 위해서, 둘째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셋째는 내가 넓어져서 지혜롭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삼합(三合)이 맞아야 되듯이, 이것이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면은 공부가 완전히 된 사람은 금(金) 용광로일 테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그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그냥 거기다가 놔라!

☞ 25면에서 계속

고…. 금 용광로에 넣어도 브로치가 되느냐, 목걸이가 되느냐, 반지가 되느냐, 귀걸이가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죠.

그런 데다 또 습이 덜 떨어지고 아주 그, 참 도리의 완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그것이 금 용광로가 아니라 그냥 무쇠 용광로가 돼 버려요. 그건 자동적이에요. 이거는 오신통(五神通) 자체가 컴퓨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쇠로다가 재생이 돼서 나가죠, 또.

사람들이 많고 많아도 차원이 다 있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요만큼도 똑같은 거는 없어요, 하여튼. 묘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를 방편으로 했으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건다고 해서 뭐 금방 죽을 거 살아나고, 금방 살아날 거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사람은 아이, 그냥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다녀도 죽더라." 이러진 마세요. 허허허.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개의치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되, 낙태라는 것도 그러한 요소 요소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낙태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할 게 있는데,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인다 이럴 때 주인공에다 놓고 하면 그 무명을, 그 짐승의 무명을 벗겨 주고 사람으로서 한 찰나에 되는 겁니다. 한 찰나에 사람의 용광로로 들어가서 재생돼서 사람으로서 환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공부를 아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생명을 그냥, 그걸 건지지도 않고, 둘 아니게 건지지도 않고 그냥 생명을 죽이니까 살생이 되는 겁니다. 낙태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뱀 한 마리를 죽여도 꼭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개구리 한 마릴 죽였어도 에누리가 없는 겁니다. 개구리도 자기 어미를 알고 자기 아비를 알고 자식을 알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한이 없겠습니까? 식구들을 다 때려죽여 보세요. 거기에 언제든지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철통같이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깐 낙태시키는 것도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죠. 정말입니다. 또 짐승이나 어떠한 고기를 물에서 잡아서 그냥 죽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짐승을, 산 것을 사다 먹지 마라. 산 것을 사다 먹지 말되 죽은 것도 네 살로 생각을 해라.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라." 채소들을 끓어다 먹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거지 생명을 안 죽이는 겁니까? 그러나 연쇄적으로 먹고 살게끔 다 돼 있는 것이니, 차원이 아주 낮은 거는 높은 놈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으니깐요.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깐요. 그러되 내 생명으로 알아라 이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걸 빨리빨리 진화시킬 수 있고, 빨리빨리 화할 수가 있고, 빨리빨리 창조력의 그 자유스러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치에 닿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아쉬움도 없는데 포수가 나가서 총질을 한다거나 낚시질을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죠. 반드시 두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주인공에 일임하고서 그대로 하셔야 그 무명이 벗겨질 수 있죠. 그래 첫째는 무명을 벗겨 주니까 자비고, 또 그 살은 약으로 대치를 하니까 자비고, 전부 다가 더불어 같이 자비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냥 살생이 되고, 인과응보가 되고 업보가 되는 겁니다.

질문자1(男)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생에 배운 공부, 예를 들면 역사나 외국어 실력 같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시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율곡 선생님은 태어나자 우는 소리가 글 읽는 소리라고 이렇게 들으셨다고 그러고 또 일곱 살 때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전생에 공부한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생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큰스님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부처님 될 그 이름을 타고났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했소? 하하하. 이거 봐요. 이 무(無)의 세계에서 아무리, 전생에 유(有)의 세계에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바로 탑은 쌓아야 탑이지, 예를 들어서 다 알아도 다시 한 번 방편으로 나와서 그 길을 더 멋지게 걸어야 돼요. 얼른 쉽게 말해서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더 그거를 열심히 해서 보여 줘야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지 아니, 보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율곡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생에 배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이런 게 있죠. 전생에 다 알고 했으면 물리가, 그만큼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져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벌써 열 가지까지, 이 벽을 치면 봇장까지 울린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으니까, 과거의 업보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과거의 업보는 내 몸속에 다, 여러분이 악업 선업 뭐, 모자라는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저 내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그냥 거기다가 놔라. '너만이, 네가 그렇게 저지른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되놓는 거죠. 그래야만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멀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어저께인데도 내가 탄생하기 이전과 똑같다 이겁니다, 어저께인데도. 거리가 가깝고 멀고가 없다. 일 초 전만 하더라도 과거예요, 벌써.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전체가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느끼지 못하겠걸랑 공부 열심히들 해요. 아무리 전자에 탑이, 잘 쌓아졌던 탑이 있다 하더라도 이생에 다시 탑이 쌓아져야 더 잘, 전자에는 탑이 오층탑이었었는데 십이층탑으로다가 잘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쳐다보게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보고 그래야만이 다 한마음이 돼 주지, 보여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거는 목석인가요? 오히려 전자에 알았다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라고 최초에 나와서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깨치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꽉 찼죠. 하하하.

질문자2(女) 저는 저 설악산 기슭에서 왔습니다. 여기 다니는 신도님께서 『한마음』이라는 책자를 보내줘 가지고요, 그걸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만날, 여기를 한 번이라도 와서 법회하시는 걸 듣고자 수없이 별렀는데 오늘 처음으로 와서 큰스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은 저의 손녀딸이 지금 두 살인데, 구개열이라고 입 천장이 열려 가지고 지금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언어의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큰스님 이 진리의 뜻에서 보면 어리고 늙고 점잖고 이런 게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 몸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누구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觀)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그 용광로에다가 놔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걸 일임시킨다면 앞서의 그 인과응보가 그냥 무너지면서 이것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더라도 그 언어의 지장이 없도록 관하세요. 이 관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진짜로 이 싹이 제 뿌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싹은 제 뿌리로 인해서 사는 거니깐 그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모든 걸 맡겨 놨을 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고 맡겨 놨을 때 바로 그 몸속에서 모든 의식들이 바로 모자라는 걸 채워 주고 이렇게 작용을 해 줍니다.

> **싹은 제 뿌리로 인해서 사는 거니깐**
> **그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모든 걸 맡겨 놨을 때**
> **바로 그 몸속에서 모든 의식들이 작용을 해 줍니다.**

질문자2(女) 그래 그 길을 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큰스님 예. 그러니까 관하시는 거를 똑바로 스님네들한테 물어서 가세요. 내가 "여쭤봐서 가세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그냥 "물어서 가세요." 이랬어요. 이게요, '물어봐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여쭤 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정말 그 한 마디에 일생 동안 말에 장애가 올 거를 대치할 수 있으니까요. 대치만 된다면 그게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쭤 보라고 할 수밖에요. (대중 박수)

여기 우리 스님네들이 금덩어리입니다. 우리 저 신도님들도 금덩어리고요. 금은 금방에 모두 모이죠? 무쇠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린 금이라고, 딴 사람은 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은 금인데, 다 금인데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무쇠도 되고 넝마도 되고 그러죠. 예. 또요?

질문자3(女)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해남, 장흥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요. 산 곳곳이 굉장히 민둥산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스님께서 광주 대법회 때 오셔 가지고 운주사에 가셨을 때도 제가 뒤에 같이 따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소나무들이 곳곳에 거기도 많이 죽어 있어서 뒤에 가면서도 '아이고, 큰스님께서 저걸 보시고 한마음 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 보니까 설악산 그런 전국 각지에까지 다 그 병이 번져 가지고 아주 경관도 다 해치고 몇십 년 된 소나무들이 다 죽어 간대요. 그래서 '전국 곳곳의 소나무들이 다 죽어 간다면….' 하는 생각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그것은 나라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옛날부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국보나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요. 사철 사는 거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소홀히 볼 수 없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사철 나무도 되고요.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문제가 좋지 않다 좋다를 떠나서 소나무가 더 빨리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즉 돌장승도 알고 있다. 돌장승도 알고 사람들도 전부 거죽으로는 모르나 속의 근본은 다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통신이 돼서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가,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나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전체,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전부가 다 한 사람이고 다 한 국민이죠. 국민이, 다 같은 마음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난들 어떡합니까? 하하하. 그래서 운주사? 거기 가서도 누운 그 와(臥)부처님을 보고서 내가 얘기해 드렸지마는 그 누운 부처는 누운 부처가 아니고 앉은 부처도 아니고 선 부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 드린 말씀, 나는 내가 말한 거를 뒤 돌려서 다시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도무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여튼 열심히 잘 관하셔서 일체가 다 마음들을 잘 쓰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 법문은 1994년 5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남녀 차별적 가치관 빨리 고치자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아서다.' '너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을 추모하며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포스트잇의 내용들이다. 2~30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강남역으로 나와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글을 쓰고 추모제를 여는 등, '강남역 10번 출구'는 여성들의 추모와 저항의 공간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매스컴이나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던 '여성혐오'를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로 만들었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상에 '김치녀(돈 많은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 '된장녀(명품만 좋아하는 여자)' '김여사(자동차 운전 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내는 여자)'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 '맘충(개념이 없는 엄마)' 등 여성혐오적인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2015년 여성과 관련된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관어 1위가 폭력 · 범죄 · 살인, 2위가 여성혐오 · 여성비하였으니,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여성혐오는 남성우월사상과 남녀 이중적인 성규범에서 출발한다. '여자에게 무시당했다'는 가해자의 말은 남자보다 열등한 여자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이는 일부 매스컴서 이번 사건을 '강남역 화장실녀'라고 그 죽음을 비하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강남 유흥가에서 새벽에' 발생했다는 일부 뉴스의 서술은 피해 여성을 '새벽까지 유흥가에 돌아다니는' 나쁜 여자로 낙인찍는다. 착한 여자는 밤이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밤에 나다니는 여자는 유흥가를 찾아다니는 나쁜 여자이므로 처벌받는다(죽을 수 있다)는 남성중심의 성규범을 여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2~30대는 딸이라고 차별받던 4~50대와는 달리 남성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여풍(女風)을 불러온 알파걸들은 유리벽과 유리천장에 절망했고, 지하철이나 직장내 성희롱, 소라넷 사이트처럼 일상에서 만연한 성폭력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포임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의 공통된 피해 경험은 집단화된 강력한 연대로 발전하면서 여성혐오 반대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거나 여성혐오범죄라는 주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구조적인 여성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붓다는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밧지족의 일곱 가지 불퇴전의 원리'로 가르치셨다. 즉 아자따삿뚜왕이 밧지족을 정복하려 하자, 붓다께서는 밧지족이 자주 모이고, 화합하고, 법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의례를 준수하고, 거룩한 님을 존중하며, "어떠한 훌륭한 가문의 여인들과 훌륭한 가문의 소녀들이라도 그녀들을 끌어내어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여인들과 소녀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면 번영할 수 없으므로 여성 보호는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여성혐오는 단순히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여성 혐오가 없으면 좋고, 있으면 할 수 없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여성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혐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처럼 국가가 앞장서 성평등한 법 ·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남녀 차별적인 가치관을 하루 빨리 평등하게 고치는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자라면 국가가 여성혐오 극복에 앞장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자행되는 여성혐오에 동조하거나 묵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 된다. 여성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성혐오에 분노하고,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기자 칼럼

꾸준한 관심이 교과서 바꾼다



윤호섭
취재부 기자

"저 선수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TV에 중계되는 수많은 스포츠경기에서 해설위원들이 멋진 장면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표현 중 하나다.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교과서. 그 분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검증된 내용을 전문가들이 서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교과서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만큼 교과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게 마련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교과서에 쓰인 불교서술은 전혀 교과서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의 시각으로 쓰인 〈고려사〉에서 신돈에 대해 '늙은 여우의 요정'으로 평가한 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싣는 것이나 '나미아무타불만 외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정토종을 백성 사이에 퍼뜨린 것'으로 원효대사를 설명한 대목 등은 불자라면 누구나 어이없고 분개할만한 내용이다. 제대로 된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교계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서술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보다 나은 불교서술을 제안코자 지난해 초 구성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었다. 바로 도덕 · 통합사회 교과의 '2015 개정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를 제작,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비롯해 검정교과서 출판사 등 10여 곳에 배포한 것이다. 역사 교과는 과거 교육과정을 비교 · 분석해 참고자료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배포하지 않았다.

도덕 교과 참고자료는 각 단원 성취기준에 어울리는 불교 관련 일화를 꼼꼼하게 소개했다. 저학년을 위해서는 성실 · 예절 등 주제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담았고, 고학년들에게는 불교의 특징을 살려 교리와 행복론, 자연관 등을 설명했다.

통합사회 교과는 인권 · 자본주의 등과 관련해 불교계 활동 및 소욕지족 등의 가르침을 담았다. 물론 이 교과에는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불교서술이 반영되기 어렵지만 역사 · 도덕 교과 외에 새로운 분야를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큰 기대 없이 배포한 참고자료에 대해 각 출판사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교과서 집필자가 직접 위원회에 연락해 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있어 그만큼 불교를 잘 아는 이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불교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집필진이나 출판사만 탓할 노릇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큼 관심을 갖고 대중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려 노력했는지 돌아보는 게 순서다.

과거 8~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출범했던 '교과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건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제는 교과서를 보며 불교를 접하는 새싹들을 위해 눈높이를 낮춰 마주볼 때다. 불교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는 것이야말로 포교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과서의 오류를 고쳐나가면서 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편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붓다로 살자"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성도한 후 49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리곤 이 진리를 과연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수많은 중생들에게 대기설법을 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과연 불교가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불교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아마도 이렇든 저렇든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 모두 관심 갖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닐까.

社說

초심자 안거 이끌 시스템 마련하자

불기 2560년 하안거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재가자들의 안거 동참 열기가 높다. 부산지역에서 2015년 하안거보다 300여 명이 증가한 2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고, 각 지역에서도 시민선원 개설 움직임이 활발하다.

재가자들의 안거 참여는 마음챙김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불교계의 재가자 안거 인프라가 구참자, 즉 오래 수행한 이들을 위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선원 운영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음에 맞는 도반끼리 함께 수행하는 문화가 공고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초심자들이 간화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입문 프로그램은 보급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지역의 확연한 증가세도 매뉴얼에 따른 부산사찰의 합동운영에 있었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과 수행일지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보급은 중단돼 있다.

부처님 재세 시의 일이다. 많은 대중이 몰려있었으나, 부처님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앞줄에는 출가한지 오래된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자리했고, 젊은 스님들과 초심자들은 대중의 뒤에 자리했다.

부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시자 마하가섭이 부처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리를 비켜 함께 앉았다. 부처님이 법성에 모든 것이 평등함을 보이고 나서 수행력에 따라 무리를 짓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전국에서 일고 있는 안거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급하고 문화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편 불교문학 발전 초석되길

한국비구니계 큰 어른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계 장편문학 확대를 위해 '법계문학상'을 제정했다.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시상하는 법계문학상은 평소 문학만큼 불교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판단한 명성 스님의 뜻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 볼 점은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과 등단 5년 미만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진 장편작가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과 유심작품상이 있지만 대부분 시와 시조, 평론, 학술 등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또 신예작가들의 등용문인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법계문학상은 최근 점차 위축되고 불교문학계에 한줄기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매년 우수작품을 선정해 책으로 발간한 계획이어서 작품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만 기성 문학상들이 짧은 작품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수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법계문학상 대상 상금이 1500만원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고지 1천매에 달하는 분량을 완성해야 하는 장편소설 특성상 분명 넉넉지 못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계문학상 외에도 불교계 발전을 위해 각종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명성 스님의 큰 원력이 퇴색돼선 안 된다. 누구도 쉽게 내딛지 못한 길을 혈혈단신으로 개척해나가는 입장에서 큰 짐을 짊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다. 앞으로 불교계가 문학 발전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싹을 틔울 것인가가 당면과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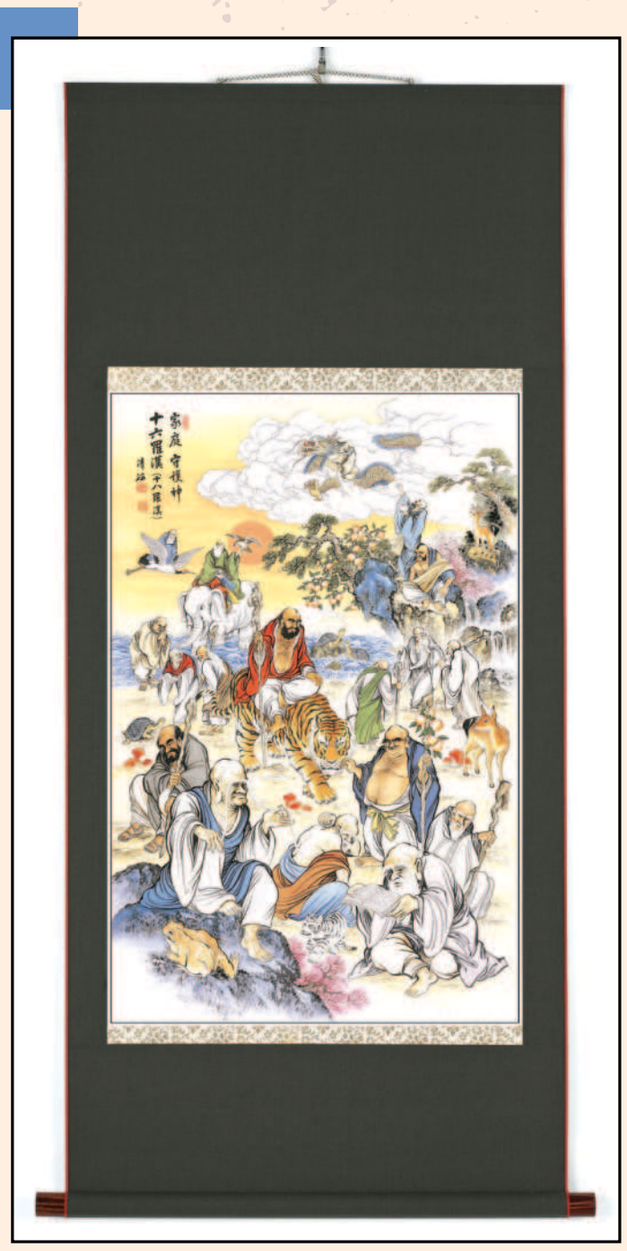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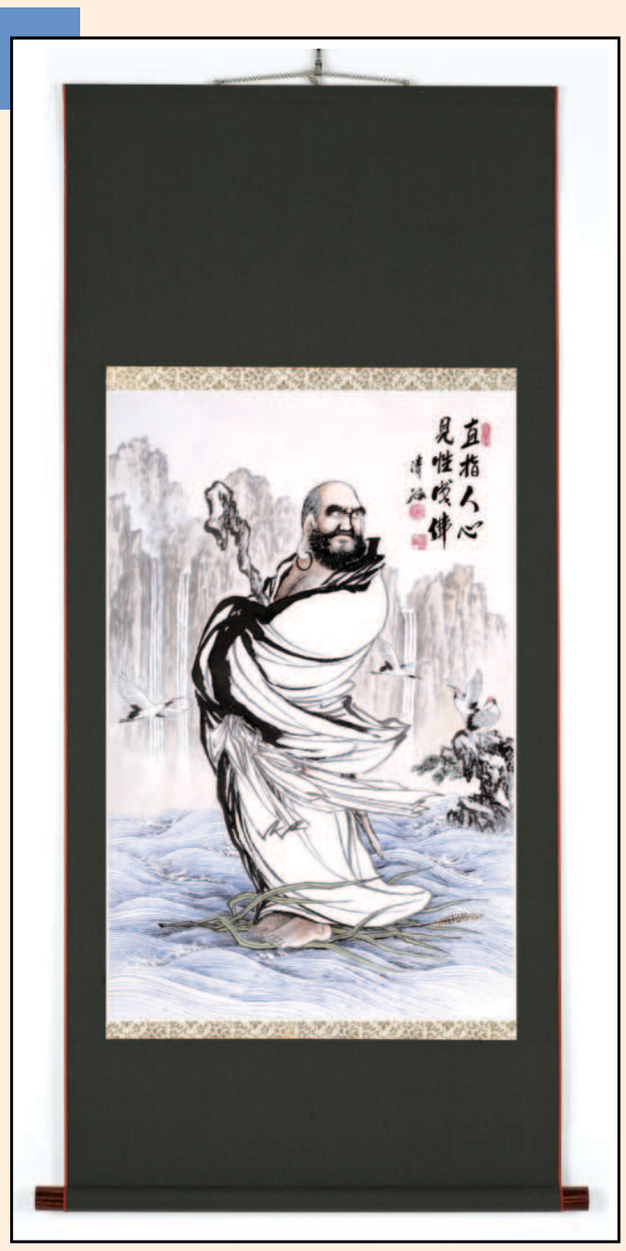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이십니다.

달마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